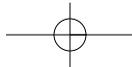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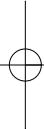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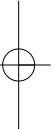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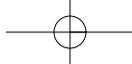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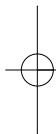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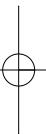


각종 기념일 등 이해 교육 지도서  
「중 등 용 개발자료」





90  
100  
K10



# 1

## 총론

1. 계기 교육의 필요성	06
2. 계기 교육의 운영 지침	08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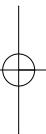
## 계기 교육의 영역과 자료의 유형

1. 주요 영역별 세부 항목	12
1) 국경일	
2) 명절	
3) 기념일	
4) 절기	
2. 개발 자료의 유형	17
1) 교사 주도의 훈화형	
2) 교사 주도의 훈화형과 학습자 활동 중심형의 혼합형	
3. 개발 자료와 교육과정 관련성	22

# 3

## 교사용 지도 자료의 실제

1. 국경일	30
2. 명절	60
3. 국가기념일	86
4. 절기	257





# 총론

1. 계기 교육의 필요성
2. 계기 교육의 운영 지침





# 01 계기 교육의 필요성

각종 기념일 등 이해 교육(계기 교육)의 실행 근거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3년 12월 공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련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4. 학교급별 공통사항’으로 ‘계기 교육’의 실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sup>1)</sup> ‘편성·운영’ 사항 중 다음의 경우가 그 예이다.

“(24)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계기 교육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일련의 시도임을 제시하고 있다.

계기 교육이 ‘사회 현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이 사회 인식 활동을 근간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자의 사회 인식 활동은 학교 급별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목표의 경우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sup>2)</sup>

중학교 교육목표에서 보자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sup>3)</sup> 또한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도 ‘우

1) 교육부(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p.20

2) 교육부(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3

3) 교육부(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6

4) 교육부(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9



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고 했다.<sup>4)</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기 교육은 그 지향점이 초·중등학교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구체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계기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서 시행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계기 교육의 합리적인 실천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교육자료집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 02 계기 교육의 운영 지침

계기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습자의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교과 교육과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함이 있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시대적 맥락을 초월하여 다소 항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다. 교과 교육과정은 세부적인 현실의 맥락을 모두 담아내지 않는다. 따라서, 계기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입장 및 실행 과정에서 학습자 친화적인 접근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시도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시사성, 상황 맥락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생생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기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는 교육과정의 선정 및 조직의 일반 원리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들의 경험이 가지는 유기적인 통합성과 지속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계기 교육 실행의 구체적인 지침이 교육과정 해설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범교과 학습 활동의 운영 방식에 관한 지침을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sup>3)</sup>

“범교과 학습 활동의 주제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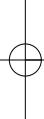
주요 교육 시책, 자기 발전 계획상의 사업, 국가 시책·중점 사업 등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환경, 교통, 절약, 안전, 질서·준법, 경로 효친, 예절 등과 같이 국가적, 지역적, 시대적,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범교과적인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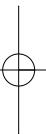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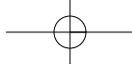
3)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정 해설』 p.165



내용은 회의 자료나 장학 계획, 협의회, 공문 지시 등으로 해결하려 해서 목표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학년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교과 학습 활동의 주제들은 계기 교육의 주제와 일치한다. 범교과 학습 활동의 주제들은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을 직접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계기 교육의 운영 방식은 범교과 학습 활동 운영 전략과 동일한 관점이 적용되어도 무방하다. 위 지침의 핵심적인 사안으로도 나와 있듯이, 계기 교육의 실천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과정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계기 교육은 학습자에게 또 다른 학습 대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의 교육적 적합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정규 교육과정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며, 그러한 연계 방식의 합리성 확보가 관건이다. 본 자료집은 교과 교육과정 연계 지도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및 아침 자습활동 시간 연계 지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 II

# 계기 교육의 영역과 자료의 유형

1. 주요 영역별 세부 항목
2. 개발자료의 유형
3. 개발 자료와 교육과정 관련성





# 01



## 주요 영역별 세부 항목



계기 교육의 주요 영역은 국경일, 명절, 기념일 그리고 절기 등 네 가지 차원이다. 여기서 국경일, 명절, 절기 등은 대상 모두를 교육 자료로 개발한다. 기념일의 경우, 교육과정 연계성 및 학교급별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교육 자료 개발의 대상으로서 네 가지 영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국경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sup>5)</sup> 해당 법률 제1조에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라고 나와 있다. 동 법률에서 제시한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 2. 명절

명절은 ‘세시풍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sup>6)</sup> 우리나라는 4대 명절이 있는데, 설, 한식, 단오, 그리고 추석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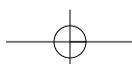
### 3. 기념일

국가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sup>7)</sup> 해당 법률 제 1조 목적을 보면,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2014년 3월 24일 개정 관련 영에 기초한 각종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5) 법제처(2005). 『국경일에 관한 법률』

6) 손인수(1991). 『한국인의 교육세시풍속』, 문음사, p.131

7) 법제처(201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제2조 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개발 여부	
					초등	중등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2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처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	4·3희생자 추념일	4. 3	안전행정부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행사를 한다.		
5	향토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6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7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	●
8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9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10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1	과학의 날	4. 21	미래창조 과학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정보통신의 날	4. 22	미래창조 과학부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3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4	총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 관광부	총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	
15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16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17	아버지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8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원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9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1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22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3	의병의 날	6. 1	안전행정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개발 여부	
					초등	중등
24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5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26	6·10민주항쟁	6. 10	안전행정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27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처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28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	●
29	철도의 날	9. 1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3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2	세계 한인의 날	10. 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3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4	체육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36	경찰의 날	10. 21	안전행정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7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8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9	지방자치의 날	10. 29	안전행정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40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의 저축정신을 북돋우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41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42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43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44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45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개발 여부	
					초등	중등
46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47	인구의 날	7. 11	보건복지부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 계몽을 추진한다. (국가기념일은 아님)	●	●

※개발여부(●): 개발 학교급(초등, 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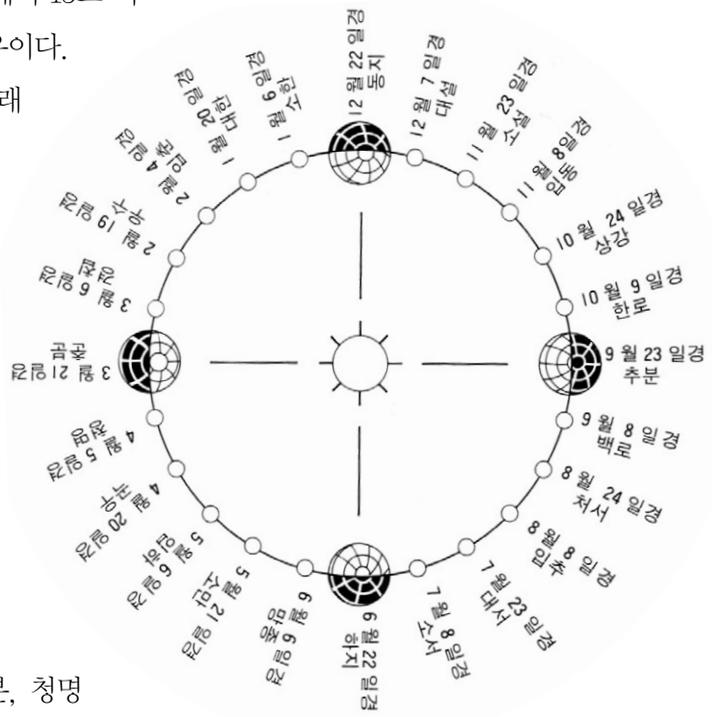
※인구의날은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의도 고려하여 추가함.

### 4. 절기

절기는 계절의 변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한 것이다. 절기는 1년 동안 천구상에서의 태양의 위치, 즉, 태양의 고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한 결과이다. 우리 조상들은 태양고도에 맞추어 1년을 15일 간격으로 24등분한 절기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sup>8)</sup>

그래서 태양이 춘분점에 왔을 때를 춘분, 춘분점에서 15도 이동했을 때가 청명, 다시 15도 이동했을 때가 곡우이다.

24절기를 태양 고도의 변화로 나타낸 그림이 아래의 절기도이다.<sup>9)</sup>



24절기 중 봄의 절기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그리고 곡우이다. 여름의 절기는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이다. 가을의 절기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이다. 겨울의 절기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이다. 24절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8) 권혁재(1997). 『한국지리』, 법문사, p.121

9) 권혁재(1997). 『한국지리』, 법문사, p.121

## ※24절기

절기	일자	내용
입춘(立春)	2월 4일 또는 5일	봄의 시작
우수(雨水)	2월 18일 또는 19일	봄비 내리고 싹이 틈
경칩(驚蟄)	3월 5일 또는 6일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남
춘분(春分)	3월 20일 또는 21일	낮이 길어짐
청명(淸明)	4월 4일 또는 5일	봄 농사 준비
곡우(穀雨)	4월 20일 또는 21일	농사비가 내림
입하(立夏)	5월 5일 또는 6일	여름의 시작
소만(小滿)	5월 21일 또는 22일	본격적인 농사 시작
망종(芒種)	6월 5일 또는 6일	씨 뿌리기 시작
하지(夏至)	6월 21일 또는 22일	낮이 연중 가장 긴 시기
소서(小暑)	7월 7일 또는 8일	더위의 시작
대서(大暑)	7월 22일 또는 23일	더위가 가장 심함
입추(立秋)	8월 7일 또는 8일	가을의 시작
처서(處暑)	8월 23일 또는 24일	더위 식고 일교차 큼
백로(白露)	9월 7일 또는 8일	이슬이 내리기 시작
추분(秋分)	9월 23일 또는 24일	밤이 길어짐
한로(寒露)	10월 8일 또는 9일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
상강(霜降)	10월 23일 또는 24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
입동(立冬)	11월 7일 또는 8일	겨울 시작
소설(小雪)	11월 22일 또는 23일	얼음이 얼기 시작
대설(大雪)	12월 7일 또는 8일	겨울 큰 눈이 옴
동지(冬至)	12월 21일 또는 22일	밤이 가장 긴 시기
소한(小寒)	1월 5일 또는 6일	가장 추운 때
대한(大寒)	1월 20일 또는 21일	겨울 큰 추위





# 02

## 개발 자료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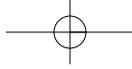
개발 자료의 접근 유형은 ‘교사 주도의 혼화형’, ‘교사 주도의 혼화형과 학습자 활동 중심형의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절기 영역은 ‘교사 주도의 혼화형’으로 개발하고, 국경일 및 명절 그리고 국가기념일 영역은 ‘교사 주도의 혼화형과 학습자 활동 중심형의 혼합형’으로 개발한다.

### 1. 교사 주도의 혼화형 사례: 절기<경칩(驚蟄)>

항목	경칩	영역	절기	시기	3월 5일 또는 6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경칩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경칩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혼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칩의 유래와 의미</li> <li>• 경칩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효경(2005a). “경칩”.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 pp.82-83.</li> <li>• 김효경(2005b). “개구리알먹기”.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 pp.85-86.</li> <li>• 서효숙(2005). “고로쇠물마시기”.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 pp.86-87.</li> <li>• 유만공 저, 임기중 역(1997).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pp.136-137.</li> <li>• 이찬욱(2005). “보리싹집”.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 p.88.</li> <li>• 하효길(2005). “2월”.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 pp.26-28.</li> </ul>				

#### ▶ 경칩의 유래와 의미

경칩은 양력으로 3월 5일 또는 6일이다.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그 밖의 동물들, 특히 파충류들이 봄이 온 것을 깨닫고 놀란 듯이 땅위로 튀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하효길, 2005). 이러한 표현은 만물이 긴긴 겨울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경칩이 되어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같은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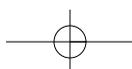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경칩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유만공의 세시풍요를 보면 이 시기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임기중 역, 1993: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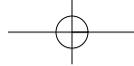
“익익한 닭소리와 애애한 날빛에,  
이미 경칩이 지났으니 벌레가 꿈틀거린다.  
봄 추위는 응당 떴듯한 기운이 없으니,  
어찌 굳은 얼음으로 항아리 터지는 추위가 있겠느냐.”

### ▶ 경칩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농사일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경칩 이후에는 불을 놓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활동을 시작한 생명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이다(김효경, 2005a). 또한 우리 조상들은 경칩이 되면 봄기운이 완연하기 때문에 흙일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집안의 벽을 바르거나 담을 고치기도 하였다(하효길, 2005).

경칩 때의 생활 풍속으로 ‘개구리알먹기’와 ‘고로쇠물마시기’가 있다. ‘개구리알먹기’는 ‘경칩 무렵이면 동면한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여 건져 먹는 풍속’이다(김효경, 2005b). 이 풍속은 만물의 생기를 담고 있는 생명의 정기를 섭취하는 것이기에 경칩의 의미와 통한다. 한편, ‘개구리알먹기’와 유사한 풍속으로 ‘고로쇠물마시기’가 있다. 이 풍속 역시 경칩이 되어서 생명력이 약동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이 시기에 채취하여 마신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효경, 2005a).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며 지리산 아래 해발 1,0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분포하며, 수액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알려져 있다(서해숙, 2005). 한편, 경칩 무렵이면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데, ‘보리싹점’ 보기도 행해진다. 이것은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싹의 성장 상태를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농점(農占)이다’(이찬욱, 2005).





## 2. 교사 주도의 훈화형과 학습자 활동 중심형의 혼합형 사례: 국경일<제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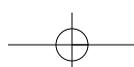
항목	제헌절	영역	국경일	시기	7월 17일
관련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 (8) 일상생활과 법, (9) 인권 보장과 헌법, (10) 헌법과 국가 기관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li> <li>• 헌법의 특성과 인권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li> <li>•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헌절의 유래</li> <li>• 제헌절의 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헌 헌법의 제정 과정</li> <li>• 우리나라와 외국 헌법 제1조</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li> <li>• 변태섭(1996). 한국사 통론. 삼영사.</li> </ul>				

### ▶ 제헌절의 유래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헌법이 제정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은 민주공화정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대통령령 제18893호, 2005.6.30.)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승격하게 되면서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 ▶ 제헌절의 의의

제헌절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와 국민은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복지국가건설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헌법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노력이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 제헌 헌법의 제정 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초 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선출 결의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7월 12일: 국회 통과(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공포 (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대통령)

### ▶ 우리나라와 외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헌법의 수정 제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처리를 위해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독일 헌법 1장(기본권) 1조 인간 존엄의 보호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미이다.



## 학생 활동지.1

# 헌법과 민주 공화국

### ▶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헌법'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보자.
2. 여러분이 적은 단어를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3.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4. 나의 생각과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여 헌법의 의미를 말해보자.

### ▶ 다음 자료를 보고 모둠을 구성하여 활동을 해 보자.

#### 대한민국 헌법 1조

#### 자료 01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탐색해보고,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2.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 주권, 국민, 권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민주권 원리를 헌법에 명시해 놓은 이유를 모둠별로 정리하여 말해 보자.



# 03



## 개발 자료와 교육과정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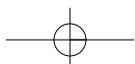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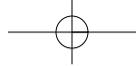
### 1. 국경일

항목	시기	관련 교육과정
3·1절	3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역사&gt; (3) 민족운동의 전개</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3) 민족운동의 전개</li> </ul>
제헌절	7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gt; (8) 일상생활과 법, (9) 인권 보장과 헌법, (10) 헌법과 국가 기관</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lt;법과 정치&gt; (1) 민주정치와 법</li> </ul>
광복절	8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 지리 영역&gt; (14) 통일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li> <li>• 중학교 &lt;역사&gt; (4) 대한민국의 발전</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4) 대한민국의 발전</li> <li>• 중학교 &lt;도덕&gt; (3) 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li> </ul>
개천절	10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역사&gt; 1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2 고조선의 성립과 초기 철기 여러 나라의 성장</li> </ul>
한글날	10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lt;국어(문법)&gt; 올바른 국어사용의 생활화</li> </ul>

### 2. 명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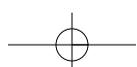
항목	시기	관련 교육과정
설날	음력 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3) 문화와 사회</li> </ul>
한식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과 윤리, 과학기술·환경·정보윤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li> <li>• 중학교 &lt;도덕&gt;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환경친화적인 삶</li>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3) 문화와 사회</li> </ul>
단오	음력 5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과 윤리, 과학기술·환경·정보윤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li> <li>• 중학교 &lt;도덕&gt;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환경친화적인 삶</li>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3) 문화와 사회</li> </ul>
추석	음력 8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3) 문화와 사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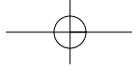


### 3. 국가기념일

항목	시기	관련 교육과정
식목의 날	4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 지리영역&gt; (5)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11) 자원의 개발과 이용 (12)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5) 미래를 보는 창</li> <li>• 고등학교 &lt;과학&gt; (3) 에너지와 환경</li> <li>• 중학교 &lt;도덕&gt; (4)-(가) 환경친화적 삶</li> <li>• 초중등학교 &lt;창의체험활동&gt; 자연보호활동</li> </ul>
보건의 날	4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lt;운동과 건강생활&gt; 건강 및 건강관리의 개념</li> </ul>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li> <li>• 중학교 &lt;사회[역사]&gt; 근대이후 (2) 민족운동의 전개</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5)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li> </ul>
4·19혁명 기념일	4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5) 정치과정과 시민참여</li> <li>• 중학교 &lt;사회[역사]&gt; 근대이후 (3) 대한민국의 발전</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li> <li>• 고등학교 &lt;법과 정치&gt;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li> </ul>
장애인의 날	4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9) 인권 보장과 헌법</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lt;생활과 윤리&gt; (4)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li> </ul>
과학의 날	4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지리]&gt; (11) 자원의 개발과 이용 (12)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li>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11) 국민경제와 경제 성장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중학교 &lt;도덕&gt; (4)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4) 환경변화와 인간</li> </ul>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 일반사회 영역&gt;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8) 일상생활과 법</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4) 환경변화와 인간</li> <li>• 중학교 &lt;도덕&gt; (2)-(다) 사이버 윤리와 예절</li> </ul>
법의 날	4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8) 일상생활과 법 (9) 인권 보장과 헌법 (10) 헌법과 국가 기관</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lt;법과정치&gt; (1) 민주정치와 법</li> </ul>
근로자의 날	5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11) 국민경제와 경제 성장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2) 공정성과 삶의 질 (3) 합리적 선택과 삶</li> <li>• 고등학교 &lt;경제&gt; (2)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li> <li>• 고등학교 &lt;생활과 윤리&gt; (2) 사회윤리와 직업 윤리</li> </ul>
아버지 날	5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1) 개인과 사회생활</li> <li>• 고등학교 &lt;생활과 윤리&gt; (2) 생명·성·가족윤리</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1) 사회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2) 개인과 사회구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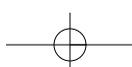
항목	시기	관련 교육과정
스승의 날	5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1) 개인과 사회생활</li> <li>• 고등학교 &lt;생활과 윤리&gt; (2) 생명·성·가족윤리</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1) 사회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2) 개인과 사회구조</li> </ul>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5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5) 정치과정과 시민참여</li> <li>• 중학교 &lt;사회[역사]&gt; 근대이후 (3) 대한민국의 발전</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li> <li>• 고등학교 &lt;법과 정치&gt;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li> </ul>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1) 개인과 사회</li> <li>• 고등학교 &lt;생활과 윤리&gt; (2) 생명·성·가족윤리</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1) 사회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2) 개인과 사회구조</li> </ul>
바다의 날	5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 지리 영역&gt; (13) 우리나라의 영토</li> <li>• 중학교 &lt;사회 일반사회 영역&gt; (13) 국제사회와 국제정치</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5) 미래를 보는 창</li> <li>• 중학교 &lt;과학&gt; (7) 수권의 구성과 순환</li> </ul>
환경의 날	6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 지리영역&gt; (5)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11) 자원의 개발과 이용 (12)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5) 미래를 보는 창</li> <li>• 고등학교 &lt;과학&gt; (3) 에너지와 환경</li> <li>• 중학교 &lt;도덕&gt; (4)-(가) 환경친화적 삶</li> <li>• 초중등학교 &lt;창의체험활동&gt; 자연보호활동</li> </ul>
현충일	6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lt;윤리와 사상&gt; IV. 사회 사상, 국가와 윤리</li> </ul>
6·10 민주항쟁 기념일	6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lt;법과 정치&gt; 민주정치와 법, 정치권력과 법치주의</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VI.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li> </ul>
6·25 전쟁일	6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역사&gt; 대한민국의 발전·광복,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분단과 6·25전쟁의 전개</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VI.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6·25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참상과 영향</li> </ul>
정보 보호의 날	7월 둘째주 수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중학교 &lt;도덕&gt; (2) 우리·타인의 관계</li> <li>• 중학교 &lt;기술가정[기술]&gt; (3) 정보와 통신기술</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4) 환경변화와 인간</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6) 현대사회와 사회변동</li> <li>• 고등학교 &lt;생활과 윤리&gt; (3) 과학 기술·환경·정보윤리</li> </ul>
인구의 날	7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지리]&gt; (6) 인구변화와 인구문제</li>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중학교 &lt;도덕&gt; (2) 우리·타인의 관계</li> <li>• 중학교 &lt;기술가정[가정]&gt; (4) 가족의 이해 (6) 진로와 생애 설계</li> <li>• 고등학교 &lt;생활과 윤리&gt; (2) 생명·성·가족 윤리</li> <li>• 고등학교 &lt;기술가정&gt; (1)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3) 합리적 선택과 삶 (5) 미래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lt;한국지리&gt; (8)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li> <li>• 고등학교 &lt;세계지리&gt; (4)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도시</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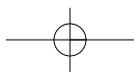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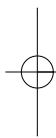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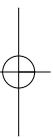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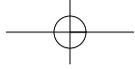
항목	시기	관련 교육과정
국군의 날	10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도덕&gt;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li> <li>• &lt;창의적 체험활동&gt; 진로</li> </ul>
체육의 날	10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lt;운동과 건강생활&gt; 운동과 건강관리, 건강 및 건강관리의 개념</li> </ul>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gt;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고등학교 &lt;사회·문화&gt; 문화와 사회</li> </ul>
경찰의 날	10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일반사회]&gt; (8) 일상생활과 법 (10) 헌법과 국가기관</li> <li>• 중학교 &lt;도덕&gt;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lt;사회&gt;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lt;법과 정치&gt;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5) 사회생활과 법</li> </ul>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역사&gt; 민족운동의 전개</li> <li>• 고등학교 &lt;한국사&gt;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li> </ul>
소비자의 날	12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lt;법과 정치&gt; V. 사회생활과 법, 소비자의 권리와 법</li> </ul>
무역의 날	12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gt; 글로벌 경제와 지역변화,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li> <li>• 고등학교 &lt;경제&gt;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무역의 원리 및 무역 정책</li> </ul>

#### 4. 절기

항목	시기	관련 교육과정
입춘	2월 4일 또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 지리 영역&gt;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lt;국어 문학 영역&gt;</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li> </ul>
우수	2월 18일 또는 19일	
경칩	3월 5일 또는 6일	
춘분	3월 20일 또는 21일	
청명	4월 4일 또는 5일	
곡우	4월 20일 또는 21일	
입하	5월 5일 또는 6일	
소만	5월 21일 또는 22일	
망종	6월 5일 또는 6일	
하지	6월 21일 또는 22일	



항목	시기	관련 교육과정
소서	7월 7일 또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lt;사회 지리 영역&gt;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lt;국어 문학 영역&gt;</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li> </ul>
대서	7월 22일 또는 23일	
입추	8월 7일 또는 8일	
처서	8월 23일 또는 24일	
백로	9월 7일 또는 8일	
추분	9월 23일 또는 24일	
한로	10월 8일 또는 9일	
상강	10월 23일 또는 24일	
입동	11월 7일 또는 8일	
소설	11월 22일 또는 23일	
대설	12월 7일 또는 8일	
동지	12월 21일 또는 22일	
소한	1월 5일 또는 6일	
대한	1월 20일 또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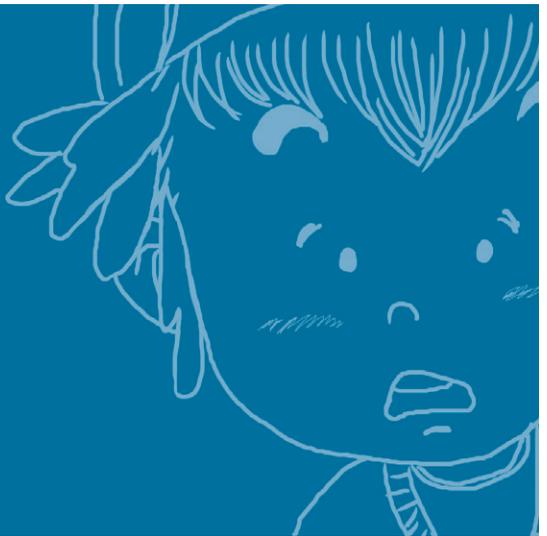
# III

## 교사용 지도 자료의 실제

- 1. 국경일
- 2. 명절
- 3. 국가기념일
- 4. 절기



기  
역  
사  
의  
이  
해



각종 기념일 등 이해교육 지도서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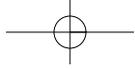
## 3·1절 / 국경일

항목	3·1절	영역	국경일	시기	3월 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역사 (3) 민족운동의 전개</li> <li>• 고등학교 한국사 (3) 민족운동의 전개</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절의 의미를 운동의 전개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독립선언문에 담겨진 의미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운동의 전개</li> <li>• 3·1운동의 역사적 의미</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처(2011), 「3·1절 계기교육 자료집: 애들이 3·1절 이야기를 들어볼래」, 도서출판 북산.</li> <li>• 국사편찬위원회(1968), 「한국독립운동사」 2.</li> <li>• 박성수(1995), 「알기 쉬운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li> <li>• 신용해(2001),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 출판부.</li> <li>• 아틀라스 한국사 편찬위원회(2004),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li> </ul>				

### ▶ 3·1운동의 전개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을 기념하여 국경일로 정한 날이다. 3·1운동은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후 1919년까지 일제는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하였다. 여기서 무단 통치라는 것은 군대와 경찰력으로 강제적인 위협을 행사하면서 우리 민족을 수탈하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억압은 우리 민족 각계각층의 반발과 독립 움직임을 야기하였다. 특히 고종 황제의 독살설은 큰 분노를 낳고 독립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였다. 때마침 세계정세도 민족자결주의를 옹호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계와 학생세력이 결집하게 되었고, 1919년 3월 1일 그 역사적인 독립선언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지도자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같은 시각, 수많은 학생과 백성들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보도한 독립신문의 기사이다. 그 내용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목은 ‘3월 초하루 이다(박성수, 1995: 199).

거룩할사 기꺼울사 3월 초하루  
서른 세분 이름 두어 독립선언서,  
대한민국은 독립국, 민족은 자유라고  
높이 외치던 3월 초하루

탑골공원 오후 2시, 3월 초하루  
벽력 같은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2천만 대한국민의 가슴에 울려  
3천리 진동하던 3월 초하루

한편, 이들의 독립선언서는 ‘인류의 양심과 자유, 정의, 인도, 평화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의 강렬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 한 것으로 공약 삼 장에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국가보훈처, 2011: 17).

- 금일(今日) 오인(吾人)의 차거(此舉)는 정의(正義), 인도(人道), 생존(生存), 존영(尊榮)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逸走)하지 말라.
-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快)히 발표하라.
- 일체(一切)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吾人)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光明正大)하게 하라.

3·1운동은 서울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번져 나갔다. 또한



3월 1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5월 말까지 전개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1968)가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2」에 따르면, 전국의 각 도별로 만세운동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국가보훈처, 2011: 19).

※지역별 만세시위 상황(단위: 건)

지역별 / 일자별		3/1~3/14	3/15~3/28	3/29~4/11	4/12~4/30	계
중부	서울	11	52	0	1	64
	경기	13	97	107	1	218
	충남	11	15	53	1	80
	강원	7	6	52	7	72
	충북	0	7	40	4	51
북부	평남	71	3	10	1	85
	황해	28	22	68	6	124
	평북	45	12	58	0	115
	함남	41	30	2	0	73
	함북	12	15	14	2	43
남부	경북	9	31	18	3	61
	경남	10	44	45	10	109
	전북	8	14	1	1	24
	전남	10	12	6	3	31
합계		276	360	474	40	1,150

【출처】 국가보훈처(2011: 19)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이 따랐다. 전체 시위 횟수는 1,542회로 통계가 잡히고 있으며, 2백만 명 이상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죽거나 다친 사람도 있었고, 투옥된 사람도 많았다.

※3·1운동 관련 통계(단위: 건, 명)

도명	시위 횟수	시위 군중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잡힌 사람	불탄 교당	불탄 학교	불탄 민가
경기도	297	665,900	1,472	3,124	4,680	15	-	-
황해도	115	92,670	238	414	4,218	1	-	-
평안도	315	514,670	2,042	3,665	11,610	26	2	648
함경도	101	59,850	135	667	6,215	2	-	-
강원도	57	99,510	144	645	1,360	-	-	15
충청도	156	120,850	590	1,116	5,233	-	-	-
전라도	222	294,800	384	767	2,900	-	-	-
경상도	228	154,498	2,470	5,295	10,085	3	-	16
만주일대	51	48,700	34	157	5	-	-	-
합계	1,542	2,051,448	7,509	15,850	46,306	47	2	679

【출처】 신용해(2011: 184), 국가보훈처(2011: 20)

▶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3·1만세운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일제의 무단 통치는 우리 민족의 저항에 직면하여 식민지 통치 방식을 문화정치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지휘할 수 있는 통합된 지도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아틀라스 한국사 편찬위원회, 2004: 164).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독립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5·4운동이다. 또한 인도의 비폭력 식민지 해방운동, 베트남 및 필리핀 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국가보훈처, 2011: 26).



# 학생 활동지.1 3·1운동의 의미

➔ 다음의 사진과 <공약 삼 장>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01	광화문기념비전 앞의 시위 군중
광화문기념비전 앞의 시위 군중	
공약 삼 장	<p>①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p> <p>②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p> <p>③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p>

【출처】 3·1문화재단(2012). 「3·1운동 새로 읽기」. 예지. p.92.

1. 위 사진은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까닭은 무엇인가?
2. 공약 삼 장 중에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3·1운동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3·1절 노래 가사에 담긴 의미

▶ 다음은 3·1절 노래이다. 밑줄 친 가사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조급느리게 정인보 가사  
박태현 작곡

기 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노래가사	의미
<u>기미년 삼월일일 정오</u>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u>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u>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u>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u>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 학생 활동지.3 유관순 열사를 아시나요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01	유관순의 서대문 감옥 수형자 기록표
내용	 <p style="text-align: right;">유관순의 서대문 감옥 수형자 기록표</p>

【출처】 이정은(2004), 「유관순」, 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자료 02	유관순 연보
내용	<p>1902년 0세 - 충남에서 태어남.  1915년 13세 - 이화학당 보통과 2학년으로 편입함.  1918년 16세 - 이화학당 보통과 졸업함,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 진학함.  1919년 17세 - 3월 1일 3·1운동 발발하였고, 서울 만세운동에 참여함.  1919년 17세 - 3월 13일 기차를 타고 고향 천안으로 내려감.  1919년 17세 - 3월 14일 이후 아우내 장터 만세시위운동 준비함.  1919년 17세 - 4월 1일 아우내 만세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1919년 17세 - 6월 1일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음.  1920년 18세 - 3월 옥중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모진 고문을 받은 후 9월 순국함.</p>

【출처】 이정은(2004: 499-504)

1. 유관순이 민족을 위하여 한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료 2에서 찾아보자.
2. 유관순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 02

## 제헌절 / 국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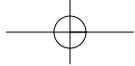


항목	제헌절	영역	국경일	시기	7월 17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8) 일상생활과 법, (9) 인권 보장과 헌법, (10) 헌법과 국가 기관</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 법과 정치 (1) 민주정치와 법</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li> <li>• 헌법의 특성과 인권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li> <li>•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헌절의 유래</li> <li>• 제헌 헌법의 제정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헌절의 의의</li> <li>• 우리나라와 외국 헌법 제1조</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li> <li>• 변태섭(1996). 한국사 통론. 삼영사.</li> </ul>				

### ▶ 제헌절의 유래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헌법이 제정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은 민주공화정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대통령령 제18893호, 2005.6.30.)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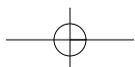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승격하게 되면서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 ▶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와 국민은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복지국가건설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헌법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노력이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헌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 제헌 헌법의 제정 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초 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선출 결의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7월 12일: 국회 통과(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공포  
(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대통령)

### ▶ 우리나라와 외국 헌법 제1조

<p>대한민국 헌법 제1조</p>	<p>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p>
<p>미국 헌법의 수정 제1조</p>	<p>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처리를 위해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p>
<p>프랑스 헌법 제1조</p>	<p>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p>
<p>독일 헌법 1장(기본권) 1조 인간 존엄의 보호</p>	<p>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미이다.</p>



## 학생 활동지.1

# 헌법과 민주 공화국

### ▶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헌법'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보자.
2. 여러분이 적은 단어를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3.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4. 나의 생각과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여 헌법의 의미를 말해보자.

### ▶ 다음 자료를 보고 모둠을 구성하여 활동을 해 보자.

#### 대한민국 헌법 1조

#### 자료 01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의 '민주 공화국'의 의미를 탐색해보고,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2.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 주권, 국민, 권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민주권 원리를 헌법에 명시해 놓은 이유를 모둠별로 정리하여 말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헌법 정신의 기원과 인권

▶ 다음 내용을 보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 ※영국의 권리장전(1689년)

제1조 국왕은 왕권에 의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제4조 국왕이 권력을 이용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

제6조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상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여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8조 국회 의원의 선거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나 토론, 의사 절차는 의회 이외의 어떠한 재판소나 장소에서도 탄핵되거나 문제시 할 수 없다.

### ※미국 독립선언문(1776년)

(전략)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들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 ※프랑스 인권 선언문(1789년)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소멸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존이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것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1. 위에 제시된 문건과 시민혁명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 보자.
2. 위에 제시된 문건들이 헌법 정신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발표해 보자.
3. 헌법 정신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건들을 더 찾아보자.

예) 영국의 대헌장



### 학생 활동지.3

##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 형태 변화

➡ 다음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 가지 헌법 내용이다. 내용을 보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 1. 대한민국 국제(大韓國國制): 1899년(광무 2년) 8. 14 반포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할 전제 정치니라.

제6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고 사면·복권을 명하시니라.

제8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부의 관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시니라.

제9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선전·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시니라.

#### 2.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년 4. 11 제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 3. 대한민국 제헌 헌법: 1948년 7. 17 공포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①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 위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설명해 보자.

2. 제헌 헌법 5조의 내용과 유사한 현행 헌법 조항들을 찾아보고, 이 조항이 보호하려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3. 헌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 학생 활동지.4

#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호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자료 0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정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자료 02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은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의 기본적 인권들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력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개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제 수단으로서 민주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중략) 국가는 절대적인 '악' 도 아니지만 절대적인 '선' 도 아니다. 만약 국가가 절대 '선' 이라면 헌법이나 법률도 필요 없을 것이다. 국가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출처】 김두식(2011). 헌법 풍경. 교양인

1.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제시해 보자.
2.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겐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 보자.
3. 자료 2에서 국가는 절대적인 '악' 도 아니고 절대적인 '선' 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4. 헌법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토의해 보자.



# 03

## 광복절 / 국경일

항목	광복절	영역	국경일	시기	8월 1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14) 통일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li> <li>• 중학교 역사 (4) 대한민국의 발전</li> <li>• 고등학교 역사 (4) 대한민국의 발전</li> <li>• 중학교 도덕 (3)(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절의 의미를 한국민족독립운동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li>• 광복절의 역사적 의의를 알고, 국가발전 및 민족증흥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절의 유래</li> <li>• 광복절의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양기 외(2002), 「한 권으로 읽는 한국사」, 휴머니스트.</li> <li>• 박성수(1995), 「알기 쉬운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li> <li>• 정근식(2006), 「광복」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광복절의 유래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제국주의가 종식을 고한 날이다.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선언하고 난 뒤, 우리 민족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에 정부수립을 선포하였고, 1949년 5월 국무회의를 통해 8월 15일을 광복절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광복이라는 말은 항일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탄생한 용어이다. 대한광복회, 광복군 사령부, 철혈광복단, 조국광복회,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등의 조직 명칭에서 유래한다. 특히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은 「광복」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정근식, 2006). 요컨대, 광복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을 기리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이렇게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이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이 있다.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 머지않아 조선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는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그 이행을 약속하게 된다(김양기 외, 2002: 210). 이러한 선언은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노력이 현합국 구성원에 영향을 미쳐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즉, 광복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족독립운동의 역사가 기본 바탕이 되었다.

### ▶ 광복절의 의미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의 산물로 이루어낸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 이후 의병들의 저항,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 등이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여 이루어낸 독립을 기리는 날이다. 이에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앞으로 민족의 중흥과 번영을 위해 우리들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광복을 기뻐하는 모습



## 학생 활동지.1 광복의 의미

➡ 다음은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기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독립 운동의 발자취들이다.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
- 1906년 통감부 설치
- 1907년 국채보상운동 시작
- 1907년 헤이그 특사 만국평화회의 참석
- 1908년 의병 서울 진공 작전 시도
-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실시
- 1919년 3·1운동 발발
-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 1920년 청산리 대첩
- 1926년 6·10 만세운동 일어남
- 1927년 민족 통일 전선인 신간회 창립
- 1928년 상하이에서 이동녕, 김구 등이 한국 독립당 결성
- 1932년 윤봉길, 상하이의 흥커우 공원의거
- 1938년 조선 교육령 개정, 한글 교육 폐지
- 1939년 국민 징용령 실시, 강제 연행 시작
- 1940년 창씨 개명 강요, 황국신민화교육 강화
-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
- 1943년 징병제 강제 실시
- 1945년 8·15 광복

1. 위 연표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은 무엇인가?
2. 위 연표에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 저항한 사건은 무엇인가?
3. 8·15 광복이 오기까지 조상들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서로 말해보자.



## 학생 활동지.2

# 왜 조선총독부 건물은 철거되었나요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01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건물
내용	

자료 02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내용	199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철거되었다. 이 건물은 일제시대 식민지수탈의 본부로 사용되었고, 지금의 광화문 자리에 있었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경복궁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광복 이후에는 중앙청으로 상당 시간 사용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하였다. 새롭게 국립중앙박물관을 만들고 옛 조선총독부 건물은 해체시켰다. 1995년 8월 15일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왜 일제는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만들어 설치하였을까?
2.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할 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지금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한다면 어떤 입장인지 자신의 견해와 그 이유를 말해보자.



# 04

## 개천절 / 국경일

항목	개천절	영역	국경일	시기	10월 3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역사, 1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li> <li>• 고등학교 한국사,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2 고조선의 성립과 초기 철기 여러 나라의 성장</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천절의 의미를 건국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li> <li>• 국가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천절의 유래</li> <li>• 개천절의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브리태니커 백과사전</li> <li>•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개천절 내용 재구성 (<a href="http://folkency.nfm.go.kr/main/main.jsp">http://folkency.nfm.go.kr/main/main.jsp</a>)</li> </ul>				

### ▶ 개천절의 유래

10월 3일은 개천절로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을 기리는 뜻으로, 고(古)조선을 건국한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이 경축일로 제정된 것은 1909년 중창(重創)된 나철의 대중교에 의해서이다. 이는 상하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8·15해방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로서 우리의 고유한 제천행사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부르며 1년 농사를 마감하고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하는 제천의식을 거행해왔다. 이는 고구려의 동맹·부여의 영고·동예의 무천 등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에서도 국난 때마다 단군신앙이 부활되고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여러 지역의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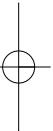




속에서는 지금까지도 해마다 10월에 제천의 형식을 띤 동제를 거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개천절을 10월로 정한 기본적 근거가 되었다.

### ▶ 개천절의 의미

개천절은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하여 민족적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념되어 왔다. 개천절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경축되고 있는 점이나, 최근에 와서 북한도 기념일로 지정하여 민족공동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점은, 남북이 모두 개천절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휴일에서 개천절을 제외하자는 입장도 있고, 건국 신화를 종교 차원에서 해석하여 단군을 배척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다원화와 세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개인주의나 서구중심주의적 가치로 인하여 탈민족적 경향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민족의 정체성과 결속을 도모하는 날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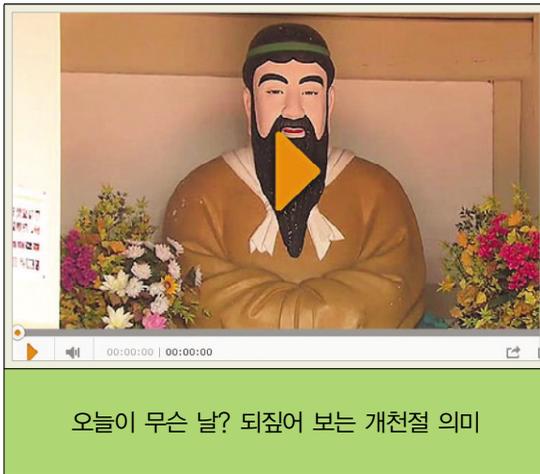




## 학생 활동지.1

# 개천절에 대한 나의 지식

➡ 다음은 개천절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기자 : 개천절이 어떤 날인지 물어봤습니다.
- 중학생 : (개천절 뭐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쉬는 날. 놀아요.
- 고등학생 : 헌법을 제정한 날.
- 기자 : 대학생도 막연하게 아는 수준입니다.
- 대학생 : 나라가 열린 날.
- 국학원장 : 우리의 교육이 부재했구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또 우리 정체성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거든요…….

【출처】 SBS뉴스(2013.10.03.)[http://news.sbs.co.kr/section\\_news](http://news.sbs.co.kr/section_news)

1. 개천절이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지 적어보고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 해 보자.
2. 여러분이 태어난 날, 또는 가족 간(친구 간)의 특별한 기념일과 그것이 특별한 이유를 짚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 그 결과를 적어보자.
  - 2-1. 특별한 기념일은? (있다면 명칭 기록)
  - 2-2. 그러한 날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담겨 있는 사연 기록)
  - 2-3. 그렇다면 개천절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 해 보자.
3. 다음 빈칸을 각자 채워 보자.  
 개천절은  이다.



## 학생 활동지.2-1

# 홍익인간의 정신 구현

- ▶ 다음은 단군신화와 관련된 고서(古書)의 내용 중 일부와 교육기본법 제2조이다.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삼국유사 기이편

“[위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으니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제석)에게서 자(子)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의 일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니, 이를 신시라 하고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환웅은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재하면서 세상에 머물며 교화하였다. 뒤에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고, 단군이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세웠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은 해방 후 1949년 12월 31일 정식 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의 기본이념이 되었으며, 현재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동기를 『문교개관(1958)』에서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1. 단군신화에서 나타나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삼국유사의 본문에서 찾아보자.
2. 아래에 제시된 A씨와 B씨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 학생 활동지.2-2

# 홍익인간의 정신 구현

연예인 A씨의 환경 보호	그는 가능한 한 걷고 수소 연료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태양에너지를 적극 이용한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한 그는 “지구상에 호랑이가 3,200마리 밖에 안 남아 있고 바다상어의 90%가 사라진 데다 앞으로 10년 내에 아프리카 코끼리는 멸종될 수 있다”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삶으로 유명하다.
연예인 B씨의 멘토링	가톨릭계 여고 출신으로 왕따 경험자인 그녀는 14세 소년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에 충격을 받고 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확립과 피해 방지, 멘토링, 직업 개발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대학의 교수들이 재단의 행보에 참여하고 있다.

3. 내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간존중 또는 인류공영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예: 지속적인 기부 활동 등)을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보자.
4. 내가 단군신화의 환웅(또는 단군왕검)이라고 가정하고, 개천절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자.

# 05

## 한글날 / 국경일



항목	한글날	영역	국경일	시기	10월 9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국어 I (문법)올바른 국어 사용의 생활화</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의 우수성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말할 수 있다.</li> <li>한글을 사랑하는 자세를 지니고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날의 유래</li> <li>한글날의 의미</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a href="http://folkency.nfm.go.kr/main/main.jsp">http://folkency.nfm.go.kr/main/main.jsp</a>)</li> <li>브리태니커 사전</li> <li>우리글자 훈민정음(2012), 한문희 지음, 주니어김영사.</li> </ul>				

### ▶ 한글날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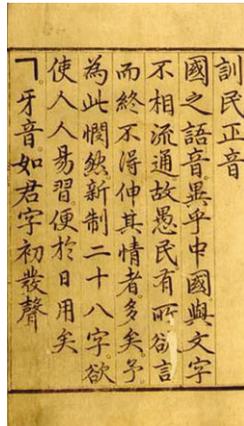
한글날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즉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10월 9일이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 ▶ 한글날의 의의

한글은 그 창제의 과정과 동기 등이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고, 다른 언어에 비하여 매우 과학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는 약 7,000 여 가지의 언어가 있으며, 이 가운데 90%가 1백년 이내에 소멸되리라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전망이다. 사라져가는 언어를 보전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한글날의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한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한글날의 시초를 정립한 시기가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라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한글날’이 갖는 의미는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 ▶ 훈민정음 해례본

이 책은 세종 28년(1446)에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왕의 명령으로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훈민정음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누어져 있다. 서문을 포함한 예의 부분은 무척 간략해 『세종실



▲ 예의 부분



▲ 해례 부분

록』과 『월인석보』 등에도 실려 있어 전해져 왔지만, 한글 창제 원리가 밝혀져 있는 해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예의와 해례가 모두 실려 있는 훈민정음 정본이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는데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이다. ‘해례’는 성삼문, 박팽년 등 세종을 보필하며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던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로 시작되는 문장은 ‘예의’의 서문에 해당하는 한문을 우리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우리말로 바꾸어 풀이한 『훈민정음 언해본』도 별도로 존재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62년 국보 제 70호로 지정되었다.



# 학생 활동지.1-1 한글지수 퀴즈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아래에 적힌 낱말들을 예시처럼 문법에 맞다고 생각하면 ○표시를, 틀린다고 생각하면 ×표시를 한 다음 문법에 맞는 바른 낱말을 적어보세요.(제한시간 20분) / 예시) 머리말 (○), 머릿말(×)

## 맞춤법 O, X 퀴즈

낱말	1	낱말	2	낱말	3
	정오표시(O,X)		정오표시(O,X)		정오표시(O,X)
뚝배기		몇일		성갈	
위쪽		네 자(단위)		콧배기	
곶배기		역전 앞		솔직히	
틈틈히		괴발개발		깨끗히	
따뜻이		자장면		헛되이	
기꺼히		윗이		귀때기	
오뚜기		이튿날		분명이	
마구간		팔꿈치		꼼꼼히	
강남콩		아멸차다		장난꾼	
미숫가루		무릅쓰다		오유월	
호도과자		우뢰		판자때기	
바램		짹짹하다		십월	
쌍둥이		배불뚝이		열심히	
귀염둥이		불삼		마추다	
사둔		선부르다		이맛배기	
미루나무		암개		기필코	
자선남비		홀쭉기		인박	
지렁이		심부름꾼		수탉	
소고기		겸언적다		뒤처기다	



### 학생 활동지.1-2

## 한글지수 퀴즈(정답)

### 맞춤법 O, X 퀴즈(정답)

낱말	1	낱말	2	낱말	3
	정오표시(O,X)		정오표시(O,X)		정오표시(O,X)
뚝배기	○	몇일	×며칠	성갈	×성갈
위쪽	○	네 재(단위)	×넉 자	כות베기	×코빼기
곰배기	×곰빼기	역전 앞	×역전 역 앞	솔직히	○
틈틈히	×틈틈이	괴발개발	○	깨끗히	×깨끗이
따뜻이	○	자장면	○	헛되이	○
기꺼히	×기꺼이	윗이	×윗니	귀때기	○
오뚜기	×오뚝이	이튿날	○	분명이	×분명히
마구간	×마구간	팔꿈치	○	꼼꼼히	○
강남콩	×강낭콩	야멸차다	×야멸치다	장난꾼	○
미숫가루	○	무름쓰다	○	오유월	×오뉴월
호도과자	×호두과자	우뢰	×우레	판자때기	○
바람	×바람	짹짹하다	×짹짹하다	십월	×시월
쌍둥이	○	배불뚝이	○	열심히	○
귀염둥이	○	불삽	×부삽	마추다	×맞추다
사둔	×사돈	선부르다	○	이맛배기	×이마빼기
미루나무	○	암개	×암개	기필코	○
자선남비	×자선냄비	홀쭉기	×홀쭉이	안팎	×안팍
지렁이	○	심부름꾼	○	수탈	○
소고기	○ (쇠고기(○))	겸연적다	×겸연쩍다	뒤쳐기다	×뒤척이다

1. 자신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이 한글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2.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발표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한글의 장점

➡ 다음은 한글날과 관련된 뉴스 내용이다. 내용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세계 언어학자 한글, 최고의 알파벳……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앵커] 전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면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과학적이고 음성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자라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학 강의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기본적인 단어는 쓰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글은 쓰기 쉽고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과학적입니다. 음운 체계를 과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새라, UCLA 학생)

최근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급반에서 고급반까지 이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강의는 10여 개. 일부 강의는 정원 초과로 대기하는 학생들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K-POP이 좋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배워서 말도 좀 하고 싶고…… (크리스, UCLA 학생)

한글 배우기 바람은 캠퍼스 안에서만 부는 게 아닙니다. 한글날을 맞아 LA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한글을 배우는 다양한 수강생들이 대거 참가해 수준 높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인터뷰] 저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엘리샤, 세종학당 수강생)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우수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글은 세계의 그 어떤 언어들보다 가장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음운 체계를 표현한 언어입니다.(티모시 탱거리니, UCLA 교수)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한글이 정작 한국인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상황. 한국어의 토대인 한글이 전 세계인의 언어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한국인들 스스로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출처】 YTN뉴스, 2013. 10. 09

1. 한글의 장점이 무엇인지, 다른 언어(영어 및 기타 외국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점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2. 한글이 자랑스러웠던 때가 언제인지 그 경험을 말해 보자.(경험이 없다면 신문 기사를 참고로 말해 본다.)
3. 밑줄 친 ‘한국인에게 외면 받고 있는 한글’의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말해 보자.



### 학생 활동지.3

## 한글 사랑과 홍보 방법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글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세종대로 '한글가온길'이 SBS TV 프로그램 방송 후 가족, 연인들의 새로운 나들이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촬영 후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촬영 문의가 밀려들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으며, 연인들끼리도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한글가온길'이란 한글의 탄생지인 경복궁, 한글을 지켜온 한글학회와 주시경 선생의 집터가 있는 곳으로 한글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한글의 중심지이다. 구체적으로 경복궁역에서 금호아트홀에 이르는 새문안로3길과 세종문화회관 뒤편으로 난 세종대로23길을 이르는 말이다.('가온'은 '중심', '가운데'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출처】Tv리포트 2014. 03. 15

1. 윗글에 제시된 한글 홍보 및 한글 사랑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2. 한글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예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 사전 제작, 한글박물관 건설 등
3.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순수한 국어를 살려 쓰는 민족은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망한다."라고 했다. 한글을 제대로 사용해야 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 이유를 피히테의 말과 관련하여 서술해 보자.

# 목 표 지 도 서



각종 기념일 등 이해교육 지도서



# 01

## 설날 / 명절

항목	설날	영역	명절	시기	1월 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 (3) 문화와 사회</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날의 기원과 의미를 말할 수 있다.</li> <li>• 설날에 이루어지는 민속놀이를 할 수 있다.</li> <li>•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날의 의미와 어원</li> <li>• 설날의 유래</li> <li>• 설날의 시절음식</li> <li>• 설날의 풍속</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www.theme.archives.go.kr">www.theme.archives.go.kr</a>)</li> <li>•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세시풍속(총괄편). 금강인쇄사.</li> <li>•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a href="http://www.folkency.nfm.go.kr">www.folkency.nfm.go.kr</a>)</li> <li>• 위키백과 사전(<a href="http://www.ko.wikipedia.org">www.ko.wikipedia.org</a>)</li> <li>• 이광렬(2005). 우리나라 세시풍속. 청연.</li> </ul>				

### ▶ 설날의 의미와 어원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孝)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설날은 세속의 시간에서 성스러운 시간으로 옮겨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평소의 이기적인 세속 생활을 떠나서 조상과 함께하며 정신적인 유대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이 바로 설날인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설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국민 대부분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같은 날 아침 차례를 올리고, 새 옷을 주로 입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설날의 의미, 즉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명절 이상의 기능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우선, 설날을 ‘낫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

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설날은 묵은 해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해에 통합되는 전이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날은 ‘선날’ 즉 개시(開始)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連音化)되어 ‘설날’로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날을 ‘삼가다[謹慎]’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삼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일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다.

### ▶ 설날의 유래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큰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설날을 명절로 삼으려면 우선 역법(曆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날의 유래는 역법의 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우리 나름대로의 역법을 가지고 있었음은 중국인들도 인정하고 있었다. 『삼국지(三國志)』에 이미 부여족이 역법을 사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신라 문무왕 때에는 중국에서 역술을 익혀와 조력(造曆)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단순히 중국 역법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민속력이나 자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신라의 독자적인 명절이라 할 수 있는 가배(嘉俳)나 수릿날의 풍속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 민족이 고유한 역법을 가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 전래의 태양태음력이나 간지법(干支法) 이외에 우리 고유의 역법 제정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설날은 적어도 6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태양태음력을 받아들인 이후 태양력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역사 기록에서도 설날의 유래를 추측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제36대 혜공왕(재위 765

~780) 때에 오묘(五廟: 태종왕, 문무왕, 미추왕, 해공왕의 조부와 부)를 제정하고 1년에 여섯 번씩 성대하고도 정갈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데, 정월 2일과 정월 5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설날의 풍속이 형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설과 정월 대보름·삼짇날·팔관회·한식·단오·추석·중구·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설날과 한식·단오·추석을 4대 명절이라 하였으니 이미 이 시대에는 설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 ▶ 설날의 시절음식

설날의 음식을 통틀어 ‘설음식’ 또는 ‘세찬(歲饌)’이라 하고 설날의 술을 ‘설술[歲酒]’이라고 한다. 설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떡국이다. 떡국은 흰쌀을 뺏아서 가는 체로 치고 그 쌀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찐 후 안반에 쏟아 놓고 떡메로 수없이 쳐서 차지게 한 다음, 한 덩어리씩 떼어가지고 손으로 비벼 굵다란 양초 가락만큼씩 길게 만든다. 이것을 타원형으로 얇게 썰어서 장국에 넣어 끓이고, 쇠고기·펄고기로 꾸미를 하여 후춧가루를 뿌린다. 이것은 정월 초하루 제사 때에 제물(祭物)로도 차리고 손님에게도 낸다. 설날의 떡국은 지금은 쇠고기나 닭고기로도 끓이지만 옛날에는 펄고기로 많이 끓였다.

설날에 흰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고대의 태양 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날에는 찬 술을 마시는데, 『경도잡지(京都雜記)』에는 “술을 데우지 않는 것은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 설날의 풍속

**설날 차례** |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이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방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 뒤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제사상에는 설음식[歲饌]을 갖추어놓는다. 조상의 신주(神主), 곧 지방(紙榜)은 병풍에 붙이거나 위패일 경우에는 제사상 위에 세워 놓고 차례를 지낸다.

**세배** | 설날 차례를 마친 뒤 조부모·부모에게 절하고 새해 인사를 올리며, 가족끼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는 데, 이를 세배(歲拜)라 한다. 세배가 끝나면 차례를 지낸 설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하러 온 사람이 어른일 때에는 술과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관례이나, 아이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세뱃돈과 떡, 과일 등을 준다.

**설빔** |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데, 이 옷을 설빔[歲粧]이라고 한다. 이 설빔은 보통 대보름까지 입는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원일(元日)조에 따르면 남녀노소가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세비음(歲庇陰)[설빔]’이라 하였다 한다.

**덕담** | 덕담(德談)이란, 설날에 일가친척들과 친구 등을 만났을 때 “과세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아이 낳기를 빕니다.”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신분 또는 나이 차이에 따라 소원하는 일로 서로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

**복조리** | 설날 이른 아침 또는 선달 그믐날 밤 자정이 지나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서 만든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 두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복조리라고 한다. 전국에서 조리 장사가 조리를 팔려고 초하루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인가 골목을 돌아다닌다. 이러한 풍속은 조리가 쌀을 이는 기구이므로 그해의 행운을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생 활동지.1 설날 노래와 시

➡ 다음은 설날과 관련된 노래와 시이다. 이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까치 까치 설날 (작사작곡: 윤극영)

자료 01

- |   |   |
|---|---|
| 1)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br>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br>곱고 고운 멧기도 내가 들고<br>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 3) 우리집 뒤 뜰에는 널을 놓고서<br>상 들고 잣까고 호두까면서<br>언니하고 정답게 널을 뛰고<br>나는 나는 좋아요 참말 좋아요.    |
| 2)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저고리<br>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저고리<br>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br>우리들의 절반기 좋아하셔요.    | 4)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br>우리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br>이집 저집 웃놀이 널뛰는 소리<br>나는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

### 희망하는 기쁨 (홍수희 시인)

자료 02

침묵하는 / 겨울 산에 / 새 해가 떠오르는 건  
차디찬 / 바다 위에 / 새 해가 떠오르는 건  
하필이면 / 더 이상은 꽃이 피지 않을 때  
흰 눈 나풀거리는 동토(凍土)에  
이글이글 / 새 해가 떠오르는 건  
가장 어두운 좌절 깊숙이 / 희망을 심으라는 것  
지금 선 그 자리에서 / 숨어있는 평화를 찾으라는 것  
희망하는 기쁨, / 새해 첫날이 주는 선물입니다

1. '까치 까치 설날' 노래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설날 풍습을 찾아 발표해 보자.
2. 자료 1의 가사를 현대 사회에 맞게 개사해 보자.
3. 자료 2의 시를 감상하고, 자신에게 새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보자.



## 학생 활동지.2 설날의 풍속

➡ 다음 내용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설 차례

### 자료 01

설날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설 차례' 라고 한다. 명칭도 다양하여 '차사', '제사' 라고도 하며 제물과 관련하여 '떡국차례' 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차례를 경상남도 김해에서는 '정초 제사', 강원도 태백에서는 '저세' 라고 부른다.

차례는 설날 새벽이나 아침 일찍 지낸다. 일부지역에서는 음력 설달 그믐날 자시(음력 12월의 마지막 날 11시~12시)에 지내며, 편의상 그믐날 저녁이나 밤에 지내는 지역도 있다. 설날 새벽에 일찍 지내는 경우는 아침 햇살이 문살에 비치기 전에 지내야 한다. '다른 집에서 아침에 개에게 밥을 주는 전에 지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차례를 일찍 지내야 함을 강조한다.

【출처】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세시풍속(총괄편). 금강인쇄사.

### 떡국

### 자료 02

설날에 떡국을 먹는 가장 큰 의미는 차례 음식, 절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 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매우 오래 됐으며 상고시대 이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 음식에서 유래된 것' 이라 하였고,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여 떡국을 '첨세병(添歲餅)'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설날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가래떡으로, 가래떡은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가래떡을 길고 가늘게 만들어 먹음으로써 식구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떡을 동전처럼 잘게 썰면서 재물운을 소망하는 것이다.

1. 자료 1, 2를 읽고 '설 차례' 를 지내는 이유와 떡국을 먹는 이유를 추론해 보자.
2. '설 차례' 를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설 차례' 를 지냄으로써 생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3. 떡국에는 '만두떡국', '조랭이떡국', '미역생떡국', '다슬기떡국' 등이 있다. 지역별로 발달한 떡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그 떡국이 발달한 이유를 탐색해 보자.
4. 우리 집의 설날 풍경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보자. 친구 집과 우리 집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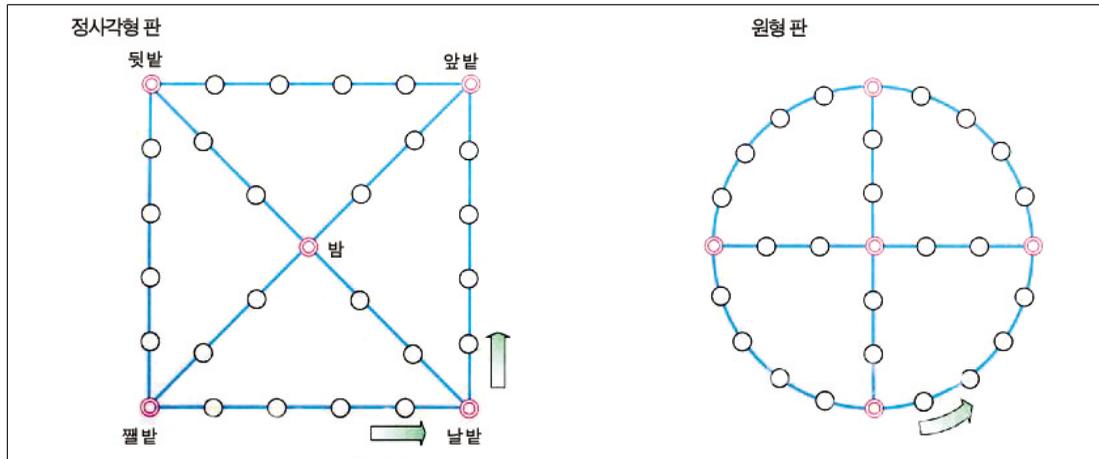


### 학생 활동지.3

## 윷놀이를 해 봅시다

➡ 다음은 윷놀이 규칙이다. 이 규칙에 맞추어 윷놀이를 해 보자.

윷놀이 말판의 모양



윷놀이 말

돌, 바둑알, 동전 등으로 한다.  
보통 네 개의 말을 쓴다.

말을 움직이는 윷의 등급

	상징하는 동물	곳수
도	돼지	1칸 간다
개	개	2칸 간다
걸	양(염소)	3칸 간다
윷	소	4칸 간다
모	말	5칸 간다

윷놀이 순서

1. 윷, 말판, 말을 준비한다.
2. 두 사람 이상이 편을 가른다.
3. 윷가락 두 개를 던져 순서를 정한다.
4. 윷을 던져 나온 도, 개, 걸, 윷, 모 중 하나에 따라 말을 말발에 놓는다.
5. 먼저 말 네 개(네 동)가 말발을 돌아 출발점을 빠져 나오는 편이 이긴다.

윷놀이 규칙

1. 윷이나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진다.
2. 앞서 가는 말을 잡을 수 있으며, 상대편 말을 잡으면 한 번 더 던진다.
3. 윷이나 모로 잡을 땐 두 번 던지지 않는다. 단, 윷이나 모가 나왔으므로 한 번 더 던진다.
4. 말은 두 동, 세 동, 네 동으로 동무하여 함께 갈 수 있다.
5. 윷을 위로 던지지 않고 굴리면 규칙에 어긋나며, 일정한 곳(예: 멍석, 돛자리)을 벗어나면 무효이다.
6. 윷가락 하나에 표시를 하여 이것이 나오면 말을 물러나게 하는 등의 재미를 곁들일 수 있다.

# 02

## 한식 / 명절



항목	한식	영역	명절	시기	동지에서 105일째 날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도덕, 자연 ·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환경친화적인 삶</li> <li>• 중학교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생활과 윤리, 과학기술 · 환경 · 정보윤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li> <li>• 중학교 사회 [일반 사회]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고등학교 사회 · 문화 (3) 문화와 사회</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의 유래를 중국의 전설 속에서 찾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말할 수 있다.</li> <li>• 한식의 풍속을 그림과 한시 속에서 찾아 낼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의 유래</li> <li>• 한식의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li> <li>• 프랑스 기메박물관</li> <li>• 네이버 지식백과 - 기산풍속도 검색</li> </ul>				

### ▶ 한식의 유래

한식(寒食)은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다.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에 해당한다. 한식은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금연일(禁烟日), 숙식(熟食), 냉절(冷節)이라 고도 한다.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개자추전설 介子推傳說>이 전해진다. 중국 춘추시대에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망명 · 유랑하다가 진나라 문공(文公)이 되어 전날의 충신들을 포상했다. 이때 과거 문공이 굶주렸을 때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바쳤던 충신 개자추가 이 포상자들 중에 들지 못하자 개자추는 부끄럽게 여기고 산중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문공이 뒤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찾았으나 산중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불을 놓으면 나올 것이라는 생각

에서 불을 질렀다. 그러나 끝내 나오지 않고 홀어머니와 함께 서로 껴안고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 죽었다. 이에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날은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한식에는 금화(禁火)와 성묘의 풍습, 투란(鬪卵: 계란 위에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리는지를 겨루는 유희) 놀이가 있었으며, 소나기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날 나라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을 지내고 관공리들에게 공가(公暇)를 주어 성묘하도록 했다. 민간에서는 산소를 돌보고 제사를 지냈고, 농가에서는 이날 농작물의 씨를 뿌리기도 하며 농사 준비를 하였다.

### ▶한식의 의의

한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 명절이 아니다. 따라서 한식은 음력 2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음력 3월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2월 한식과 3월 한식을 구분하는 관념이 있다. 그래서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세월이 좋고 따뜻하다고 여기며, 3월에 한식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개사초(改莎草: 잔디를 새로 입힘)를 하지 않는다. 한식은 중요한 명절로 지켜져 내려왔는데, 왕실에서는 종묘 제향을 지냈고, 종묘에서 제외되었거나 후손이 없는 왕과 비빈 등에 대해서는 성묘를 했다. 또한 허물어진 능묘를 보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절사(節祀)라 하여 산소로 올라가 성묘를 대신 했다. 그 중에서도 한식과 추석이 가장 성하여 지금도 교외로 향하는 길에는 인적이 끊어지지 않고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고 있다.



## 학생 활동지.1 한식의 의미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개자추전설(介子推傳説)

자료 01

개자추전설(介子推傳説)이 전해진다.

중국 춘추시대에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망명·유랑하다가 진나라 문공(文公)이 되어 전날의 충신들을 포상했다. 이때 과거 문공이 굶주렸을 때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바쳤던 충신 개자추가 이 포상자들 중에 들지 못하자 개자추는 부끄럽게 여기고 산중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문공이 뒤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찾았으나 산중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불을 놓으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불을 질렀다. 그러나 끝내 나오지 않고 홀어머니와 함께 서로 껴안고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 죽었다. 이에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날은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1. '한식'을 한자로 찾아보고 그 뜻을 풀이해 보자.
2. 한식에 찬밥을 먹는 풍습을 '개자추 전설'과의 관련성을 이야기 해 보자.
3. 오늘날 한식날에는 '금화(禁火)'의 풍습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에 성묘객으로 교통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시조 속에 나타난 한식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시조

### 자료 01

祭罷原頭日已斜 紙錢飛處有鳴鴉

제사 끝난 들머리에 날은 벌써 저무는데 지전 뒤적이는 곳에 갈가마귀 우짖네.

山蹊寂寂人歸去 雨打棠梨一樹花

사람들은 돌아가고 산길은 적막한데 팔배나무 꽃잎을 빗줄기가 때린다.

- 권필(1569-1612), 한식(寒食)

### 시조

### 자료 02

杏花齊坼暮春晨

살구꽃 만발한 늦은 봄 다가왔으니

正是長安鬪卯辰

서울 거리에 투란할 시기로다

杯酒不知藏火日

술에 취해 금화일인 줄도 알지 못하니

醞醞猶遣暖加人

훈훈한 술기운 사람을 데워 주네

1.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계절적 배경이 언제인지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2. 두 시조의 공통점을 찾고, 제목을 붙여보자.
3. 오늘날 유지되고 있는 한식의 풍습을 찾아, 이를 묘사하는 시조를 작성해 보자.



### 학생 활동지.3

## 그림 속에 나타난 한식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프랑스 기메박물관의 기산 김준근의 '한식에 산소 보레가는 모양'의 풍속도	
	<p>기산의 그림에서 한식에 관한 내용은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품에 나타난다. 이 그림은 추석에 차례 지내러 가는 그림과 인물의 방향만 다르고 동일하다. 어린 아이한테 조상 송배를 가르치기 위해 데리고 가며, 뒤에 따르는 사대부집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정도이다.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성묘하러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자들이 미리 가서 차례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남자들은 별도로 가기 때문에 이 그림에는 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p>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기산풍속도 검색

1. 그림의 제목이 '한식에 산소 보레가는 모양'이다. 그림 속에서 제목의 단서를 찾아 자유롭게 써 보자.
  
2. 그림 속의 세 사람과 한식의 연관성, 어린 아이가 그림에 그려진 이유를 추론하여 적어보자.



# 03

## 단오 / 명절

항목	단오	영역	명절	시기	음력 5월 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도덕,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환경친화적인 삶</li> <li>• 윤리와 사상, 과학기술·환경·정보 윤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li> <li>• 중학교 사회 [일반 사회]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 (3) 문화와 사회</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오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li> <li>• 단오의 풍습을 알고, 현대 사회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자세를 지닌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오의 유래</li> <li>• 단오의 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오에 관한 Q &amp; A</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a href="http://kids.cha.go.kr/kids">http://kids.cha.go.kr/kids</a>)</li> <li>•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재구성</li> <li>• 전북도민일보, 2013. 06. 12</li> </ul>				

### ▶ 단오의 유래

단오[端午]의 '단(端)' 자는 첫번째를 뜻하고, '오(午)' 는 다섯의 뜻으로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 를 뜻한다. 중오는 오(五)의 수가 겹치는 5월 5일을 뜻하는 것으로 양기가 왕성한 날로 풀이된다.(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홀수[奇數]를 '양(陽)의 수' 라 하고, 짝수[偶數]를 '음(陰)의 수' 라 하여 '양의 수' 를 길수(吉數)로 여겼다.) 또는 수릿날[戌衣日·水瀨日],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유래는 중국 초나라 회왕(懷王)때에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굴원(屈原)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하여 멩라수[汨羅水]에 투신자살하였는데, 그날이 5월 5일이었다. 그 후 해마다 굴원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단오가 되었다고 한다.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이 있다. 또한 단오가 될 무렵이면 무더위가 시

작될 때이니만큼 부채를 선물하기도 한다. 또한 단오에는 수레바퀴(수리)모양의 떡인 수리떡을 먹는 풍습이 있다.

### ▶ 단오의 의의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홀수가 두 번 겹치는 때로 햇볕이 가장 강하고 길한 날로 여겨왔다. 이에 따라 단오에는 풍년을 기원하고, 힘든 모내기를 마친 것을 기뻐하며 마음껏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무더위와 장마를 대비하여 부채를 선물하거나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어 조상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날이다. 한편 지역민들의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의례를 행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강원도 강릉지방의 강릉단오굿, 경남 영산의 문호장굿 등이 있다.

### ▶ 단오에 관한 Q & A

#### 1. 단오는 왜 수릿날인가요?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5월조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날 썩떡을 해 먹는데, 썩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란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또 수리란 고(高)·상(上)·신(神) 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고어(古語)인데,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불리워졌다고도 하며, 일설에 의하면 단오의 유래와 더불어 중국의 초(楚)나라 사람 굴원(屈原)이 수뢰(水瀨)에 빠져 죽었다 하여 수릿날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 2. 단오와 관련된 절기는 무엇이 있나요?

음력 오월(五月)이 되면 태양의 열기가 뜨거움을 더해 간다. 오월의 절기(節氣)로는 망종(芒種)과 하지(夏至)를 들 수 있다. 망종은 보리나 벼와 같이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을 거두거나 모를 내는 절기이며, 하지는 낮 시간이 가장 긴 절기를 말한다.

#### 3. 단오에는 무엇을 할까요?

##### 1) 단오장(端午粧) - 창포물에 머리 감기, 분을 개어 화장하기

창포뿌리를 잘라 비너로 만들어 머리에 꽂아 두통과 재액(災厄)을 막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를 더하게 하였다. 또 단오날 새벽 상추밭에 가서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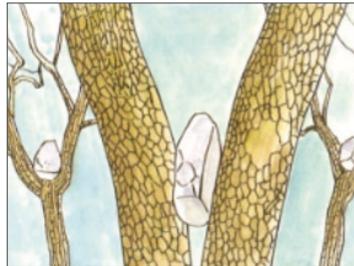
아 분을 개어 얼굴에 바르면 버짐이 피지 않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한다. 남자들은 단오날 창포뿌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이는 나쁜 질병과 기근을 막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단오장(端午粧)

### 2)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농가에서는 대추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는 습속이 있는데, 이를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 한다.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 3) 그네뛰기와 씨름

그네뛰기는 단오날 여성들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보면 한복을 차려 입은 부녀자들이 치마폭을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대표적인 남성들의 놀이로는 씨름대회가 있다. 씨름대회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관례로 황소를 상품으로 주는데, 경기방식은 요즘과 같이 토너먼트식이 아니라 도전자들을 모두 이겨 상대자가 없게 되면 우승을 하게 된다.

### 4) 무더위에 대비하는 약재와 부채선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5월조의 기록에 의하면 “궁중의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옥추단(玉樞丹)과 제호탕(醞醜湯)을 만들어 왕에게 진상하였다.”, “공조(工曹)에서는 단오선(端午扇)을 만들어 왕에게 진상하였다.”는 궁중풍속이 전한다. 제호탕은 한약재를 꿀에 섞어 달



무더위에 대비하는 부채선

인 약으로 더위가 심한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옥추단은 일종의 구급약으로 여름철 설사가 났을 때 물에 타서 마신다. 부채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도구로 단오 무렵이면 더위가 찾아오니, 이날 부채를 만들어 왕에게 진상한 것을 ‘단오선’이라고 하였다.



## 학생 활동지.1

# 단오화(畵) 그리기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다음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단오의 풍습을 모두 찾아 적어보고,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
2. 내가 알고 있는 단오의 풍습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여, 신윤복의 '단오풍정' 과 같은 한폭의 그림을 그려보자.





## 학생 활동지.2

# 단오와 관련된 속담 익히기

➔ 다음은 단오와 관련된 속담이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단오에 비 오면 농사 다 짓는다 / 오월 장마는 꺾다 해도 한다

자료 01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단오날 오는 비의 풍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상천(上天)이 지인(至仁)하사 유연(油然)히 작운(作雲)하니, 때 미쳐 오는 비를 뉘 능히 막을쏘냐. 처음에 부슬부슬 먼지를 적신 후에 받들어 오는 소리 패연(沛然)히 드리운다. … (중략) … 썰 때에 문에 나니 개울에 물 넘는다. 메 나리 화답하니 격양가(擊壤歌) 아니던가.”

###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자료 02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저자 홍석모(洪錫謨)가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익모초(益母草)’에서 “풀이름 익모라 어찌 그리 기이한고 단오날 캐어야 약효가 좋아 아들 낳는 데는 물론이고 차고 다니면 단진과 종옥에 뛰어난 효과(草名益母—何奇 重午日時采綠宜 不啻宜男爭紉佩 丹田種玉是良醫)”라고 하였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1. 우리나라 농경문화 또는 절기(계절적 특징)와 관련지어 속담을 뜻을 추론해 보자.

단오에 비 오면 농사 다 짓는다, 오월 장마는 꺾다 해도 한다.

[풀이]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단오 무렵에 눈물을 받아 두면 농사를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뜻으로 단오를 전후한 시기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이므로, 그때까지 눈물을 잘 모아 두어야 제때 모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오에 내리는 비를 저장해 두면 농사는 다 지어 놓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풀이] 양기(陽氣)를 받고 자란 풀들은 건강에 좋아 썩으로 떡(수리취떡)을 해 먹거나 창포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생겨났다. 즉,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인 오월 단오에는 어떤 풀이나 먹어도 좋다는 의미이다.



### 학생 활동지.3

## 단오의 계승 방법 모색하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시의 단오제 행사는 그 역사와 전통이 무색할 만큼 부실한 프로그램과 산만한 행사 구성을 선보이며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창포물에 머리감기와 창포 족욕체험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지만,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에도 체험 가능한 물통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창포 족욕체험의 경우 수량 부족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뜨거운 날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단오와는 관련 없는 형식적 체험 부스도 상당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의 단오제 행사는 대표 프로그램인 창포물 맛이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줄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축제 관람객 상당수가 장년층으로 이뤄져 젊은 층 유입에는 한계를 보였다라는 지적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20~30대 관람객이 대폭 늘어난 듯 했으나, 올해의 경우 다시금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며 실버축제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00일보, 2013.06.12

1. 위 글에 나타난 ○○시의 단오제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적어보자.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해 보자.
2. 요즘 사람들이 단오에 관심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오를 명절 또는 풍습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 04

## 추석/명절

항목	추석	영역	명절	시기	음력 8월 1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2)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 (3) 문화와 사회</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의 기원과 의미를 말할 수 있다.</li> <li>• 추석의 풍속과 놀이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우리나라의 전통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의 어원</li> <li>• 추석의 풍속과 놀이</li> <li>• 추석의 유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www.theme.archives.go.kr">www.theme.archives.go.kr</a>)</li> <li>•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세시풍속(총괄편). 금강인쇄사.</li> <li>• 위키백과 사전(<a href="http://www.ko.wikipedia.org">www.ko.wikipedia.org</a>)</li> <li>• 이광렬(2005). 우리나라 세시풍속. 청연.</li> <li>•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a href="http://www.folkency.nfm.go.kr">www.folkency.nfm.go.kr</a>)</li> </ul>				

### ▶ 추석의 어원

추석은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 한가위, 중추절(仲秋節) 또는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 한다. 한가위의 한은 ‘하다(大·正)’의 관형사형이고, 가위란 ‘가배(嘉俳)’를 의미한다. 이때 가배란 ‘가부·가뷔’의 음역(音譯)으로서 ‘가운데’란 뜻인데, 지금도 신라의 고토(故土)인 영남 지방에서는 ‘가운데’를 ‘가분데’라 하며, ‘가위’를 ‘가부’, ‘가윗날’을 ‘가붓날’이라고 한다. 또 8월 초하루에서 보름께까지 부는 바람을 “8월 가부새 바람 분다.”라고 한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가뷔·가부는 뒷날 가위로 속전(俗轉)된 것으로 알 수 있으니, ‘추위서’를 현재에도 ‘추버서’로 하는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가위란 8월 중에서도 정(正)가운데란 뜻이니, 정중심(正中心)을 우리가 ‘한가분데’ 또는 ‘한가운데’라고 하듯이 ‘한’은 제일(第一), 큰(大)의 뜻 이외에도 한(正)의 뜻이 있음도 알 수 있다.

한가위를 추석, 중추절(仲秋節·中秋節) 또는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 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즉 한자가 전래되어 한자 사용이 성행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중추(中秋)’니 ‘추중(秋中)’이니 하고, ‘칠석(七夕)’이니 ‘월석(月夕)’이니 하는 말들을 본받아 이 말들을 따서 합하여 중추(中秋)의 추(秋)와 월석(月夕)의 석(夕)을 따서 추석(秋夕)이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 ▶ 추석의 유래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다.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고대에 만월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시대에 이미 일 년 중에서 가장 달이 밝은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후에 와서 의식화(儀式化)되어 명절로 제정(制定)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 “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르니,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 “이때 진 편이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 추석의 풍속과 놀이

**별초와 성묘** | 추석에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 주는데 이를 별초라 한다. 옛날 조상의 묘를 풍수설에 의한 명당에 쓰기 위하여 몇 십 리 먼 곳에까지 가서 쓰는 수가 많았고, 또 묘를 쓴 다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묘가 집 근처가 아니라 먼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추석을 맞이하여서는 반드시 별초를 하는 것이 효성의 표시와 도리로 여겼다. 한가위 때에 성묘를 와서 별초를 안 했으면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불효의 자손을 두었거나 입자 없는 묘라 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차례** | 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宗家)에 모여 고조(高祖)까지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 지내는 절차가 설날과 다른 것은 흰떡국 대신 메[밥]를 쓰는 점이다. 고조 이상의 윗대는 10월에 시제라 해서 묘에서 제사를 지낸다.

**소놀이** | 추석날 차례를 마치고 난 뒤 알맞은 시간에 소놀이가 진행된다. 먼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상쇠의 선도에 따라 한바탕 신나게 풍물을 울리며 어우러져 놀다가 소놀이가 시작된다. 두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그 위에 명석을 뒤집어 씌우면 뒷사람은 큰 새끼줄로 꼬리를 달고, 앞사람은 막대기 두 개로 뿔을 만들어 소의 시늉을 한다. 소를 끌고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농집이나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구정물을 먹고 싶어 왔으니 달라’고 외치면 주인이 나와서 일행을 맞이한다. 소를 앞세우고 일행은 앞마당으로 들어가 농악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면 주인집에서는 술과 떡과 찬을 차려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 놀다가 다시 소를 끌고 다른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여러 집을 찾아가 해가 질 때까지 어울려 논다.

**원놀이 · 가마싸움** | 원놀이란 학동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재치 있는 사람을 원님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학동들은 백성이 되어 원님께 소장을 내어 그 판결을 받는 놀이인데, 오늘날의 대학에서 행해지는 모의재판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이때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원님은 사건을 잘 해결하지만 서투른 원님은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다. 장차 과거에 등과해서 벼슬을 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할 학동들의 놀이로서는 매우 적격이었다. 가마싸움도 학동들이 주가 되어

행하여졌다. 혼장이 없는 틈을 타서 가마를 만들어 이웃 마을 학동들과 또는 이웃 서당의 학동들끼리 대결을 하는 놀이이다. 가마를 끌고 넓은 마당에 나아가 달음질해서 가마끼리 부딪혀 부서지는 편이 지게 되는데 이긴 편에서 당년에 등과가 나온다고 한다.

**반보기** | 추석이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것을 반보기라 한다. 옛날에 시집간 여자들은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녀 사이에 중간지점을 정해서 서로 즐기는 음식을 장만하여 만나 한나절 동안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푸는 것이 반보기인 것이다. 또 한 마을의 여인들이 이웃 마을의 여인들과 경치 좋은 곳에 집단으로 모여 우정을 두터이 하며 하루를 즐기는 수도 있다. 이때에 각 마을의 소녀들도 단장하고 참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며느릿감을 선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올계심니** |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대문 위에 걸어 두는데 이것을 올계심니라 한다. 올계심니를 할 때에는 술과 반찬을 차려 이웃을 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수도 있다. 올계심니를 한 곡식은 다음해에 씨로 쓰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제사를 지낸 후 먹는다. 올계심니를 하는 것은 다음해에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기원의 뜻이다.

**밭고랑 기기** |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8월 14일 저녁에 아이들이 밭에 가서 밭가벗고 자기 연령 수대로 밭고랑을 깬다. 이때에 음식을 마련해서 밭둑에 놓고 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밭농사도 잘된다는 것이다.



# 학생 활동지.1 추석의 풍경

▶ 다음 시를 읽고 시 감상 노트를 써 보자.

달빛기도 - 한가위에(이해인)

자료 01

너도 나도 /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 둥근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 좀 더 둥글어지기를 /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 시 평론가가 되어

( )학년( ) ( )

이 시를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지은이는 이 시를 왜 지었을까?	
이 시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과 그 이유는?	
내가 만약 이 시를 바꾼다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가?	



## 학생 활동지.2

# 추석 풍경의 변화

▶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추석연휴 해외여행수요

### 자료 01

○○투어에 따르면 추석연휴를 한 달여 앞둔 현재, 올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1일 출발) 해외여행 수요는 2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9일 출발하는 여행수요가 41.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세 날짜(9월 28일, 30일, 10월 1일)가 각각 20% 내외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35.6%, 동남아 33.6%, 일본 14.5% 순으로 나타나 83.7%가 단거리 지역을 선택했으며, 28일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29일에는 태국과 중국 북경, 상해 지역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아세안 투데이, 2012, 8,30

### 명절 증후군

### 자료 02

명절 증후군은 대한민국에서 명절이 다가왔을 때 가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주부들이 겪는 현상이다. 실제 병은 아니며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라는 증상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만아들의 며느리거나, 같이 할 형제, 자매가 없는 집의 주부들이 음식 장만 및 설거지 등 뒤처리에서 평소보다 늘어나는 가사를 매년 겪기 때문에 발생한다.

【출처】 news 1, 2014, 01, 14(<http://news1.kr>)

1. 자료 1을 통해 명절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2. 자료 2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보고, 명절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발표해 보자.
3. 명절을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토의해 보자.



### 학생 활동지.3 차례상 차리기

▶ 자료 1, 2는 차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고 활동을 해보자.

#### 차례상 차리는 방법

#### 자료 01

- |                                   |                                 |
|-----------------------------------|---------------------------------|
| 1) 물고기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놓는다. | 6) 건한 음식은 왼쪽에, 습한 음식은 오른쪽에 놓는다. |
| 2) 남자는 제사상의 왼쪽에서 여자는 오른쪽에서 절을 한다. | 7)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는다.         |
| 3)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 8)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다.        |
| 4)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는다.      | 9) 반(밥)은 서쪽에, 갱(국)은 동쪽에 차린다.    |
| 5) 적과 전은 중앙에 위치한다.                | 10) 날것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차린다.     |

#### 사자성어

#### 자료 02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梨柿)  
좌포우혜(左脯右醢), 반서갱동(飯西羹東), 생동숙서(生東熟西), 건좌습우(乾左濕右)  
적전중앙(炙奠中央), 접동잔서(接東盞西), 남좌여우(男左女右), 어두일미(魚頭一味)

1. 자료 1의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를 자료 2에서 찾아보자.
2. 우리 집의 추석 차례상과 제사 지내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남의 제사에 감 뇌라, 배 뇌라 하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 2번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 01

## 식목일 / 국가기념일

항목	식목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영역 (5)자연재해와 인간생활 (11)자원의 개발과 이용 (12)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li> <li>• 고등학교 사회 (5)미래를 보는 창</li> <li>• 중학교 도덕 (4)-(가)환경친화적 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과학 (3)에너지와 환경</li> <li>• 초중등학교 창의체험활동: 자연보호활동</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목의 날 유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나무와 숲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생태친화적인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목의 날 유래와 의미</li> <li>• 숲의 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를 심는 방법</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민환(2005). "식목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li> <li>•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김계영 외 공역(2011). 『르몽드 환경아틀라스』. 한겨레출판.</li> <li>• 산림청 홈페이지(<a href="http://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a>)</li> <li>• 전영우(2005). 『숲과 문화』. 북스힐.</li> <li>• 진명숙(2010). "환경의 정치적 상징: 일본 유스하라정의 FSC 산림인증을 중심으로". 『ECO 14권 2호』.</li> </ul>				

### ▶ 식목의 날 유래와 의미

식목의 날은 '국민 식수에 의한 애립 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김민환, 2005). 4월 5일이 식목일로 지정된 이유는 1910년 4월 5일 순종이 친경제(親耕祭)를 거행할 때, 손수 밭을 갈고 직접 나무를 심었던 것에서 찾기도 한다. 해방 이후 미군 정청에 의해 이 날이 식목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식목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를 보자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나무와 숲이 가지는 의미가 각별하다는 뜻이다. 일제식민지 시절의 수탈, 6.25전쟁 시기 국토의 황폐화 과정을 통해 산림 자원은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산림 자원은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그 중요성이 급부상되었다. 이렇게 볼 때, 식목일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생존의 차원에서 고려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식목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

고 있다. 글로벌 구도에서의 생태친화적인 삶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산림자원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 ▶ 숲의 가치

숲은 인간의 삶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숲은 매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전영우, 2005: 47-52). 삼림은 무엇보다도 토양의 유실을 막아 준다. 숲의 파괴는 인류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다. 농업생산력의 극대화를 위한 벌채와 화전, 에너지 자원으로써 땔감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숲을 사라지게 했으며, 토양의 침식과 유실로 문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켰다. 동아시아의 황사현상은 중국 북서부 지역의 사막화에 기인하며, 이 지역의 토양 침식은 숲의 파괴에서 기원한다.

숲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리하여 지구 상의 온실 가스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 그런데, 지구적 규모에서 숲의 파괴는 이러한 적정성을 깨뜨린다. 인류에 의한 화석 연료 과다 사용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숲의 파괴도 가속화 추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인류 문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옛날에는 숲의 파괴가 국지적인 조건에서 문명에 악영향을 주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규모에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상태이다.

### ▶ 나무를 심는 방법

아래 그림은 나무를 심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올바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보자.

**CHECK 1**  
 - 묘목이 굽거나 뿌리가 구부러져 있다.  
 - 구멍이가 앞서서 뿌리가 구부러지고 뿌리가 밖으로 나온다.

**CHECK 2**  
 - 비탈진곳에 심을 때는 낮은 흙이 비탈지게 하지 않고 수평으로 한다.

**CHECK 3**  
 - 너무 깊거나 얇게 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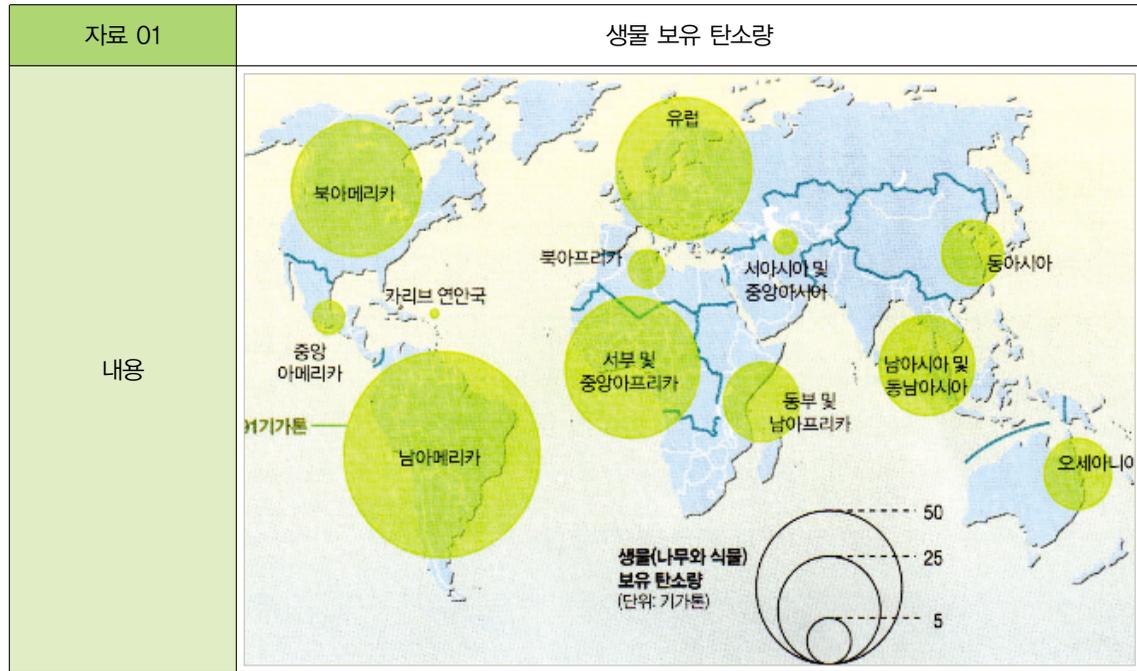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newkfsweb/>)



## 학생 활동지.1

#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

▶ 아래의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2011) p.38

1. 지도에서 생물 보유 탄소량이 많은 지역은 어디이며, 이 곳의 기후와 식생의 특징을 조사해 보자.
2. 생물 보유 탄소량이 많은 지역의 숲이 파괴된다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숲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숲이 기여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 물음에 답해 보자. (일본 시코쿠 고우치현 유스하라정의 지역 만들기 이야기)

유스하라정은 총면적이 23,651ha이며, 그 중 산림면적은 21,511ha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숲으로 둘러 싸여 있는 산림의 고장이다. 이 지역은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이다. 숲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선조들의 녹화사업 덕분에 울창한 숲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목재 가격의 하락과 산림 생산활동의 침체로 위기에 처한다. 경제성 있는 목재의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간벌 자금 확보 과제가 부각되었다. 주민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간벌 보조금의 확보를 도모하였다. 1999년 산 정상 부근 카르스트 지역에 풍차를 2기 설치하고 풍력 발전을 하여 전기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였다. 간벌 보조금은 주민들에게 투자되어 합리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간벌 작업의 부산물인 잔가지, 잎들, 밑동 등을 활용하였다. 펠릿이라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공장 및 일반 시설의 냉·온난방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FSC 산림인증'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SC 산림인증이란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 Council)가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을 생각하며 길러낸 숲과 나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유스하라정은 시만토강 등 하천의 산간 상류지역으로서 그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의 양이 풍부하고 계곡이 발달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물의 흐름을 변경하여 소규모 수력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의 모델화도 추구하고 있다. 유스하라정은 지금 현재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3할을 자연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지역의 전력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진명숙(2010) 부분 인용

1. 위 지역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이며,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 위 지역사회에 연결된 국제협력 및 단체들의 성격과 역할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

# 02

## 보건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보건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7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운동과 건강생활, 건강 및 건강관리의 개념</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 날의 중요성을 건강과 질병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li> <li>질병 예방을 위해 청결을 습관화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li> <li>질병 예방과 보건상태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활동에 관심을 지니고 참여하는 자세를 지닌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 날의 유래</li> <li>보건의 날의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li> <li>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재구성</li> <li>건강길라잡이(<a href="http://www.hp.go.kr">http://www.hp.go.kr</a>)/질병과사고 - 응급진료</li> <li>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a href="http://www.handwashing.or.kr/tmpl/?main_cd=1&amp;sub_cd1=1">http://www.handwashing.or.kr/tmpl/?main_cd=1&amp;sub_cd1=1</a>)</li> <li>메디파나, 2014. 02. 26.(<a href="http://medipana.com/news">http://medipana.com/news</a>)</li> </ul>				

### ▶ 보건의 날의 유래

국민의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1973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4월 7일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 관련 분야의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유공자를 포상한다. 한국전쟁 이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기념일 중에는 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구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기념일이 특히 많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기념일에는 나병의 날(1월 마지막 일요일, 프랑스 자선단체가 날짜를 정함), 세계보건일(4월 7일, 세계보건기구 현장 비준일), 세계적십자의 날(5월 8일, 적십자 탄생의 주역인 앙리 뒤낭의 생일), 국제간호원의 날(5월 12일, 나이팅게일의 생일), 구강의 날(6월 9일, 6살에 9개의 영구치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6월 9일로 정함), 귀의 날(9월 9일, 귀의 모양이 9자와 비슷해서 9가 두 개 겹치는 9월 9일을 택함), 약(藥)의 날(10월 10일, 약사법이 국회에 상정된 날), 눈의 날(11월 1일, 코를 중심으로 눈이 양쪽에 있다는 의미에서 1이 세 개 겹치는 11월 1일을 택함)이 있었는데, 이 국가기념일들이 19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될 때 ‘보건의 날’로 통합되었다. 4월 7일이라는 날짜가 선택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이 1948년 4월 7일에 비준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이다.

【출처】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 ▶ 보건의 날의 의의

한국전쟁 이후 보건 의료 체계의 확립에는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보건소 중심의 근대화된 전국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구비와 보건소의 직접적인 활동이 다양한 보건 관련 국가기념일 행사와 연관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다 1973년에 다양한 보건 관련 국가기념일이 ‘보건의 날’로 통합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근대적 보건의료 체계의 틀이 대체로 확립되어 초창기와 같은 적극적인 캠페인을 수행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출처】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재구성



# 학생 활동지.1-1 건강 상식 퀴즈

➡ 다음 질문에 친구들과 함께 답을 해 보고, 정답을 확인해 보자.

### 1. 칼이나 종이에 벤 상처는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소독으로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처가 아프다거나 주위가 빨개지거나 화끈해지는 느낌이 들 때에는 세균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세균 감염에 의한 영향은 국소에만 한정되지 않고 파상풍이나 패혈증(전신 감염증)같이 몸 전체로 퍼져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파상풍균은 상처 크기와는 관계없고 벤 상처를 통해서도 침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채기 정도라면 연고를 바른 가제를 대면, 자극에 의한 통증이 완화되고 붓대를 교환할 때에도 상처에 가제가 들러붙지 않아서 좋지만 일반적으로 깊은 상처에 연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벤 상처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오염을 막는다	상처가 오염되었다면 수돗물로 씻어 내린다.
2) 지혈시킨다	소독한 가제로 압박하여 지혈시킨다.
3) 소독한다	상처 부위를 소독한다.
4) 붓대를 감는다	소독한 가제를 대고 붓대를 감는다.

### 2. 코피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의 양쪽을 나누는 비중격에 풍부하게 있는 퍼져있는 혈관이 터져서 코피가 나게 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이 혈관 손상으로 코피가 나는 경우 쉽게 지혈이 되기 때문에 코피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출혈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질산은 용액이나 전기로 지져주는 처치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 동안은 코피가 안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다시 코를 만지면 코피가 나게 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다.

- 1) 코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렇게 하면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가면서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히지 말고 바로 앉는 자세를 취하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합니다.
- 2) 코의 앞 쪽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5~10분 정도 압박을 합니다.
- 3) 코 위에 찬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 4) 지혈이 된 후에는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합니다.



## 학생 활동지.1-2 건강 상식 퀴즈

### 3.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집안의 온도 및 습도 조절	열이 나면 오한이 생겨 춥다고 옷이나 담요로 싸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열이 발산되지 않아서 오히려 열이 더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덥게 싸주지 말고 방의 온도를 20℃ 정도로 서늘하게 해주고 습도를 낮추고 방안의 공기를 충분히 환기시키는 것이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열이 난다고 옷을 모두 벗겨 버리면 피부의 혈관이 수축이 되어서 피부를 만져 보면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는 열이 내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몸 밖으로 열이 발산되지 못해서 조금 있으면 다시 더 오르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땀이 나와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이 날 때는 통풍이 잘되는 옷을 조금 헐렁하게 입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충분한 수분 공급	열이 높으면 신체 내의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탈수현상이 생길 수 있다.
3) 미온수 마사지	거즈나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피부에 골고루 문질러 주면 열을 발산시켜 열이 내려가게 되고, 이 때 알코올을 섞은 물을 이용해 문질러 주면 더 효과적이다. '더운물'을 쓰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체온보다 높을 경우 전도열이 환자의 몸 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4) 해열제	해열제를 먹은 후에 금방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다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곤란하다. 해열제를 먹었다고 곧 열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열이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열제는 4~6시간 간격을 유지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4. 눈에 산이나 염기성 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생리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하며, 산이 들어갔다고 염기로, 또는 염기가 들어갔다고 산으로 중화시켜 보려는 것은 절대 금지이다. 특히, 염기성 화학물질은 침투가 빠르므로 신속히 세척을 한 후 안과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출처】 건강길라잡이. <http://www.hp.go.kr/질병과사고-응급진료>

### 5. 나의 응급처치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검색 사이트를 찾아 보자.



## 학생 활동지.2 손씻기의 습관화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손씻기 365란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한 **3** 가지 약속! ■ 자주 씻어요 ■ 올바르게 씻어요 ■ 깨끗하게 씻어요  
올바른 손씻기 **6** 단계! **5** 늘부터 실천하세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손씻기는 언제 필요할까요?

대·소변을 본 후, 외출에서 돌아온 직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렸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만진 후, 음식을 먹거나 요리하기 전, 특히 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난 상처에는 엄청난 수의 균,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손에 상처 또는 붉은 염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도 기저귀를 간 후, 콘택트렌즈를 끼거나 빼기 전, 책이나 컴퓨터를 만진 후 등 가능한 손은 자주 씻도록 합니다.

【출처】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http://www.handwashing.or.kr/tmpl/?main\\_cd=1&sub\\_cd1=1](http://www.handwashing.or.kr/tmpl/?main_cd=1&sub_cd1=1))

1. 건강을 위한 손씻기의 올바른 방법을 정리해 보자.
2.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친구들 간에 손씻기 릴레이를 해 보자.(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경우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홈페이지-손씻기 릴레이'를 실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학급 전체 친구들 간에 롤링페이퍼를 돌리거나 순번을 정하여 발표하며 릴레이를 실시한다.)



### 학생 활동지.3

## 아프리카 보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국경없는의사회, 기니 아동 40만 명에 홍역 예방접종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1월 14일 기니 정부가 창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홍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에 착수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홍역은 이미 의심 환자 1,105명, 확진 환자 68명이 보고되며 급속하게 확산되며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기니 수도 코나크리(Conakry)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책임자 코린 베나제크(Corinne Benazeck)는 “홍역은 전염성이 가장 강한 질병이며 마치 들불처럼 번진다. 또한 홍역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감염되고 갖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며 “2009년 같은 홍역 대재앙을 피하려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선진국에서는 홍역이 대단하지 않은 병이지만, 홍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니에서는 홍역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기니 보건 당국과 함께 코나크리에 인접한 마탐(Matam), 마토토(Matoto), 라토마(Ratoma) 등지에 32개 팀을 파견했다. 지역 주민 센터, 개인 집, 공공장소 등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과 전략적으로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생후 6개월에서 10세 미만 아동 약 39만 4,000명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국경없는의사회와 기니 보건 당국 직원 400여 명이 대규모 물자 및 운송 계획을 동원하는 긴급 활동을 3주 동안 진행하며, 예방 접종은 무료로 진행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홍역 유행 기간에 홍역에 걸린 50여 명 아동이 병세가 심각해져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자칫 목숨을 잃거나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홍역에 감염된 아동을 치료하는 홍역 전담 의료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생후 9개월 유아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기니전체에서 예방접종과 완벽한 홍역 예방 조치를 받은 아동은 약 37%에 불과하다.

【출처】 메디파나(<http://medipana.com/news>), 2014. 02. 26.

1. 기니와 같은 아프리카의 보건 상태는 어떠하며, 윗글에 나타난 보건 상태를 개선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자.
2. 윗글에 나타난 방법 이외에 아프리카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03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 국가기념일

항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13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li> <li>• 중학교 사회[역사]〈근대이후〉 (2) 민족운동의 전개</li> <li>• 고등학교 한국사 (5)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li> <li>•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민족 독립을 위해 애쓰신 조상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의 유래와 의의</li> <l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발전 과정</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처(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계기교육 자료집.</li> <li>•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해제(<a href="http://db.history.go.kr">http://db.history.go.kr</a>)</li> <li>• 김희곤(2004).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li> <li>• 도산 온라인 기념관(<a href="http://www.ahnchangho.or.kr">www.ahnchangho.or.kr</a>)</li> <li>• 변태섭(1996). 한국사 통론. 삼영사.</li> <li>• 위키백과 사전(<a href="http://ko.wikipedia.org/">http://ko.wikipedia.org/</a>)</li> </ul>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의 유래와 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이다. 1919년 4월 13일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세운 나라는 민국(民國)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부가 탄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통해 단순히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국가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라는 한계로 인하여 중국 전역을 떠돌면서도 27년간 정부를 유지한 채 우리의 주권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운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국 제헌헌법과 오늘날 헌법 전문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헌헌법(1948년)**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기미삼일운동(己未三一運動)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여 세계(世界)에 선포(宣布)한 위대(偉大)한 독립정신(獨立精神)을 계승(繼承)하여  
... (후략) ...

**대한민국 헌법 전문(1987)**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후략)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발전 과정**

3·1운동은 한민족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이 실패하자 우리의 정부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독립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민족의 여망에 부응하여 각지에서 정부수립 운동이 전개되었다. 먼저 연해주(블라디보스톡)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9년 2월에 이미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국민의회가 성립되어 있었고,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때 국내에서도 전국 13도의 대표가 서울에 모여 한성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런데 보다 강력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일원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하여 결국 연해주·상하이·한성에서 각각 수립되어 있던 3개의 임시정부가 한성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 학생 활동지.1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 ➡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의 세부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자.

활동 개요	세부 활동 내용
독립 운동을 위한 비밀 연락망(조직망) 결성함	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를 모두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고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 체계였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밀 조직망을 통하여 임시정부와 연락하거나 독립 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고, 애국 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도 전달할 수 있었다.
외교 활동 전개해 우리나라의 대표 역할을 함	
교육·문화 운동 전개하여 독립 의식을 고취시킴	
광복군 창설 등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함	



## 학생 활동지.2

# 김구 선생님의 태극기

▶ 다음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김구 선생님의 태극기



이 태극기는 김구 선생님이 광복군에 대한 동포들의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인 이해련 여사에게 보낸 태극기이다. 이 태극기의 오른쪽에 있는 글귀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나라 잃은 설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과 힘 그리고 재물을 광복군을 위해 모아,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 광복을 원성하자”라는 말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처(2009).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계기교육자료집

1. 위에 제시된 태극기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를 비교해 보고, 다른 점을 나열해 보자.
2. 여러분이 동포들에게 군자금 지원을 위한 부탁의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쓸 것인지 김구 선생님의 글을 참조하여 적어 보자.



### 학생 활동지.3-1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 내용을 보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자료 01	독립신문
내용	

자료 02	창간호 발간사 내용 중 일부
내용	<p>문명인의 생활에 언론기관이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되어 광복의 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 국민이 한마음 한 몸으로 굳세고 일치된 대단결을 만드는 것은 돈보다도 병력보다도 광복을 위한 기초이고 생명과 다름없으니 이를 얻으면 성공할 것이고 얻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p> <p>그러면 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p> <p>건전한 언론 기관은 뜻이 같은 주장을 복돋우고 뜻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 서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간에 바로 서서 서로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다. 즉 독립사상을 높이고 민심을 통일하는 것이 이 신문의 첫 번째 사명이다.</p> <p>외국 신문이 1,100종이 있다 한들 그들은 자기 문제에 골몰하여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 할 여유가 없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독립사상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이 외국인에게뿐 아니라 국민들 중에까지 전해지지 못하거나 우리의 사상과 활동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큰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의 사정과 사상은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한다. 이것이 본 신문의 두 번째 사명이다.</p> <p>세 번째 사명은 힘 있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독하고 격려하여 국민의 사상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p> <p>네 번째 사명은 새로운 학술과 사상을 소개하는 것이다.</p> <p>다섯 번째 사명은 국사(國史)와 국민성을 복돋우고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다.</p>



## 학생 활동지.3-2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1. 자료 2를 보고 독립신문의 사명을 예시와 같이 정리해 보자

- ①
- ②
- ③
- ④ 새로운 학술과 사상 소개
- ⑤ 국사와 국민성 고취

2. 다음에 제시된 사건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독립신문에 실을 기사를 만들어 보자.

- ① 윤봉길 의사 의거
- ② 이봉창 의사 의거
- ③ 한국 광복군 창설
-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이전
- ⑤ 대일선전 포고

※ 기사 작성 요령

- ①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한다.
- ② 완결된 기사 형태로 작성한다.
- ③ 기사의 제목을 제시한다.
- ④ 인터뷰, 사진, 만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학생 활동지.3-3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 독립신문 예시

# 독립신문

1932년 1월 8일

## 이봉창,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다!

대한민국의 애국지사 이봉창 선생이 일본 도쿄에서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궁성으로 들어가던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져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봉창 선생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피지배민족이 정복 민족에 대한 정당한 저항 행위로 인식하고, 그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일본에 저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과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더욱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000 기자.



# 04

## 4·19혁명 기념일 / 국가기념일

항목	4·19혁명 기념일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19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5) 정치과정과 시민참여</li> <li>• 중학교 사회[역사-근대이후] (3) 대한민국의 발전</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      • 고등학교 법과정치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li> <li>• 고등학교 한국사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혁명의 유래와 의미를 말할 수 있다.</li> <li>• 4·19혁명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li> <li>•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실천 자세를 갖춘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혁명 기념일의 유래와 의미      • 4·19혁명의 전개과정</li> <li>• 4·19혁명의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a>)</li> <li>• 국가보훈처(2010), 4·19혁명 50주년 계기교육자료, 책과함께.</li> <li>• 국립특수교육원(2007), 중학교 통합교육위한 교수-학습자료, 국립특수교육원.</li> </ul>				

### ▶ 4·19혁명 기념일의 유래와 의미

4·19혁명 기념일은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4·19혁명의 의의

4·19혁명은 3·15부정 선거에 대항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단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패를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른 독재 정권에 대한 온 국민

민의 향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4·19혁명은 한국 민주주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얻어진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개인과 집단에게 새겨져 민주주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혁명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한 혁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19혁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통일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대학생들의 시위



시위대와 대치하는 경찰



4·19혁명에 참여한 시민들



하와이로 망명하는 이승만 대통령

### ▶ 4·19혁명의 전개과정

주요 사건	발생동기	결과
1960년 2·28 대구 학생의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유세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도심에서 시위 발생</li> <li>◦ 4·19혁명의 계기</li> </ul>
3·15 마산 시위	3·15부정 선거(4할 사전 투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명 사망, 80여 명 부상, 200여 명 연행</li> <li>◦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li> </ul>
4·11 마산 2차 시위	김주열의 주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 확산</li> <li>◦ 초등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각 학교 3일간 등교 중지령</li> </ul>
4·18 고려대 학생 시위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대에 대한 피습</li> <li>◦ 4월 19일 시위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한 시위</li> </ul>
4·19 시민 참여 확대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에 대한 반대 시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5명 사망(경찰 4명 포함)</li> <li>◦ 727명 부상(경찰 169명 포함)</li> <li>◦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및 부통령 사표</li> </ul>
4·25 대학 교수단 시위	대학교수 258명 시국선언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혁명의 새로운 활력제공</li> <li>◦ 시위 확산과 대통령 하야 계기</li> </ul>
4·26 대통령 하야	시위 확산, 대통령 하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승만 대통령 하야</li> <li>◦ 자유당 정권 붕괴</li> </ul>



## 학생 활동지.1 민주 정치의 발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고대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와 도편 추방제

자료 01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위나 재산에 상관없이 공직을 맡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시민은 민회에 참석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직접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민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회에서 500명의 대표를 운번제로 선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500인 평의회는 평소 민회의 의사결정과 민회에 제안할 법률안을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매년 민회에서는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도편)에 적어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10년간 국외로 추방하였다.

【출처】 최성길 외(2012).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비상교육.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자료 02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에 처음으로 국립묘지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2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연설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장 잘 말해 주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의’ 라는 말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든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고, ‘국민에 의한’ 이라는 말은 국민에 의해 나라가 통치된다는 말로,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말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나라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출처】 최병모 외(2012).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미래엔컬처.

1. 자료 1, 2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아 발표해 보자.

2. 자료 1, 2의 내용 중 4·19혁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4·19혁명 참가자와의 가상인터뷰

➔ 4·19혁명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만나 그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한 대본을 쓰고, 역할극을 해 보자.

### ※등장인물

인터뷰 기자, 대학생, 대학교수, 경찰 등

### ※역할극 대본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4·19방송사 OO기자 입니다. 오늘은 4·19혁명 발생 □□주년을 맞이하여 그 당시 혁명에 참여하셨던 △△선생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_\_\_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 안녕하세요, 기자 양반

기자 : 그럼 먼저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

기자 : 당시 선생님께서는 4·19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

기자 : 다시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때와 똑같이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

기자 : 4·19혁명에 참가하셨던 분으로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

# 05

## 장애인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장애인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20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9) 인권 보장과 헌법.</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 ·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4)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는 차이가 아닌 다름임을 알 수 있다.</li> <li>•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li> <li>•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날 유래</li> <li>• 세계 장애인의 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를 이긴 인물들</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www.theme.archives.go.kr">www.theme.archives.go.kr</a>)</li> <li>•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li> <li>• 위키백과 사전(<a href="http://www.ko.wikipedia.org">www.ko.wikipedia.org</a>)</li> </ul>				

### ▶ 장애인의 날 유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

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설정되었다.

## ▶ 세계 장애인의 날

### (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국제 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이다. 날짜는 매년 12월 3일이다.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이다. 1982년 12월 3일 제37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데서 이 날짜로 정해졌다. UN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재활 10년(Rehabilitation Decade)’으로 선포하였다. 이후 1992년 12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하였다.

## ▶ 장애를 극복한 인물들

**이희아** | “저는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인으로 무릎 아래 가늘게 달려 있던 다리를 3살 때 절단했으며 양손에 두 개씩 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이다. 그녀는 전국학생 음악 평가 대회에서 최우수상, 장애인 극복 대통령상, 자랑스런 서울 시민상 등을 받았다.

“다섯 살 때 아빠와 함께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와 물귀신이다’ 하며 비명을 질렀는데, 저는 ‘그래 내가 바로 물귀신이다, 잡으러 간다’ 하면서 놀았습니다. 저는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지처럼 구걸하며 동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堂堂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저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헬렌 켈러나 마더 테레사처럼 살고 싶습니다.”

**닉 부이치치(Nicholas James Vujcic)** |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자.”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다. 닉 부이치치는 출생 당시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양팔과 다리가 없었고, 두 개의 작은 발이 달려있었는데 수술을 통해 두 발가락을 만들

어 여태까지 그 두 발가락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특별한 장치와 왼쪽 발에 있는 두 발가락을 사용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발뒤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컴퓨터와 타자 치는 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닉은 21살의 나이에 복수전공(회계학, 재무설계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동기와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乙武 洋匡)** |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팔다리가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197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사지절단증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체불만족》을 펴내 많은 인기를 얻은 일본의 작가이기도 하다.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작가·방송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02년에 도쿄도민 영예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 3월 도쿄도 교육위원이 되었다.



## 학생 활동지.1

# 장애인과 함께 하는 스포츠

➔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장애인 스포츠

### 자료 01

우리는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졌거나 장애인 선수들만 특별하게 행해 온 스포츠를 언급할 때 장애인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장애인 스포츠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골볼(goalball),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농구, 하지 장애인들을 위한 좌식 배구(sitting volleyball)와 같이 특정한 장애인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스포츠가 포함될 수 있다. 또, 장애인 스포츠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육상, 배구, 수영 등) 스포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되거나 변형된(휠체어테니스, 텐덤 사이클 등) 스포츠, 아무런 변형 없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육상, 레슬링, 수영 등) 스포츠가 포함된다.

【출처】 부산광역시청([http://friend.busan.go.kr/04sport/01\\_01.jsp](http://friend.busan.go.kr/04sport/01_01.jsp))

###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함께 달린다

### 자료 02

비장애인의 작은 도움은 장애인들에게 한계를 극복하는 '희망'이 된다. 3일 런던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패럴림픽 여자 100m T12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가이드 러너와 손에 줄을 묶고 혼신을 다해 질주하고 있다. T12는 남녀 시각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종목이다.



2012 패럴림픽 여자 100m T12

【출처】 경향신문. 2012. 09. 03.

1. 자료 1에 제시된 스포츠 종목들에 대해 조사해 보고,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2. 자료 2를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장애의 의미와 종류

➡ 다음 그림을 보고 활동을 해 보자.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1. 위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 표어 공모전의 당선작들이다. 이 내용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고, 그것을 고른 이유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해 보자.

### 제33회 장애인의 날 행사 표어 공모전 당선작

-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
- 편견의 비움은 능력의 채움입니다.
- 장애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하나의 세상
- 같이 하는 세상, 같이 크는 행복
- 편견을 버리면 우리입니다.
- 장애를 넘으면 하나입니다.
- 둥글둥글 소통세상, 방글방글 희망세상
- 장애를 넘는 생각이 국민행복시대를 엽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 학생 활동지.3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 통합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나타낸 자료를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통합교육의 정의

자료 01

통합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 의견 1

자료 02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흐름에서 볼 때, 통합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만 시행되면 오히려 암묵적으로 무관심한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로 퇴색해 버릴 수 있다.

#### 의견 2

자료 03

통합 교육의 목적은 인지 사고 발달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특성을 가진 장애 아동과 지내면서 적응력을 높여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로 인한 경쟁적인 분위기 때문에 장애 학생으로 인해 비장애 학생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편견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의 분리를 더욱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 의견 3

자료 04

장애 학생의 짝이 된 아이가 처음에는 불평을 했고 나도 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면서 짝궁도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친구라는 걸 아이가 자연스럽게 알아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 통합 교육은 정말 좋은 인성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 통합 교육에 대한 의견 1, 2, 3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2. 통합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3. 통합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 학생 활동지.4

## 7번방에는 무엇이 있을까?

➡ 다음은 영화 '7번방의 선물'에 대한 내용이다. 자료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잘. 못. 들. 어. 오. 셧. 습. 니. 다.

1997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용구)는 딸(예승)을 위해 세일러문 캐릭터가 그려진 노란색 가방을 사는 것을 꿈꾸며, 매일같이 가방 가게 앞에 들른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가방이 넘어간다. 그 가방을 예승에게 사주고 싶었던 용구는 세일러문 가방을 메고 있던 경찰청장의 딸에게 집적대다가 경찰청장에게 맞는다. 다음 날, 용구가 마트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 가방을 사 갔던 경찰청장의 딸을 만나고, 가방을 멘 아이는 용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세일러문 가방을 파는 다른 곳을 알려주려고 전통시장의 골목길을

뛰어가던 아이는 빙판에 넘어지면서 사망한다. 아이를 따라갔던 용구는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청장의 폭력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를 살해, 강간한 것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들어간다. 집에 혼자 남은 예승이는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교도소에 있던 용구는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던 방장을 살리게 되고 방장은 용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 용구가 딸이 필요하다고 하자, 다른 수형자들의 도움으로 예승을 몰래 교도소의 방으로 들어온다.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용구의 억울함을 알고 그를 돕기 위해 나선다. 그러나 용구는 재심 재판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하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여 재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는다.

결국 1997년 12월 23일, 예승의 생일에 용구의 사형이 집행되고, 14년 후 성인이 된 예승은 사법연수생이 되어 2012년 12월 23일 열린 모의국민참여재판에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출처】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1. 영화를 감상하고, 이 영화를 한 줄로 평가해 보자.  
예) 아버지는 옆에 있어 주고 희망을 심어 주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2. 영화의 주인공이 겪는 장애는 무엇이고, 이 장애의 특징을 조사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3.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찾아보고, 그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말해 보자.  
예) 말아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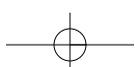
# 과학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과학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2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지리] (11) 자원의 개발과 이용 (12)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li>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11) 국민경제와 경제 성장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중학교 도덕 (4)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고등학교 사회 (4) 환경변화와 인간</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의 날이 제정된 이유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과학의 날 행사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의 날 유래와 의미    • 세계과학의 날 기념 연설문</li> <li>•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두산 백과사전(<a href="http://ko.wikipedia.org/wiki/과학의_날">ko.wikipedia.org/wiki/과학의_날</a>)</li> <li>• 유네스코 한국위원회(<a href="http://www.unesco.or.kr">www.unesco.or.kr</a>)</li> <li>• 한국민족대백과사전(<a href="http://encykorea.aks.ac.kr">encykorea.aks.ac.kr</a>)</li> </ul>				

### ▶과학의 날 유래와 의미

과학의 날은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1967년 4월 21일 과학 기술처의 발족일을 기념하여 1968년 ‘과학의 날’을 정하였고,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정되었다. 과학 기술 진흥에 힘쓴 유공자들을 표창·수상하고 전국적으로 ‘과학의 날’을 기념하며 여러 가지 과학관련 행사를 가진다.

한국 최초의 과학의 날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4월 19일로, 과학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여기던 찰스 로버트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제1회 ‘과학데이’로 삼아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행사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민족운동으로 발전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자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었고 결국 1938년 제5회 과학데이 행사가 끝난 뒤, 행사의 지도자인 김용관이 투옥됨으로써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시대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유네스코는 2002년부터 매년 11월 10일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는 과학이 사회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과학이 이룬 성취와 이에 따른 과제들을 성찰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199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의 실천사업의 하나로 제정된 것으로 2002년에 첫 기념일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가진 바가 있다.

### ▶ 세계 과학의 날 기념 연설문

세계 과학의 날 첫 기념일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연설한 것이다. 연설문에는 전 세계가 과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접근법, 그리고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과 대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 세계 과학의 날 기념 연설문

... (전략) ...

독자적인 과학 기술 역량 없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 이유들 중 하나는 과학 분야에서의 부족한 인적·제도적 역량입니다.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환경, 안전한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의 향상, 유아사망의 감소, 모성보건의 향상 등과 같은 국제 사회의 주요 발전 목표들은 상당부분 국가의 과학 연구 및 발전 역량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과학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폭넓은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잘 작동하고 포괄적인 교육제도는 모든 형태의 과학과 지식 기반 발전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아울러, 혁신을 고양하고 그 결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제도와 정부, 산업, 민간부문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관계 또한 훈련과 전문성에 대한 접근의 문을 개방하고 공동의 발전 과제들에 대한 통일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역량을 키우는 노력과 함께 이를 유지하는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과학 역량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선진국으로의 과학 전문가들의 두뇌유출입니다. 이는 여러 통계 수치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매년 2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과학 기술전문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연구소로 일자리를 잡아 떠나고 있습니다. 산업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개발도상국 출신 1백만 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연구개발 전문가들 중 3분의 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이들의 출신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두뇌유출의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및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뉴파트너십(NEPAD)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유네스코는 향후 1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 우수한 지역 센터를 30개까지 개발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인 발전을 북돋을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 사이의 과학적 단절을 이음으로써 전문가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센터들의 네트워크는 또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위한 강력한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에 맞는 특정 발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양산해 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도 과학의 진보 대열에 함께 해야 하며, 그 혜택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가 개발도상국들의 과학 역량 형성 기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마쓰우라 고이치로

【출처】 <http://www.unesco.or.kr>



### 학생 활동지.1

## 인류의 미래를 바꾼 과학 기술

- ▶ 20세기에 발명된 과학 기술 중 인류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5가지 고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자.

순위	과학기술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
1		
2		
3		
4		
5		

【참고】 <http://www.scienceall.com/contents> 한국과학창의재단

- ▶ 만약 여러분이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발명을 하고 싶다면, 어떤 발명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 보자.
- ▶ 내가 존경하는 과학자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업적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클론(Clone)은 상품인가? 인간인가?

➔ 다음은 영화 '아일랜드'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가까운 미래,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가는 것만이 희망인 사람들.

지구 상에 일어난 생태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일부만이 살아남은 21세기 중반. 자신들을 지구 종말의 생존자라 믿고 있는 링컨 6-에코(이완 맥그리거)와 조던 2-델타(스칼렛 요한슨)는 수백 명의 주민들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는 유토피아에서 빈틈없는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몸 상태를 점검 받고, 먹는 음식과 인간관계까지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추첨이 되어 뽑혀 가기를 바라고 있다.

잔인한 속임수, 당신은 인간에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한 클론이다.

최근 들어 매일 같이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던 링컨은 제한되고 규격화된 이곳 생활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곧,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기를 포함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스폰서(인간)에게 장기와 신체부위를 제공할 복제인간이라는 것! 결국 '아일랜드'로 뽑혀 간다는 것은 신체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주목하라, 아일랜드가 창조한 거대한 미래를 목격할 것이다.

어느 날, 복제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되고 장기를 추출 당하며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동료의 모습을 목격한 링컨은 아일랜드로 떠날 준비를 하던 조던과 탈출을 시도한다. 그간 감춰졌던 비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외부의 모습을 보게 된 이들은 자신들의 스폰서를 찾아 나서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탈주를 계속하는 데.....

【출처】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1. 클론(Clone)은 인간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자신의 생각을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
2. 과학의 발달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 말해보자.

# 07

## 정보통신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정보통신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22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일반사회 영역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8) 일상생활과 법</li> <li>• 고등학교 사회 (4) 환경변화와 인간</li> <li>• 중학교 도덕 (2)-(다) 사이버 윤리와 예절</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의 날 유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디지털 시대 정보윤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실천 태도를 기를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의 날의 유래와 의미</li> <li>• 디지털 시대의 정보통신과 윤리</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원복(2005). "정보통신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li> </ul>				

### ▶ 정보통신의 날의 유래와 의미

정보통신의 날은 매년 4월 22일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발전을 다짐하며 정보통신 관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국가기념일이다(현원복, 2005). 정보통신의 날 유래는 1844년 4월 22일 고종 시절 신식우편제도의 도입하여 우정총국을 개설한 것에 있다. 다음은 그날 고종이 내린 전교이다(현원복, 2005: 102).

“각국과 통상한 이래 내외의 간섭이 날로 증가하고 관상의 신식(信息)이 따라서 번잡해지니 진실로 그 뜻을 속히 체전(遞傳)하지 않으면 서로 연락하기 멀고 가까운 곳이 일체로 될 수 없다. 이에 명하니 우정총국을 설립,

각 항구에 왕래하는 신서를 맡아 전하고 내지(內地) 우편도 차차 확장해  
공공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

이와 같이 정보통신의 날은 우정총국의 개설을 그 기원으로 한다.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하  
기 전에 4월 22일은 체신의 날이었다.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거듭난 후 기념일의 명  
칭도 변경되었다.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우표

### ▶ 디지털 시대의 정보통신과 윤리

정보통신분야는 초고속 인터넷 망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통신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되었다. 하지  
만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대다수에 의해 공유되고 그 공유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또한 정  
보를 공유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매우 신속하다. 그리하여 디지털 시대 정보  
통신망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전자민주주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시공간 제약의 극복, 신속함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면  
서 편리함을 낳고 있지만 부작용도 뒤따른다. 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익명성을 배경으로 하  
는 정보통신윤리의 문제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10대 수칙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과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학생 활동지.1

# 모바일 거래와 우리 생활

➔ 모바일 거래 관련 특허 출원 현황 통계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출처】 대전일보, 2014년 2월 14일

1. 위의 그래프를 볼 때, 모바일 거래 관련 특허 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떤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 예상해 보자.
2. 모바일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제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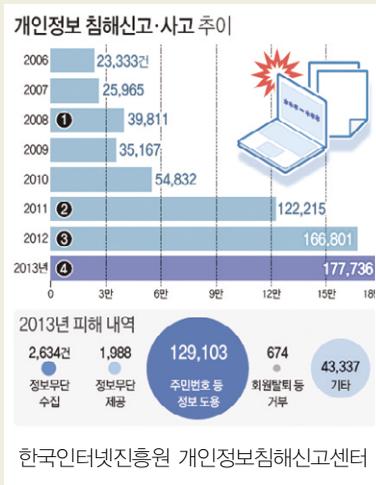
## 학생 활동지.2

#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중요성

▶ 다음의 뉴스는 최근 주요 은행과 통신사에서 발생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뉴스 보도이다.

- 2013년 12월 ○○은행, □□은행 13만 여 건 개인정보 유출
- 2014년 1월 ▲▲카드, ■■카드, ●●카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 2014년 2월 225개 사이트에서 전문직 등 1,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4년 3월 ☆☆이동통신사, 12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3년 최악의 데이터 유출 사고



어떻게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올해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이미 5,000만 전 국민들의 정보가 두 번 이상 털린 셈이다. 그것도 주민번호와 이름과 같은 간단한 개인 정보가 아니다.

특히 카드 3사 유출 사건의 경우 정보인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여부, 주거상황, 이용 실적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연소득 이외에도 신용한도금액, 연체금액, 신용등급 등과 같이 고객이 작성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 항목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됐다.

【출처】 <http://www.itworld.co.kr/news/86407>

1. 위의 보도에서처럼, 개인정보의 유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히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자.
2.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08

# 법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법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4월 2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일반사회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8) 일상생활과 법, (9) 인권 보장과 헌법, (10) 헌법과 국가 기관</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법과정치 (1) 민주정치와 법</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이 소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법의 기능과 역할을 인권과 관련지어 발표할 수 있다.</li> <li>• 법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의 날 유래와 변천</li> <li>• 법의 의미</li> <li>•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li> <li>• 법무부(2013). 중학생 법사랑 캠프 교재. 법무부.</li> <li>• 위키백과 사전(<a href="http://www.ko.wikipedia.org">www.ko.wikipedia.org</a>)</li> </ul>				

## ▶법의 날 유래와 변천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로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법의 날(Law Day)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Charles S. Rhyne)의 제창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

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 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 후 우리나라 정부는 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10월 28일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하여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고, ‘법의 날에 관한 건’을 폐지하였다. 법의 날은 노동자의 날(메이데이)과 중복되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 법의 의미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 변에 갈 거(去) 자를 합한 것이다. 이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법은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라틴어에서는 법을 이우스 또는 유스(Jus)라고 하는 데, 여기서 유스는 ‘옳음’, ‘바름’, ‘정의’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법과 법률의 의미를 그 용어의 유래에서 살펴보면,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으로 ‘정의(옳음)’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는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디케는 저울을 오른손에 치켜들고 칼은 왼손에 들고 아래로 드리우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평하게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간혹 눈을 감거나 가린 디케의 상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 감정이나 개개인의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법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할 때 법의 집행은 ‘정의로운’ 집행, 공평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의’를 의미하는 법은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법을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다 보면 종종 ‘금지를 통한 억압, 강제 혹은 통제’를 법 기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법 기능은 ‘옳은’ 혹은 ‘정의로운’ 법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기만 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횡포나 대중을 선동하여 등장한 독재자의 전제를 전혀 견제할 수 없고 오히려 형식적 통치원리로서의 법치주의가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역기능을 낳았다. 이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연결된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르다.

이에 반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는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요컨대,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에도 초점을 두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연결된다.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구속한다는 점이다.



## 학생 활동지.1 전통사회에서의 법

▶ 다음 자료를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우리나라 최초의 법: 8조법

자료 01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이다.  
그 가운데 남아 있는 3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킨다.
- 남을 때려서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집의 노예로 일해야 한다. 만약 풀려나고 싶으면, 은 50만 전을 바쳐야 한다.

【출처】 법무부(2013), 중학생 법사랑 캠프 교재

### 함무라비 법전

자료 02



함무라비 법전의상단부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것으로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졌던 법전이다.

이 법전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그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출처】 법무부(2013) 중학생 법사랑 캠프 교재

1. 우리나라의 8조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2. 우리나라 8조법과 함무라비 법전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탐색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법언과 우리의 일상 생활

➔ 다음에 제시된 법언(法言)들을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법이 없으면 인간은 가장 잔혹한 짐승으로 변한다.(플라톤)
-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마틴 루터 킹)
- 가장 좋은 판결도 가장 나쁜 합의만 못하다.(속담)
- 만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속담)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루돌프 폰 예링)
-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다.(파스칼)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속담)
- 법은 앞만 보지 뒤를 보지 않는다.(속담)

1. 자료의 법언 중 1가지를 골라 그 법언들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그것이 우리의 법 생활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2. 자료를 참조하여 예시와 같이 법의 정의를 내려 보자.

나는 법은 목욕탕 (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법과 관련된 격언이나 속담을 더 찾아보고,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 학생 활동지.3 법과 인권

▶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권리의 확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01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장이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체가 바로 법이다. 따라서 불법과 탈법을 통해 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의 정신을 오히려 취약하게 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는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합리화하는 것과 같다.

###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 실현

자료 02

법이 인권의 실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하다. 근대 시민 혁명의 목표와 인권 선언의 핵심이 바로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유연하게 변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만을 고집하면서 화석화(化石化)되면 법과 인권은 같이 죽어 가게 된다. 그래서 법에도 혈관이 있어야 한다. 인간을 위한 따뜻한 피가 흘러야만 법과 인권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항상 인권의 눈으로 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출처】 경기도교육청(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고등학교).

1. 자료 1, 2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2. 자료 1, 2의 주장에서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3. 자료 1, 2의 주장을 근거로 현대 사회에서 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 학생 활동지.4 법과 정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해태

### 자료 01



경복궁의 해태상

해태(海狔)는 동아시아 고대 전설 속의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로, 원래 해치가 원말이다. 사자와 비슷하나 기린처럼 머리에 뿔이 있다고 정의되어 있는 '해치'는 그 형태적 특징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으며, 몸 전체는 비늘로 덮여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거드랑이에는 날개를 닮은 깃털이 나 있고, 여름에는 늪가에 살며 겨울에는 소나무 숲에 산다고 알려졌다. 한자로는 '해'가 부정한 사람을 보면 뿔로 받는다신수(神獸), 신통한 양 등을 뜻하고, '치'는 웅크리고 노려보다, 풀리다 등의 의미가 있다. 영어로는 'the unicorn-lion(외뿔 달린 사자)' 또는 'an omniscient mythical beast(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춘 상상의 짐승)'이라고 풀이된다.

【출처】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 정의의 여신상의 다양한 모습

### 자료 02



1. 우리나라 대법원 앞의 정의의 여신상
2. 독일 뢰머 광장의 정의의 여신상
3. 우리나라 솔로몬 로파크의 정의의 여신상

1. 자료 1, 2의 사진들과 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발표해 보자.
2. 자료 2는 다양한 정의의 여신상 모습이다. 각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 09

## 근로자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근로자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5월 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11) 국민경제와 경제 성장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고등학교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 (3) 합리적 선택과 삶</li> <li>• 고등학교 경제 (2)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li> <li>•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사회윤리와 직업윤리</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와 직업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li> <li>•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올바른 직업 선택 방법을 말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날 제정 근거와 이유</li> <li>• 근로자의 날 유래와 변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 직업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의 직업</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서울시 진로진학 정보센터(<a href="http://www.jinhak.or.kr">http://www.jinhak.or.kr</a>)</li> <li>• 유네스코 한국위원회(<a href="http://www.unesco.or.kr">www.unesco.or.kr</a>)</li> <li>•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창의적 진로개발」 활용 매뉴얼(중학교)(<a href="http://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a>)</li> </ul>				

### ▶ 근로자의 날 제정 근거와 이유

근로자의 날은 법률 제4738호(1994.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국가 기념일이다. 이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 ▶ 근로자의 날 유래와 변천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에서 유래하였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

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라고도 부른다.

노동절,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부당한 탄압에 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네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했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네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 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고 있으며,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로 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을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겼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 일과 직업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의 직업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한다. 일이란 휴식과 놀이 또는 여가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말한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위한 재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화는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원시 시대의 수렵·채집 활동, 농경 사회에서의 농어업, 산업 사회에서의 육체 노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보상되는 일을 직업이라 한다. 따라서 직업은 삶의 중요한 한 과정이고 삶의 현장이다.

한편, 사회 변화는 직업 선택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과 관

련된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였으나 산업 구조가 지식 정보 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식 정보, 환경, 인간 복지와 관련된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직업 선택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가 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첫째, 미래사회에서는 정보산업의 분야의 직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에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직장에 출근하기 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미래사회의 직업은 대부분 육체노동이기보다는 정신노동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에 있어서 전보다 개인의 창의성이 보다 많이 요구될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 직업수명, 발전가능성, 근로조건, 직무만족도가 높은 직업 Top 5

순위	사회적기여도	직업의 지속성	발전가능성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무만족도
1	도선사	시인	학예사	시인	초등학교교장
2	장학사	작곡가	토목구조설계 기술자	초등학교교장	국회의원
3	신부	한의사	장학사	대학교총장	목사
4	성악가	소설가	심리학연구원	철학연구원	육군장교
5	학예사	성우	성우	수학 및 통계 연구원	도선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12).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학생 활동지.1

# 직업 선택 기준과 인기 직업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자료 01] 직업 선택의 기준

1. 자신의 적성이다. 모든 개인들은 타고난 소질이나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된 개인적 특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적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2. 직업과 직장의 장래성, 즉 앞으로의 전망이다. 젊은이가 한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평생의 직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직업의 전망과 장래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3. 직업의 안정성이다. 평생을 통해 안정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
4. 소득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되어야 한다.

[자료 02] 우리나라의 인기직업 변천사(1950~2010년)

1950~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2000년대	
군 장교	자동차엔지니어	건설기술자	증권·금융업	프로그래머	공인회계사
의사	은행원	화학엔지니어	반도체엔지니어	벤처기업가	국제회의 전문가
영화배우	교사	기계엔지니어	광고기획자	웹마스터	사회복지사
의상디자이너	가발기술자	비행기조종사	선박엔지니어	펀드매니저	IT 컨설턴트
공무원	섬유엔지니어	노무사	통역사	외환딜러	생명공학연구원

【출처】 매경이코노미, 2011. 02. 02

1. 자료 1에 제시된 직업 선택 기준의 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2. 자료 2와 같은 변화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자신의 직업 선택 기준에 맞추어 자료 2의 직업 중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고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자.
4. 자료 1, 2를 바탕으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직업선택의 방법을 말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직업, 일, 노동에 대한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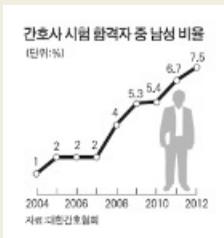
자료 01

- 직업은 남자가 갖는 것이다.
- 일류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
- 인기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 일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것이다.
-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이 더 중요하다.
-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2013). 중학생 법사랑 캠프 교재

###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자료 02



최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없어진지 오래다. 남자들의 세계로 여겨졌던 중장비 운전이나 군인, 비행기 조종사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세계였던 여러 직업에서도 남성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요즘이다. 유명한 헤어디자이너에서 가사도우미까지 이제는 직업 간의 성벽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 여성만의 세계로 알려졌던 간호사 세계에도 남성의 진출이 많아졌다. 아직 전체 간호사(29만 5,773명)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3%(2012년 현재)로 미미하지만,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첫 배출 후 46년만인 2008년에야 남성간호사 비율이 1%를 넘어섰는데, 5년 사이 벌써 2%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간호사만 3,504명에 이른다.

【출처】 한국일보, 2012. 02. 15.

1. 자료 1에 제시된 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2. 자료 2를 읽고,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직업을 구분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3. 다음 예시와 같이 빈칸을 채워 보자.

직업에 대한 편견은 편식 이다.

왜냐하면 편식을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학생 활동지.3 청소년 알바 10계명

### ➔ 청소년 알바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첫째, 부모님 동의서, 둘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을 꼭 작성하세요. 청소년은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2014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5.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연장근로가 필요할 시에는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며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6.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고용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의 상담은 청소년신고 대표전화 1644-3119번으로 전화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1.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를 발표해 보자.
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 학생 활동지.4

# 근로자의 의미와 근로의 권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와 근로자

자료 01

-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의 권리

자료 02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에 대해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서는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근로자(노동자)는 누가 있는지 발표해 보자.

2. 헌법에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3. 근로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4. 다음 빈칸에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나에게 노동은 \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10

# 아버이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아버이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5월 8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1) 개인과 사회생활</li> <li>•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생명·성·가족윤리</li> <li>• 고등학교 사회 (1) 사회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 (2) 개인과 사회구조</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이 날 제정 이유와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li> <li>• 효의 의미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이 날 제정 이유와 유래</li> <li>• 아버이 날과 카네이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와 관련된 고사 성어</li> <li>• 다른 나라의 아버이 날</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a href="http://folkency.nfm.go.kr">http://folkency.nfm.go.kr</a>)</li>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ul>				

## ▶ 아버이 날 제정 이유와 유래

아버이 날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버이 날의 유래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면서부터이다. 이 행사는 17회까지 이루어진 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6615호)에서 아버지 날로 개칭해 현재까지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이때부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는 어른,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기념일로 거듭나게 되었다. 아버이 날이 제정된 초기에는 이날을 전후해

일주일 동안을 경로주간으로 정하여 양로원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경로주간이 폐지되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 **어버이 날과 카네이션**

어버이 날에 하는 대표적인 행사는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다. 이 풍습의 기원은 어버이 날의 유래와도 관련이 있다.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아나 자비스(Ann Jarvis)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었고 1907년 모친의 2주기 추모식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머니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다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죽은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한다.

▶ **효와 관련된 고사 성어**

고사 성어	내용
백리부미(百里負米)	부모에게 쌀밥을 드리기 위해 백 리 길을 멀다고 또는 귀찮아하지 않고 쌀을 져 오는 자로(공자의 제자)의 지극한 효성에서 유래한 말로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뜻이다.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백유읍장(伯俞泣杖)	부모님이 매를 들었을 때 힘이 없어 전혀 아프지 않았음을 슬퍼하였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일컫는 한자성어이다.
반의지희(斑衣之戲)	늙으신 부모님이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이 많은 자녀가 늘 알록달록한 때때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피웠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늙어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말이다.

### ▶ 다른 나라의 어버이 날

국가	날짜
미국	어머니 날   5월의 2번째 일요일 아버지 날   6월의 3번째 일요일 어버이 날   7월의 4번째 일요일
베트남	어버이 날   7월 7일
중국, 일본	어머니 날   5월의 2번째 일요일 아버지 날   6월의 3번째 일요일
그리스	어머니 날   1월 8일
노르웨이	어머니 날   2월 3번째 일요일
슬로베니아	어머니 날   3월 6일
멕시코, 과테말라, 오만	어머니 날   5월 10일
폴란드	어머니 날   5월 26일
볼리비아	어머니 날   10월 9일
파나마	어머니 날   12월 9일

【출처】 <http://ptpkorea.org/130108316018>



## 학생 활동지.1

# 부모님과 자녀가 바라보는 효(孝)에 대한 생각

▶ 다음 자료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 친구와의 인터뷰

자료 01

1. 부모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부모님께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3.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부모님과의 인터뷰

자료 02

1. 자녀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3.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처】 <http://cafe.naver.com/fishforkakao/51246>

1. 위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 및 친구들과 인터뷰를 해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효'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자.  
"효(孝)는 \_\_\_\_\_입니다."
3. 아래와 같이 어버이 날로 4행시를 지어 보자
  - (어) 릴적 철없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 (버) 릿없이 행동해서 야단치실 때 마다 속상하셨죠?
  - (이) 저는 저에게 주셨던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 제가 부모님께 드릴게요.
  - (날) 마다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 학생 활동지.2 아버지의 노래

➔ 다음은 가수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이 가사를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너무 앞만 보면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커서 말도 안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걸고 새끼들 사진보며 한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먹고 목숨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애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체 내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애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거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바른 아이  
다른 아빠 보단 잘 할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외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굵는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애들아 (애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는 대학로  
이젠 온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가주세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오오~  
당신을 따라갈래요

1. 가사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문구를 고르고, 그 문구가 나에게 와 닿는 이유를 적어 보자.
2. 부모님과 관련된 노래를 더 찾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들어 보자.



## 학생 활동지.3 다양한 효의 모습

➡ 다음 내용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나무는 그대로 있으려 하지만

자료 01

공자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몹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고어(梟魚)라는 사람을 만났다. 왜 우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는 세 가지 한(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한답시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가 보니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저의 경륜을 받아들여려는 군주를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와 사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고어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리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불어온 바람이 멎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수욕정이풍부지: 樹欲靜而風不止). 마찬가지로 자식이 효도를 다하려고 해도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자욕양이친부대: 子欲養而親不待).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뵈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이제 이대로 서서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마른 나무에 기대어 죽고 말았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쉬운 효(孝)

자료 02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난 두 사람.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밝게 웃으며 자라난 것은  
당신의 정성, 당신의 부지런함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주름진 당신의 눈가에도  
숨겨왔던 수고로움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언제나 가장 먼저 만난 당신께,  
가장 나중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출처】 한국문화 100(<http://www.youtube.com/watch?v=A7oY2w7QzMo>)

1. 자료 1, 2에서 공통적으로 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2. 자료 1, 2와 관련된 고사 성어를 찾아보자.



## 학생 활동지.4 어머니의 사랑

▶ 다음 시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어머니(박경리 · 소설가)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삼십여 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의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관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할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아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써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도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매달려 있는 것(신세별 · 아동문학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게 뭐지?  
나뭇잎.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게 뭐지?  
물방울.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게 뭐지?  
나.

엄마(서정홍 · 아동문학가)  
엄마는 아무리 불러도 좋다.  
화나는 일도 짜증나는 일도  
'엄마' 하고 부르면 다 풀린다.

엄마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무서운 게 없다.

1. 제시된 시를 친구들 앞에서 크게 읽어 보고,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자.

# 11

## 스승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스승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5월 1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1) 개인과 사회생활</li> <li>•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생명·성·가족윤리</li> <li>• 고등학교 사회 (1) 사회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 (2) 개인과 사회구조</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승의 날이 제정된 이유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승의 날 유래와 의미</li> <li>• 사도헌장(師道憲章)</li> <li>• 세계 각국의 스승의 날(교사의 날)</li> <li>• 선생과 스승</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정우현(1977). 현대교사론. 배영사</li> <li>• 서울시교육위원회(1982). 현대사회와 교원. 서울시교육위원회</li> </ul>				

### ▶ 스승의 날 유래와 의미

스승의 날은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 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 행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스승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 ▶사도헌장(師道憲章)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國運)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受任者)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각자(先導者)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량한 학풍을 조성한다.
-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研鑽)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師表)가 된다.
-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건설에 공헌한다.

사도헌장은 스승이나아가야 할 바를 밝힌 것으로 1982년 대한교육연합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 ▶세계 각국의 스승의 날(교사의 날)

평일로 지정된 나라들		공휴일로 지정된 나라들	
타이	1월 16일	슬로바키아	3월 28일
대한민국	5월 15일	이란	5월 2일
말레이시아	5월 16일	알바니아	5월 7일
인도	9월 5일	엘살바도르	6월 22일
아프가니스탄	5월 24일	멕시코	5월 15일
미국	5월 첫째 완전한 주 화요일	체코	5월 28일
매사추세츠 주(미국)	9월 11일(Teachers' Day)	싱가포르	9월 1일
인도네시아	11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9월 10일
터키	11월 24일	중화민국	9월 28일
러시아	10월 5일	폴란드	10월 14일
		브라질	10월 15일
		베트남	11월 20일

## ▶선생과 스승

선생(先生)은 본래 일찍부터 도를 깨달은 자, 덕업(德業)이 있는 자, 성현의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자, 국왕에게 자문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가진 자 등을 칭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선생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배움을 받은 자는 그를 높여 스승이라 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선생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사·박사·사부·사유·사장·훈장 등은 교육 대상자의 신분·지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국왕의 스승은 사·사부 등으로 표현했으나, 고려시대에는 불교적인 차원에서 왕사(王師)라 하기도 하였다. 국가에서 설치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교육 활동을 전개하던 교수관(教授官)도 박사·사장·사유·훈장 등으로 일컬어졌다. 이 가운데 박사는 삼국·고려시대부터, 사장·사유는 조선시대의 중앙 교육 기관인 성균관·사부학당(四部學堂)에서, 훈장은 조선 후기 지방에 설치된 서당(書堂)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교원·교사·교수·교육자 등의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선생은 교사, 전문대학·대학교의 선생은 교수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교육 활동의 장(場)에 따른 것이며, 오늘날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보다 먼저 나서 그 도(道)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이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나서 그 도를 듣기를 나보다 앞이라면, 내 이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는 도를 스승으로 하는 것이다.”

-한유(韓愈)의 사설(師說)에서



## 학생 활동지.1-1 선생님의 다양한 모습

➔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

자료 01

공자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일행이 너무 지쳐 잠든 사이,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가 어디선가 쌀을 조금 구해 와서 급히 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핏 잠에서 깬 공자가 눈을 떠 보니, 안회가 솥에서 밥을 한 움큼 집어 날름 자기 입에 넣는 것이었다. 공자는 기가 막혔다. 안회는 공자가 제일 믿고 사랑하던 제자였는데 실망스런 마음이 들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칠 생각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회야, 내가 꿈에서 조상님을 뵈었는데 아무래도 이 밥으로 조상님께 제사를 올려야겠구나.

제사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밥을 올려야 하는 법이니 어서 준비해라.”

“이 밥은 안 됩니다. 아까 밥을 지을 때 천장에서 까만 재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너무 더럽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제가 먹었습니다. 제 손을 탄 것이니 제사에 올리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공자는 잠시나마 안회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나중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었으나, 이제 보니 눈 역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내 머리를 믿었으나, 그 또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느니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 이니라.”

【출처】 논어

###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자료 02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헬렌 켈러, 사흘 만 볼 수 있다면



## 학생 활동지.1-2

# 선생님의 다양한 모습들

### 페스타로치

### 자료 03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스타로치는 전 생애를 통하여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 언제나 교사로 외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그의 묘비명에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였으며, 스스로를 위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 그가 한 어록 중에 유명한 것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은 사람에게 필요한 무기이다. 그러나 무기를 잘못 쓰면 도리어 자신을 해치듯이 지식도 진실의 뒷받침이 없으면 식자우환(識字憂患)과 같이 몸을 망치기 쉽다. 진정한 지식은 꾸밈새 없는 순진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진실과 함께 있는 지식은 불행을 물리칠 수 있는 굳센 힘이 된다. 사람은 역경에 처해 있는 때일수록 진실한 지식을 몸에 지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순탄하고 행복한 환경에 있을 때에도 결코 참된 지식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맑은 진실이 겉으로 들어나지 않으면 행복도 마침내는 파괴되고 말기 때문이다.”

1. 공자, 설리번, 페스타로치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나의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이며,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자.
3. 내가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과 선생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말해 보자.(친구, 선생님들과 인터뷰 해 보기)



## 학생 활동지.1-3

# 선생님의 다양한 모습들

1. 내가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

2. 선생님이 내게 바라는 것



## 학생 활동지.2

# 영화 속에서의 스승과 제자

▶ 다음은 영화 '완득이'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자료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열여덟, 인생 최대의 적수를 만났다!

남들보다 키는 작지만 자신에게만은 누구보다 큰 존재인 아버지와 언제부터인가 가족이 되어 버린 삼촌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 완득이.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공부도 못하는 문제이지만 싸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가진 것도, 꿈도, 희망도 없는 완득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담임 '똥주'가 없어지는 것! 사사건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데다 급기야 옆집 옥탑방에 살면서 밤낮없이 자신을 불러대는 '똥주'. 오늘도 완득은 교회를 찾아 간절히 기도한다. "제발 똥주 좀 죽여 주세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입만 열면 막말, 자율학습은 진정한 자율에 맡기는 독특한 교육관으로 학생들에게 '똥주'라 불리는 동주. 유독 완득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동주는 학교에서는 숨기고 싶은 가족사와 사생활을 폭로하여 완득을 창피하게 만들고, 집에 오면 학교에서 받은 햇반마저 탈취하는 행각으로 완득을 괴롭힌다. 오밤중에 쳐들어와 아버지, 삼촌과 술잔을 기울이는 건 예삿일이 돼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친엄마를 만나 보라는 동주의 넓은 오지랖에 완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출을 계획해 보지만, 완득을 향한 동주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모르는데…!

【출처】 영화 다음(<http://movie.daum.net>)

1. 이 영화를 한 줄로 평가해 보자.
2.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선생님과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 이 영화 속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자.
3.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다룬 영화나 문학 작품을 더 찾아보고, 그 작품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해 보자.



### 학생 활동지.3

## 시에서 만나는 선생님

➔ 다음 시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 무명교사 예찬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른다  
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지만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인 법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이지만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이다.

그대가 사는 곳은 어두운 그늘, 가난을 당하되 달게 받는다  
그대를 위하여 부는 나팔 없고 그대를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금마차 없으며  
금빛 찬란한 훈장이 그 가슴을 장식하지도 않는다  
묵묵히 어둠의 전선을 지키는 그 무지와 우매의 참호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대  
날마다 날마다 실 줄도 모르고 아이들의 적인 거짓을 정복하고자 싸우며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고 있다.

계으른 자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하고자 하는 자를 고무하며 방황하는 자에게 안정을 주는  
그대는 스스로 학문하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너무나도 값진 마음의 보물을 아이들과 나눈다.

그대가 켜는 수많은 촛불, 그 빛이 훗날 그대에게 되돌아와 그대의 눈물 어린 두 눈을 비추리니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받는 제일의 보상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마음으로 손을 맞잡아 배울 수 있으니.

이 세상 어디라도 무명의 교사보다 예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  
발전이라는 마차에 바퀴가 되는 자  
그대 이외에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임금이요  
인류의 머슴인……

【출처】헨리 반다이크(Henry van Dyke), 오천석 역.

1. 이 시의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해 보자.
2. 이 시를 읽은 소감을 쓰고, 그것을 나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에게 보내 보자.

# 12



## 5·18민주화운동 / 국가기념일



항목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5월 18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4)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5) 정치과정과 시민참여</li> <li>• 중학교 사회[역사-근대이후] (3) 대한민국의 발전</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      • 고등학교 법과정치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li> <li>• 고등학교 한국사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 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말할 수 있다.</li> <li>• 5·18민주화운동의 결과와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려는 자세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제정이유</li> <li>•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li> <li>•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국가보훈처(<a href="http://mpva.tistory.com/416">http://mpva.tistory.com/416</a>)</li> <li>• 위키백과사전(<a href="http://ko.wikipedia.org">http://ko.wikipedia.org</a>)</li> <li>• 유네스코 한국위원회(<a href="http://www.unesco.or.kr/heritage">http://www.unesco.or.kr/heritage</a>)</li> <li>• 5·18기념재단(2013). 5·18민주화 운동(중·고등학생). 5·18기념재단.</li> </ul>				

###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제정이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5·18민주화운동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주관부처는 국가보훈처이다.

### ▶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1979년의 신민당 총재 김영삼 제명 파동, 같은 해 10월 16일 부산과 마산에서의 민주화 시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등 독재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민주화의 열기가 높아지던 가운데 국민들의 열망과는 다르게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월 12일 군부를 장악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정권 획득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신군부의 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5월 18일 광주에서는 대학생들을 선두로 비상 계엄령 확대 반대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을 군이 무력으로 과잉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후 시민들은 무장을 통한 저항을 시작하였으나 신군부는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여 무장한 계엄군(공수부대원)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내용
1980. 5. 17. 24:00	•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선포 - 7공수여단 33, 35대대가 각각 전남대, 조선대에 투입
5.18	• 7공수여단 시내 주요지역으로 진출 - 시위학생 및 시민들 진압작전 수행
5.19	• 11공수여단 추가 배치 - 시내에서 진압작전 계속 수행
5.20	• 3공수여단 추가 배치, 시내 병력 3,400명 - MBC방송국 화재, 계엄군 시민들에게 발포
5.21	• 도청 앞 집단 발포 - 시민군 조직으로 공수부대원 시외곽으로 철수
5.22~25	• 5·18수습대책위원회 구성 - 치안 유지 업무 수행 등으로 시내 평온 유지
5.26	• 계엄군 시내 재진입하여 상무총정작전 수행
5.27	• 전남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전으로 막을 내림

【출처】 문화 저널 21, 국가보훈처(<http://mpva.tistory.com/416>)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과 관련해 정부, 국회, 시민 단체 그리고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물론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대상 보상 사례도 여러 나라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세계의 학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라는 과거 청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말한다. 남미나 남아공 등지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과거청산작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광주에서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피해 보상’, ‘기념 사업’의 5대 원칙이 모두 관철되었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3종류로 대별된다.

첫째,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행정 문서, 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당시 국가 체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사건 당시와 그 후 현장 공무원들에 의해 기록된 상황일지 등의 자료가 있으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보상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을 통해 당시의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단체들이 작성한 문건과 개인이 작성한 일기, 기자들이 작성한 취재수첩 등이다. 각종 성명서, 선언문, 대자보, 일기장과 취재수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진 기자들과 외국 특파원들이 촬영한 사진들은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광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증언 테이프 등도 포함된다.

셋째,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종료된 후 군사정부하에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회와 법원 등에서 생산된 자료와 주한미국대사관과 미국 국무성 및 국방부 사이에 오고 간 전문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총 9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기록문서철 4,271권, 858,900여 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 컷, 사진 1,733점 등이다.

-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 (2) 군사법기관재판 자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육군본부 소장)
-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 (4) 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 (6)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광주광역시 소장)
- (7)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광주광역시 소장)
- (9)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학생 활동지.1

# 5·18민주화운동과 언론

- ▶ 자료 1, 2, 3은 1980년 5·18 당시 사건에 대한 보도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A사(1980. 05. 23)

자료 01

학생들은 금남로에서 연좌시위를 하였으나 경찰이 해산시켰다. 학생들은 흩어지면서 충장로 파출소를 비롯하여, 계림동, 동산, 산수, 지산동 5개 파출소를 부셨다.

B사(1980. 05. 24)

자료 02

광주의 인상은 약탈과 방화와 난동이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C사(1980. 05. 25)

자료 03

일반 시민들은 데모대에 동조하고 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으며, 수요일에는 군대의 발포로 최소한 11명 사망하였다. 여기의 상황은 한국의 다른 지역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출처】 5·18 기념재단(2013). 5·18민주화 운동.

1. 자료들 사이에 발견되는 보도 내용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3. 위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

➔ 다음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자료 01

평가자	평가 내용
이웅산 수치 여사 (노벨평화상 수상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2011. 5. 16
김수환 추기경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광주의 5월” -연합뉴스, 2009. 2. 18
이명박 전 대통령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앞장서 온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크나큰 아픔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민주화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습니다.” -제28주년(2011)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중

자료 0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p>

1. 5·18민주화운동을 평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찾아 그 내용을 발표해보고, 그 평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2. 자료 1, 2를 통해 알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밝히고, 자료 2와 같은 법률을 제정한 이유를 탐색해 보자.

# 13

## 성년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성년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5월 셋째 월요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1) 개인과 사회</li> <li>•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생명·성·가족윤리</li> <li>• 고등학교 사회 (1) 사회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 (2) 개인과 사회구조</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성년의식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의 날 제정 이유와 유래</li> <li>• 성년의식의 절차와 내용 변천</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www.theme.archives.go.kr">www.theme.archives.go.kr</a>)</li> <li>•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세시풍속(총괄편), 금강인쇄사.</li> <li>•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a href="http://www.folkency.nfm.go.kr">www.folkency.nfm.go.kr</a>)</li> </ul>				

### ▶ 성년의 날 제정 이유와 유래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만으로 20세가 되면 예부터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마을 단위로 축하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러한 전통을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다. 최근 민법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년 나이는 19세로 변경되었다.

성년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 왔다. 특히 부족사회나 초기 국가 사회에서의 성년식은 사회적 의미가 컸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 고대사 회에서도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 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혼련반을 집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 준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광종 16년(965)에 태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대목도 있다. 원복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나라의 복장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어른들의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 저고리)를 말하므로 태자에게 성인복을 입혔음을 뜻한다. 태자의 성년식을 거행해서 공식적 으로 성년이 되었음을 알렸다. 조선 초기의 성년식은 양반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고려 말에 명나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소개되어 사대부 계층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 제 의식을 지키기 시작했다.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을 을 알리는 관례는 남자아이에게는 15세와 20세 사이에 땅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복건, 초 립, 사모, 탕건을 씌워 주는 의식이었다. 관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으 로서의 예절을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함을 알게 하였다.

### ▶ 성년의식의 절차와 내용 변천



계례(위), 관례(아래)  
<http://culturenori.tistory.com>

전통시대의 성년식과 현대 의 성년식은 기본 목적이나 의미는 같지만, 식의 절차와 내용은 크게 다르다. 조선의 관례를 중심으로 전통시대의 성년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가 15세가 넘으면 길 일을 택해서 일가친척과 하객 을 초청하여 일정한 절차와

의식을 올렸다. 이때 성인의 복장인 상투, 망건, 초립, 도포를 입고 아명 대신 관명(冠名)과 자(字)를 지어 주었다. 혼례 및 입관 자격과 향교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았다. 여자는 머리에 쪽을 지고 그 위에 족두리를 얹고 용잠을 꿰은 후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예를 치른 후에야 혼례를 할 수 있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冠)’이 바로

이 성년식을 말한다. 실제로 관례는 혼례절차에 포함시켜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전통적인 풍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성년식이 거의 사라질 무렵, 국가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전통 성년식을 부활시켰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기에서는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 놓고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를 거쳐 성년 선언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한다.



### 학생 활동지.1

## 성인이 된다는 것은?

➔ 다음 자료를 보고 활동해 보자.

자료 01

미성년자여서 할 수 있는 것	1. 2.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1. 2.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	1. 2.
내게 성인이 된다는 것은 _____ 이다.	

자료 02

어른이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① 하루 한 번은 명상을 한다.
② 책을 가까이 한다.
③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④ 어른의 말을 쓴다.
⑤ 멘토를 찾아서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⑥ 자기 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베풀고 양보한다.
⑦ 서예, 그림 그리기, 음악감상 등 마음을 다듬는 취미를 가진다.
⑧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⑨ _____
⑩ _____

【출처】 이성주의 건강편지, 제 584호 (2011. 05. 16.)

1. 자료 1의 빈칸을 채워 보자.
2. 자료 2의 ⑨, ⑩을 채워보고, 그렇게 쓴 이유를 발표해 보자.
3. 자료 2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세계 각국의 성인식

➡ 다음은 세계 여러나라의 성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을 보고 활동을 해 보자.

일본 | 성대한 성인식 전통이 남아 있다. 1948년 제정된 성인의 날은 국민 공휴일로 매년 신궁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린다. 이 때 전통의상을 입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하카마나라는 서양 정장을 입고, 여자의 경우에는 후리소데라는 가장 화려한 기모노를 입는다.

미얀마 | 10세에서 15세 사이의 대부분의 미얀마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유에 의해 '신뽀(Shinpyu)' 라는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는 일종의 득도식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 남자가 13세가 되면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에서 '바르미즈바' 라는 성년식을 갖는데, 통곡의 벽 회당에서 3,500년 전에 일어난 민족의 구원과 태동을 암기하는 것으로 성년식을 치룬다.

아프리카의 하마르 족 | 발가벗은 몸으로 소 등을 네 번 뛰어오른다. 만약 소 등에서 떨어지면 여자들에게 채찍질을 받는다.

남태평양 펜타코스트 섬 원주민 | 포도넝쿨이나 칩뿌리 등을 감고 30m 정도 높이의 탑에서 뛰어내린다.



후리소데  
【출처】 <http://durl.kr/236h8>



미얀마의 성인식 '신뽀'  
【출처】 <http://durl.kr/236hu>



이스라엘의 성인식  
【출처】 <http://blog.joins.com>

1. 세계 여러 나라에는 다양한 성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성인식이 존재하는 공통적인 이유를 추론해 보자.
2. 남태평양 펜타코스트 섬 원주민의 성인식은 어떤 레저 스포츠의 기원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다른 나라의 성인식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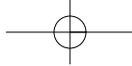
14

# 바다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바다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5월 3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13) 우리나라의 영토</li> <li>•중학교 사회 일반사회 영역 (13) 국제사회와 국제정치</li> <li>•고등학교 사회 (5) 미래를 보는 창</li> <li>•중학교 과학 (7) 수권의 구성과 순환</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다의 날 유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바다가 지니는 중요성을 알고 새로운 국토관을 확립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다의 날 유래와 의미</li> <li>•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인가?</li> <li>•장보고, 그는 누구인가?</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종석(2003). 『히스토리야』. 마음산책.</li> <li>•국립민속박물관(2013). 전시해설 해상왕 장보고.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0437&amp;cid=831&amp;categoryId=83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0437&amp;cid=831&amp;categoryId=831</a>)</li> <li>•이재협(2005). “바다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역(201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a href="http://www.mofa.go.kr">http://www.mofa.go.kr</a>)</li> </ul>				

## ▶바다의 날 유래와 의미

바다의 날은 1996년 5월 31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 기념일은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하여 해양사상을 드높이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 하였다(이재협, 2005: 257).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바다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크게 변하고 바다의 중요성이 급부상되었기 때문이다. 5월 31일이 바다의 날로 정해진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시기가 이날이기 때문이다(고종석, 2003: 165).



### ▶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고, 1958년과 1960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이래의 발전에 따라 새롭고도 일반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해양법협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해양의 여러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 (생략) ...

【출처】 외교통상부(2010).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http://www.mofa.go.kr/>)

### ▶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인가?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자유 이용 시대에서 해양 분할 경쟁 시대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재협, 2005: 257).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 요충지이다. 또한 육지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좁기 때문에 바다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한다. 국제 환경이 ‘바다도 영토이다’ 라는 관점으로 변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은 체결된 것이다. 육지 못지않게 바다의 분할을 국제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협약에서 바다의 분할과 관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 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며,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 되도록 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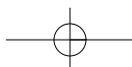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①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② 해양과학조사    ③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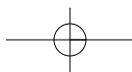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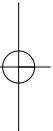


##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 해상왕 장보고

고대의 바닷길은 일찍부터 열려있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남해안 각지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적과 유물 그리고 설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장보고(?~846)는 당시 가장 뛰어난 조선 기술과 항해 능력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그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지점인 청해진을 발판으로 바닷길을 활짝 열었다. 청해진은 오늘날 전라남도 완도 지역이다. 해상왕 장보고는 신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청해진 유적에서 출토된 제사 및 생활용구 등에는 그가 활약하던 당시의 생활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수많은 사람들과 문물들이 장보고가 열었던 바닷길을 통해 거쳐 갔고, 신라의 번성도 이 바닷길을 통한 활발한 무역활동으로 가능했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해설 “해상왕 장보고” 재구성





### 학생 활동지.1

##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자.

자료 01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a href="http://www.mof.go.kr/">http://www.mof.go.kr/</a> )
내용	
해양수산부의 미션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국민의 행복 공간으로 만든다.”
해양수산부의 목표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출처】 [http://www.mof.go.kr/EgovDongyongsangMain\\_portal\\_front.do?menu1=3000000&menu2=3020000&menu3=3020300](http://www.mof.go.kr/EgovDongyongsangMain_portal_front.do?menu1=3000000&menu2=3020000&menu3=302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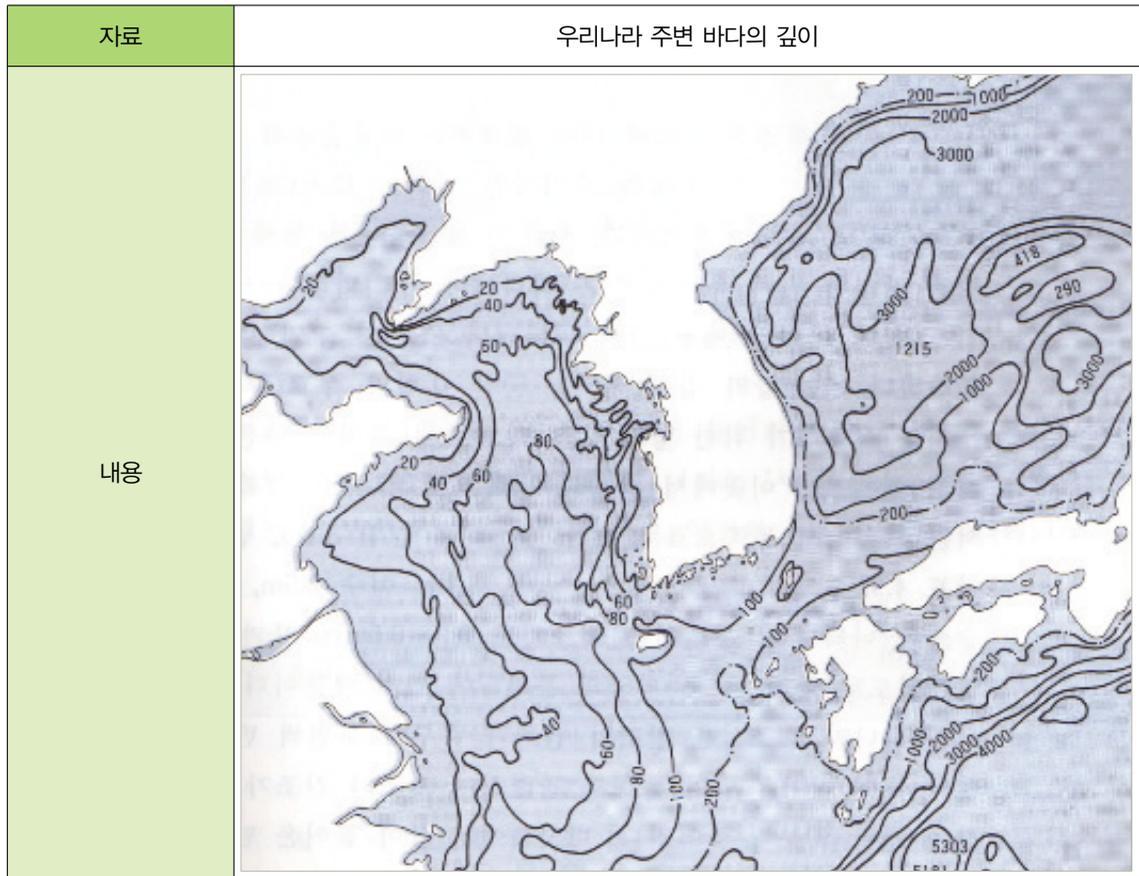
1.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2.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은 무엇인가?



### 학생 활동지.2

## 해양 자원의 보고, 대륙붕

- ▶ 아래 지도는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심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물음에 답해 보자.  
(단위: m)



【출처】 권혁재(1997). p.91.

1. 위 지도에서 우리나라 바다 수심 200m 미만은 어디인지 찾아 표시해 보자.
2. 바다의 깊이가 200m 미만인 곳을 대륙붕이라고 한다. 대륙붕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 학생 활동지.3

## 문화교류의 장소, 바다

▶ 다음 자료를 통해 문화교류의 장소로서 바다가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보자.



바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의 장소이기도 하다. 바닷길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흐름들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도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낼 때는 바닷길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통신사의 사행길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 에도 막부는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평화적인 문화교류의 성과를 쌓았고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

1. 위의 지도를 통해 조선통신사가 이용했던 바닷길을 확인하고, 거쳐 간 지역들을 확인해 보자.
2.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에 미친 영향을 각각 조사해 보자.



15

# 환경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환경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6월 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영역 (5)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11) 자원의 개발과 이용</li> <li>• 중학교 사회 지리영역 (12)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li> <li>• 고등학교 사회 (5) 미래를 보는 창      • 고등학교 과학 (3) 에너지와 환경</li> <li>• 중학교 도덕 (4)-(가) 환경친화적 삶      • 초중등학교 창의체험활동: 자연보호활동</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의 날 유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생태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의 날 유래</li> <li>• 세계 환경의 날에 대하여</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김계영 외 공역(2011). 『르몽드 환경아틀라스』. 한겨레출판.</li> <li>• 유엔홈페이지(<a href="http://www.unep.or.kr/wed/page/101.php">http://www.unep.or.kr/wed/page/101.php</a>)</li> <li>• 남호엽(2013).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본 글로벌 학습. 『사회과교육연구』 20(1).</li> </ul>				

## ▶ 환경의 날 유래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법정 국가기념일로 「환경의 날」을 지정했다.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을 위한 행사를 추진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높이기 위해 1972년에 제정되었다.

## ▶ 세계 환경의 날에 대하여

세계 환경의 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환경운동의 날로 일 년 내내 계속되는 행사들이 6월 5일에 절정을 이룬다. 1972년에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에 대한 대중 의식과

정치적 참여를 제고하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세계 환경의 날을 통해 환경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더 깨끗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다. 세계 환경의 날 이니셔티브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이다. 이웃들과 집 주변 청소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환경 보호 알리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배출 하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세계 환경의 날에 참여할 내용은 무엇인가? 세계 환경의 날 공식 웹사이트에 당신의 활동을 알릴 수 있다. 환경을 위한 날,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출처】 <http://www.unep.or.kr/wed/page/101.php>

### 2013 WED 주제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똑똑한 식습관. 지구를 구합니다"입니다. 이 슬로건은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매년 13억 톤의 음식이 버려지는데 이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양과 맞먹습니다. 또한 전 세계 7명 중 1명이 굶주림을 경험하며 매일 2만여 명이 넘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합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불균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올해의 슬로건 "똑똑한 식습관. 지구를 구합니다"는 우리의 식품 선택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깨워 주며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70억명의 인구(2050년에는 90억으로 증가)가 한정된 자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3분의 1이 버려지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천연 자원을 낭비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 요인입니다.

올해의 캠페인은 우리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여, 돈도 절약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식품 생산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알립니다.

음식물이 버려지게 되면, 그 음식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자원과 노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리터의 우유를 만드는데 1000리터의 물이 햄버거 1개를 만들기 위해 소를 키우는데 1만6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과 소를 키우는 과정 및 식품 공급 사슬에 사용된 모든 자원들은 소용없게 됩니다.

전 세계 식품 생산은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땅의 25%를 차지하며, 담수 소비의 70%, 심림 파괴의 80%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30%의 원인입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 및 토지 이용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등 평소 장을 볼 때도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면 배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식습관으로 우리의 환경을 구해요!

【출처】 <http://www.unep.or.kr/wed/page/102.php>



## 학생 활동지.1

# 세계 환경의 날 주제

➡ 다음은 21세기 세계 환경의 날 주제와 주최국을 정리한 내용이다. 유네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2012년의 경우처럼 의미 요약을 해 보자.

연도	주최국	주제	의미 요약
2012	브라질	녹색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녹색 경제는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균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환경적 위험도와 생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경제임. 녹색경제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함.
2011	인도	숲, 우리와 함께 소통하다	
2010	르완다	생물의 다양성이 숨쉬는, 하나된 지구, 하나된 미래를 만들었어요	
2009	멕시코	지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하나되어 기후변화를 막아요	
2008	뉴질랜드	습관을 바꾸자!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경제로	
2007	노르웨이	녹아내리는 빙하, 위기 속의 지구	
2006	알제리	사막과 사막화, 건조지대를 버리지 마세요!	
2005	미국	녹색도시, 지구를 위한 계획	
2004	스페인	구해주세요! 생사의 기로에 선 바다	
2003	레바논	물, 20억 인구의 갈망!	
2002	중국	지구에게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2001	이탈리아, 쿠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2000		환경의 새천년, 이제는 행동할 때	

【출처】 [http://www.unep.or.kr/wed/page/205\\_01.php?side=205](http://www.unep.or.kr/wed/page/205_01.php?side=205)



## 학생 활동지.2

# 탄소배출량을 줄이자

- ▶ 아래 통계는 한 개인의 행동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단위:백만톤)  
(프랑스에서 2004년 기준 한 개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양)

주택		자동차		일상생활	
세부사항	감소	세부사항	감소	세부사항	감소
① 가스나 중유로 난방하는 낡은 주택의 단열재 개선	2.34	⑥ km당 CO <sub>2</sub> 를 120g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	0.8	⑪ 겨울철 실내 온도 2도 낮추기	7.7
② 가스나 중유를 난방에너지로 사용한 새 주택 건설	0.26	⑦ 더 경제적인 중고 자동차 구매	1	⑫ 가스나 중유 보일러의 정기적 보수	3.5
③ 저온 유지 장치나 콘덴서를 장착한 새 보일러 구입	0.37	⑧ 연간 주행거리 10% 감축	8.8	⑬ 전력 소비가 낮은 전구로 교체	0.6
④ 태양열 온수기 설치	0.034	⑨ 경제적인 운전습관(감속, 사거리 서행, 엔진 브레이크 사용 등)	2.8	⑭ 세탁기의 최적화(전력 사용량 최대 시간대 피하여 세탁하기 등)	0.08
⑤ 에너지 효율 등급 A+인 백색 가전 구입	0.09	⑩ 자동차 에어컨 사용 줄이기	1.3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2011), p.67. 재구성

1. 탄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행동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2. 한 개인의 행동 중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3.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위의 사례에서 선택하자면 무엇인가?



### 학생 활동지.3-1

##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 ▶ 다음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의견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해 보자.

#### 지구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

#### 자료 01

**사회:** 오늘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되, 부디 후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A나라 대표:** 우리나라는 질 좋은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화력 발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탄은 연소율이 매우 높아요. 국민들은 전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B나라 대표:** 우리도 그래요. 하루 빨리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해서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합니다. 가격이 싼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더욱 많이 할 예정입니다. 핵폐기물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지요.

**C나라 대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 방사능 누출 문제가 생겨,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더욱 늘리고 해요. 물론, 태양광 발전 비용이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야 하겠지요.

**D나라 대표:** 그래요. 우리나라도 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요. 바이오 기술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 옥수수를 많이 심어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고용을 창출해 주는 이점도 있어요.

**사회:** 의견들이 다양하군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생각합시다. 지금 현재 인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큰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가 영원히 잘 살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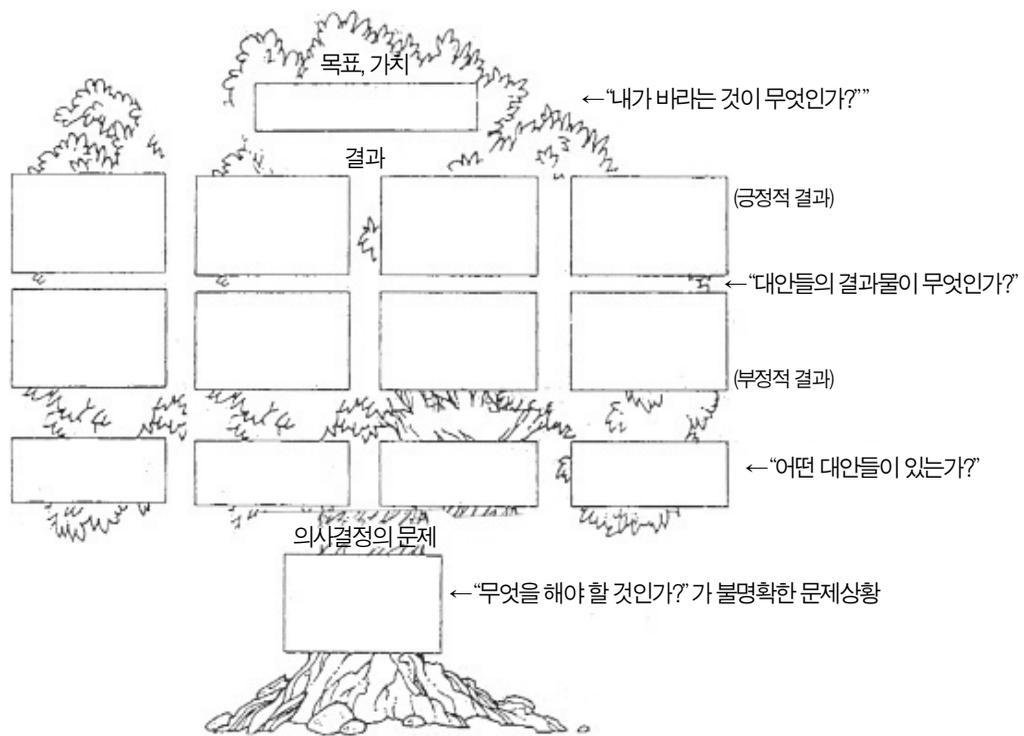
【출처】 남호엽(2013), pp.28-29.



### 학생 활동지.3-2

##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1. 앞 쪽의 <자료>를 상황으로 하여 아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의사결정 나무를 완성해 보자. 의사결정 나무의 아래 부분에 결정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자.
2. 어떤 대안들이 있으며, 각각의 대안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3. 내가 바라는 것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면, 어떤 전기 생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 16

## 현충일 / 국가기념일

항목	현충일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6월 6일
관련 교육과정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IV.사회 사상, 국가와 윤리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충일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li> <li>• 현충일 태극기 게양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li> <li>•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현충일을 비교하고,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태도를 지닌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충일의 유래</li> <li>• 현충일의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행정부(<a href="http://www.mospa.go.kr/irt/sub/a06/b08/nationalcon_2/screen.do">http://www.mospa.go.kr/irt/sub/a06/b08/nationalcon_2/screen.do</a>)</li> <li>• 국립서울현충원 알림마당 - 동영상갤러리 - 소개: 교육용영상 - 그리운 사랑으로(2009. 08. 20)</li> <li>•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2005,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li> <li>• 경인일보, 2012. 06. 21</li> </ul>				

### ▶ 현충일의 유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忠節)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매년 6월 6일이다. 예로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고, 그 해 6월 6일이 망종이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현충기념일'로 제정되었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기념일'이 '현충

일'로 공식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어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故人)들의 명복을 빈다.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3부 요인과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현충일 추념식을 갖는다.

### ▶ 현충일의 의미

현충일은 顯忠日로, '드러날 현', '충성 충'을 써 충렬하는 마음을 드러내어 기린다는 뜻이다. 즉,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 정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나라를 위해 애쓴 분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되새겨보는 날이다.



## 학생 활동지.1

# 현충일의 의미

➔ 물음에 답해 보자.

1. '현충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최대한 많이 적어보자.
  
2. 여러분이 적은 단어를 친구들과 서로 비교해 보자.
  
3. '현충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단어 3가지를 선택하여, 현충일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현충일을 알릴 수 있는 짧은 글 짓기를 해 보자.
  - ①
  - ②
  - ③



## 학생 활동지.2

# 현충일 태극기 게양

➡ 현충일은 顯忠日로, '드러날 현', '충성 충' 을 써 충렬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날이다. 우리가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p>현충일은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p>	<p>그림 그려보기</p>

1. 태극기를 그리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2. '태극기에 담긴 뜻'을 읽어보고, 그 방법에 따라 태극기를 그려보자.

태극기에 담긴 뜻
<p>우리 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 (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p> <p>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p> <p>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p> <p>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출처】 안전행정부([http://www.mospa.go.kr/irt/sub/a06/b08/nationalcon\\_2/screen.do](http://www.mospa.go.kr/irt/sub/a06/b08/nationalcon_2/screen.do))



## 학생 활동지.2-1 현충일 태극기 게양

태극기 그려 보기

- ▶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현충일에 애국선열과 국군장병을 추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보자.

예시) 오전 10시 사이렌소리에 맞추어 순국선열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국립현충원등을 방문한다.



### 학생 활동지.3

## 순국선열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글을 읽으면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다.)

그리운 사랑으로 돌아온 님. 당신은, 한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고, 한 여자의 든직한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아이와 한 여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내 가겠단 고집을 부렸지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아이를 누가 지키냐며 매몰차게 가 버렸지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 당신에게 무엇이었나요?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고…… 누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당신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저에게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운 사람도, 정겨운 사람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던, 당신도 빼앗아 갔습니다. 당신은 무얼 위해 그토록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한 건가요?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수 없이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떠난 당신을 잊으려 했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알았습니다. 당신의 그 외롭고 힘든 고통 때문에 저와 당신의 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 풍요하고 행복한 세상이……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이란 사실을…… 불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기에……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전…… 당신이 그립습니다.

【출처】 국립서울현충원(<http://www.snmb.mil.kr>)-알림마당-동영상갤러리-소개/교육용영상-그리운 사랑으로(2009.08.20)

1. 위 글의 제목을 붙여보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친구와 함께 서로 말해 보자.
2. 위 글의 필자인 순국선열의 유가족이 느꼈을 고통과 어려움을 적어보고, 순국선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보자.



## 학생 활동지.4-1

# 다른 나라의 현충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외국의 현충일

자료 01

#### ■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메모리얼 데이는 꽃장식의 날(Decoration Day)라고도 불린다. 1868년 미국 북군의 남북전쟁 중군 용사회의 총사령관이었던 로건(John A. Logan)장군은 5월 30일을 북군병사의 묘소에서 의식을 행하기 위한 특별한 날로 지명하였다. 묘소에 꽃을 장식하는 의식은 오래된 관습이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이를 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1971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로 정하고, 연방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남부 지역의 일부 주는 남북전쟁 당시 죽은 남군들을 위해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미시시피주와 알라바마주는 4월 마지막 월요일에,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는 4월 26일에, 사우스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5월 10일, 켄터키주와 루이지애나주 그리고 테네시주는 6월 3일에, 텍사스주는 1월 19일에 각주 나름대로의 현충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 오스트레일리아의 4월 25일 안착데이

안착(ANZAC)이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군단의 약자(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로, 1915년 4월 24일 새벽, 1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군의 일원으로 터키 상륙 작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매년 4월 25일 새벽에 시드니에 세워진 추모비 앞에 모여 추모 기도회를 갖고 각종 행사와 가두 행진을 한다.

【출처】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2005,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1. 우리나라에서 영국과 달리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풍토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현충일과 포피데이의 유래를 비교하고, 국민 의식 차원 및 국가 제도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 학생 활동지.4-2

# 다른 나라의 현충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외국의 현충일

자료 02

#### ■ 영국의 포피데이(poppy day · 양귀비의 날)



영국은 1차 대전 종전 서명일인 11월 11일을 '포피데이(poppy day · 양귀비의 날)'라고 부르며, 우리처럼 현충일 행사를 갖는다. 이와 함께 영국 국민들은 11월 한 달 내내 양귀비 조화를 달고 다닌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종이로 만든 양귀비 조화는 영국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의 상징이다. 양귀

비가 순국선열의 피를 상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모이나 마이클이라는 여성이 연합군의 존 맥크레이와 시(詩)를 주고 받으면서 참전 군인을 기리는 의미로 붉은 양귀비 꽃을 옷에 달고 다니다서 유래되고 있다. 그녀는 이 꽃을 판 돈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쟁에서 돌아온 제대 군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재향군인회가 이 운동에 대대적으로 동참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넣고 양귀비 조화를 가져가면, 그 수익이 전쟁미망인·고아·상이용사를 돕는 데 쓰인다. 여기에 착안해 우리 국가보훈처도 지난 2005년부터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신의 나라 사랑이 대한민국을 키워간다'는 뜻으로 푸른 나무 그림에 태극 열매와 비둘기 등을 담았다. 영국인들이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회적 예우풍토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6일 현충일에도 이 배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직 국민들 의식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영국 포피데이에 만발했던 양귀비를 생각하면 한국의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는 너무 초라한 신세다.

워싱턴DC의 6·25 전쟁 추모공원의 추모비에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나라 위해 피를 바친 이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걱정했을 그들의 유가족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다운 국민'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출처】 경인일보, 2012. 06. 21

2. 윗글의 밑줄 친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의 의미에 대해 '자유'와 '공짜'의 의미 중심으로 친구들과 토의하고, 후손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자유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자.



17

# 6·10민주항쟁 / 국가기념일

항목	6·10민주항쟁기념일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6월 10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법과정치, I. 민주정치와 법, 정치권력과 법치주의</li> <li>고등학교 한국사, VI.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0민주항쟁기념일의 의미를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li> <li>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시민의 참여 정신을 지닌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0민주항쟁기념일의 유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BC Home &gt; 20년뉴스 &gt; 20년 전 오늘뉴스</li> </ul>				

## ▶ 6·10민주항쟁기념일의 유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4·13호헌(護憲)조치」를 발표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식성명을 통해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15일까지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하여 4·13호헌 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 학생 활동지.1

## 6·10민주항쟁기념일의 발생 원인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6·10민주항쟁의 원인을 찾아 모두 써 보고, 발표해 보자.
2. 6·10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을 되살려 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보자.
3. 우리 부모님은 6·10민주항쟁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정리해 보자.
4. 오늘날까지 6·10민주항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자.

자료 01

6·10민주항쟁 전개

1987. 1. 14	박종철 군 고문으로 사망
1987. 4. 13	호헌 조치 발표
1987. 5. 27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발대식
1987. 6. 9	이한열 군 시위 중 최루탄에 부상(7월 5일 사망)
1987. 6. 10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 헌법 쟁취 범국민 대회 - 서울 및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 시민 참여
1987. 6. 18	국민운동본부 '최루탄 추방의 날' - 전국 16개 도시 247곳에서 150여 만 명 참여
1987. 6. 26	국민운동본부 민주 헌법 쟁취 국민 평화 대행진 - 전국 34개 도시, 4개 군 130여 만 명의 시민과 학생 참여
1987. 6. 29	6·29선언 발표



## 학생 활동지.2-1

# 헌법으로 비추어 본 6·10민주항쟁 결과

-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뉴스 영상을 보거나 혹은 뉴스대본만을 보고도 활동이 가능하다.)

### [대통령 특별담화] 임기 만료 후 후임자에게 정부 이양

자료 01

- 앵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특별담화를 통해서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서 내년 2월 25일에 임기만료와 더불어서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특별담화):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망국을 타계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도움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2가지의 국가 대사를 완성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 (중략) ...

【출처】 MBC Home > 20년뉴스 > 20년 전 오늘뉴스

1. 개헌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학생 활동지.2-2

## 헌법으로 비추어 본 6·10민주항쟁 결과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4·13 호헌조치

#### 자료 02

제 5공화국 정권 당시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대통령선거인단에서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헌법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헌법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41조 ①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2.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느끼고 생각한 대로 말해 보자.
3.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문제점을 민주주의의 의미에 비추어 서술해 보자.
4. 자료 2에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헌법 조문을 수정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 헌법 조문을 찾아 비교해 보자.



# 18

## 6·25전쟁일 / 국가기념일

항목	6·25전쟁일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6월 2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역사, 대한민국의 발전·광복,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분단과 6·25전쟁의 전개</li> <li>• 고등학교 한국사, VI.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6·25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참상과 영향</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닌다.</li> <li>•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전쟁일</li> <li>• 6·25전쟁일의 의미</li> <li>• 6·25전쟁의 배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전쟁의 전개</li> <li>• 6·25전쟁의 휴전 협정 과정</li> <li>• 6·25전쟁 결과와 영향</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수능특강 2014 한국사</li> <li>• 전쟁기념관(<a href="https://www.warmemo.or.kr">https://www.warmemo.or.kr</a>)- 전쟁/군사정보- 전투자료동영상-북한의 남침 준비 대본</li> <li>• 이제는 만나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찾기 / MBC 문화방송, 1999</li> <li>•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a href="https://reunion.unikorea.go.kr/reunion/index">https://reunion.unikorea.go.kr/reunion/index</a>)</li> <li>• 연합뉴스, 2006. 06. 20</li> <li>• 부산일보, 2005. 06. 23</li> </ul>				

### ▶ 6·25전쟁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 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이다.

### ▶ 6·25전쟁일의 의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과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국가보훈처, 2010) 그러나 유래 없는 엄청난 재난으로 우리 민족의 파괴와 시련의 과정이었다. 수 많은 국군 사상자 등의 인명 피해와 국토, 개인의 재산은 물론 각종 산업 시설이 모두 전쟁터로 변하여 잿더미가 되었다. 이를 교훈삼아 이 땅에 전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확고히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6·25전쟁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기려야 한다. 또한 여전히 우리는 통일이 되지 못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의 슬픔을 겪고 있다. 따라서 6·25전쟁 기념일에는 조국과 민족,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며 우리 국토에서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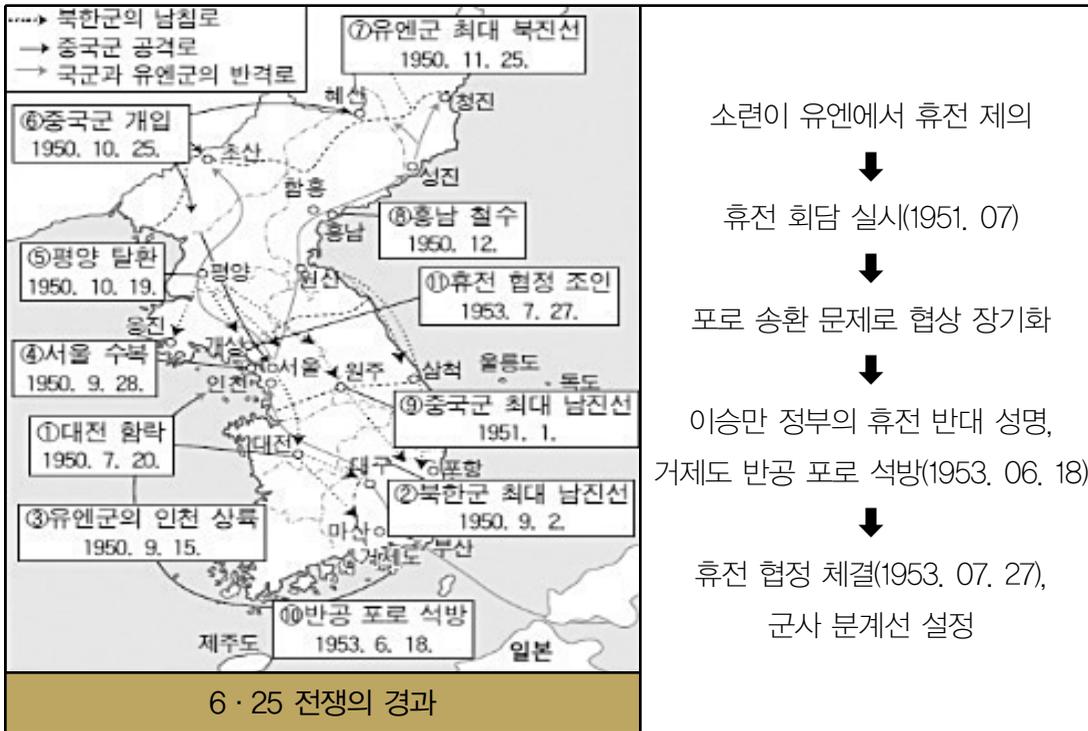
### ▶ 6·25전쟁의 배경

- ① 미군 철수, 중국의 공산화(1949), 38도선 일대에서 소규모 군사 충돌 발생
- ② 북한의 전쟁 준비-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 체결(탱크와 비행기 등 최신 무기 도입), 중국의 지원으로 조선 의용군이 북한군에 편입
- ③ 애치슨 선언(1950.1)-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이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함.

### ▶ 6·25전쟁의 전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무력 남침
1950년 6월~9월	서울 함락(06. 28) → 유엔군 파병 결정 →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 구축 → 인천 상륙 작전(1950. 09. 15) → 서울 수복(1950. 09. 28)
1950년 10월~12월	국군의 38도선 돌파(1950. 10. 01) → 압록강까지 진격 → 중국군 개입(1950. 10. 25) → 흥남 철수(1950. 12)
1951년 1월~7월	서울 재함락(1951. 01. 04) →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세 → 서울 재수복 → 38도선 부근까지 진격 →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선의 교착

### ▶ 6·25전쟁의 휴전 협정 과정



### ▶ 6·25전쟁 결과와 영향

- 제네바 회담(1954)에 19개국이 참가하여 평화 문제 논의(남북 의견 차이로 결렬)
- 분단의 고착화와 남북한 독재 권력 강화



## 학생 활동지.1

# 이산가족의 슬픔

▶ 다음 글은 6·25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분들의 편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이산가족의 편지 1

자료 01

그립고 보고 싶은 당신께……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의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 (중략) …

택용 엄마, 어느덧 40년이 흘렀소. 6·25 참화로 가족과 생이별한 이가 어찌 나뿐이오만 해마다 6월이 되면 뭉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이산의 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 눈물을 식히곤 하오. … (중략) …

【출처】 초등학교의 전쟁 인식과 평화교육: 한국전쟁 수업방안을 중심으로, 윤영섭,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산가족의 편지 2

자료 02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장 그리운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헤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육의 상봉과 고향땅 즉 태어난 곳을 한 번쯤 찾는 일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이 글을 쓰며 얼마나 모습이 달라졌을까 혹은 병속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지나 않을까 … (중략) …

다시 안부를 묻는다 해도 살아만 계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건강하시라는 인사의 말씀, 보고 싶다는 애절한 소원일 뿐입니다.

【출처】 이제는 만나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찾기/MBC 문화방송, 1999

1. 자료를 통해 이산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2.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이산가족의 슬픔

###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등록현황(2014년 2월 28일 현재)

#### ■ 개요

대상: 1988 ~ 2014. 02. 28 신청인 등록 분 전체 129,410명

구분	신청자	생존자	사망자
전월 대비	123 증가	692 감소	815 증가
1988년~2014년 2월	129,410	70,811	58,599
1988년~2014년 1월	129,287	71,503	57,784

#### ■ 생존자 현황 / ① 연령별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7,691	29,454	20,394	7,604	5,668	70,811
비율(%)	10.9	41.6	28.8	10.7	8	100

#### ■ 생존자 현황 / ② 가족관계별

구분	부부/모녀/자녀	형제/자매	3촌이상	계
인원수(명)	32,526	29,380	8,905	70,811
비율(%)	45.9	41.5	12.6	100

#### ■ 사망자 현황

구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30,076	22,449	5,291	645	138	58,599
비율(%)	51.3	38.3	9	1.1	0.3	100

【출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https://reunion.unikorea.go.kr/reunion/index>)

1. 자료를 토대로 '이산가족 교류' 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2. 우리 친척 중에서 이산가족이 있는지 찾아보고, 인터뷰 해보자.

# 19

## 정보 보호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정보 보호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7월 둘째 주 수요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기술가정[기술] (3) 정보와 통신기술</li>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3) 과학 기술 · 환경 · 정보윤리</li> <li>• 고등학교 사회 · 문화 (6) 현대사회와 사회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도덕 (2) 우리 · 타인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 (4) 환경변화와 인간</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보호의 날이 제정된 이유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정보를 보호하고 소중히 하는 자세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보호의 날 유래와 의미</li> <li>•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정보 보호 컨퍼런스 사무국,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a href="http://terms.naver.com">http://terms.naver.com</a>)</li> <li>• 국가기록원(<a href="http://www.theme.archives.go.kr">www.theme.archives.go.kr</a>)</li> <li>•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li> <li>•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a href="http://www.boho.or.kr">www.boho.or.kr</a>)</li> </ul>				

### ▶ 정보 보호의 날 유래와 의미

정보 보호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해마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규모 사이버 공격, 피싱, 악성코드 등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구분 없이 날이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7월 둘째 주를 정보 보호의 날로 정한 것은 2009년 7월 해커에 의해 감염된 좀비PC 11만 대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22개 인터넷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이 마비되었던 '7.7 DDoS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이다.

정보 보호의 날은 정부의 8개 부처(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금융위원회·외교부·교육부·국가정보원)가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 전환 및 실천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보 보호 생활화를 통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정보 보호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사에는 △정보 보호 R&D 및 보안제품 전시회 △정보 보호 인력채용 박람회 △해킹 방어대회 △대학생 정보 보호 토론대회 △사이버공격 시나리오 공모전 △청소년 IT 보안 캠프 등의 연계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기업 대상의 정보 보호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CEO 간담회, 권역별 순회교육,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방·금융·외교·지식경제·교육과학 분야별로 자체적인 정보 보호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ISA 보호나라(<http://www.boho.or.kr/>)는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혹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다면 보호나라 사이트에 제공된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링크를 이용하거나 보호나라 신고전화 118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클린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http://clean.kisa.or.kr/>) 자신도 모르게 사용된 나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사이트가 있다면 직접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후 탈퇴를 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학생 활동지.1

#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법에서의 개인정보 정의

자료 01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 개인정보보호

자료 02

####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까?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될 수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1.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피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 보자.
2. 개인정보 침해(유출, 매매, 오·남용, 홈페이지 노출, 허술한 관리·방치) 사례를 조사해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말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영화 속에서의 개인정보

▶ 다음은 '네트' 라는 영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영화 「네트」

자료 01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안젤라에게 동료 데일이 새 인터넷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며 분석해 달라고 파일을 보낸다. 안젤라는 자신의 집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혼자서만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파일은 겉으로는 평범한 음악 파일처럼 보이는데, 극비 데이터 시스템이 들어 있다. 분석을 해보고 놀란 안젤라가 데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데일은 안젤라의 집으로 오는 도중 비행기 사고로 죽는다. 휴가로 멕시코에 간 안젤라는 잭이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달아난다. 안젤라에게 문제는 지금부터 일어난다.

안젤라의 존재가 온라인상에서 감쪽같이 지워지고, 안젤라는 범죄자로 수배 중인 다른 사람으로 둔갑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망에 도망을 거듭하며 자신을 지키려는 안젤라의 처절한 노력은, 옛 애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결국 그 파일을 검찰 E-mail로 보내는 데 성공한다.

【출처】 영화 다음(<http://movie.daum.net>)

1. 영화의 안젤라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나의 존재가 감쪽같이 지워진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 보자.
2. 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른 영화를 찾아보고, 그 영화의 주제를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자.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적, 사회·제도적 노력에 대해 말해 보자.

개인적 차원	사회·제도적 차원
○	○
○	○
○	○



### 학생 활동지.3-1

##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 다음은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 저작권

#### 자료 01

저작권이란 시나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전시, 방송 등으로 자신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문화예술작품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남의 것을 보고 베끼지 않는 숙제, 일기, 그림, UCC 등도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의 블로그, 미니홈피, 자유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의 많은 저작물을 편리하고 쉽게 창작하고, 생산하며,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편리한 인터넷 문화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쉽게 복제하고, 도용하는 부작용도 야기하게 되었다. 만일 내가 만든 저작물을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간 유지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개인에게

#### 자료 02

#### 정보 사유화의 입장 '카피라이트(copyright)'

카피라이트 제도하에서는 저작자, 작곡가, 기타 창작자의 동의 없이는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카피라이트 제도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여 창조 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가 가능하다. 정보 사유론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사적 소유권이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 사유론은 사적 소유권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옹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의 노동에 기초한 소유'(로크)나 '저자의 창조물로서의 저작물'(피히테)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의 개발은 현격히 감소될 것이다.



### 학생 활동지.3-2

##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

자료 03

#### 정보 공유화의 입장 '카피레프트(copyleft)

카피레프트 운동은 1984년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한다. 정보는 두 가지 점에서 일반 물질적 재화와 다르다. 첫째, 정보는 물질적 재화와 달리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 한 '소유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원래 정보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는 그 사용에 있어 배타성이 없는 공공재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보는 결코 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되며, 다른 정보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1. 저작권을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만 인정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2. 저작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어떤 권리에 속하는지 말해 보자.
3. 자료 1, 2, 3을 참조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 보자.
  - 가) 정보 사유화와 공유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정리해 보자.

입장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정보 사유화의 입장		
정보 공유화의 입장		

- 나) 정보 사유화와 공유화와 관련하여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대안 설정	대안 설정 이유

# 20

## 인구의 날 / 기념일



항목	인구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7월 1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지리] (6)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일반사회]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li> <li>• 중학교 도덕 (2) 우리 · 타인의 관계</li> <li>• 중학교 기술가정[가정] (4) 가족의 이해, (6) 진로와 생애 설계</li> <li>•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생명 · 성 · 가족 윤리</li> <li>• 고등학교 기술가정 (1) 저출산 · 고령사회와 가족</li> <li>• 고등학교 사회 (3) 합리적 선택과 삶 (5) 미래를 바라보는 창</li> <li>• 고등학교 한국지리 (8)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li> <li>• 고등학교 사회 · 문화 (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li> <li>• 고등학교 세계지리 (4)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도시</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의 날 제정 이유와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인구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의 날 제정 유래</li> <li>•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li> <li>•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대책</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www.theme.archives.go.kr)</li> <li>• 김태현(2012). 저출산 · 고령사회와 결혼 및 가족가치관 교육. 대전: 국교.</li> <li>• 유종열(2010).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 문제. 사회과교육, 49(4), 33-47.</li> <l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ul>				

### ▶ 인구의 날 제정 유래

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으며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 ▶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0년에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20년 동안 1,310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그 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2000년까지 890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 4,941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여 연 증가율은 0.46%으로 둔화되었다(표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로 인해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은 낮은 구조였다. 이후 출생률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2020년경에는 유소년(0~14세)인구보다 노년(65세 이상)인구가 많아질 것이며, 다가올 2060년에는 유소년층 비중보다 노인층의 비중이 훨씬 큰 연령별 인구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 우리나라 인구추이

기간: 1960년~2060년

구분	1960	1980	2000	2010	2020	2030	2060
총인구(천명)	25,012	38,124	47,008	49,410	51,435	52,160	43,959
인구성장률(%) <sup>1)</sup>	3.01	1.57	0.84	0.46	0.28	0.01	-1.00
연간증가인구(천명) <sup>1)</sup>	753	599	335	227	141	6	-439
합계출산률(명)	6.0	2.83	1.47	1.23	1.35	1.41	1.42
연령별 인구구성비(%) 0~14세	42.3	34.4	21.1	16.1	13.2	12.6	10.2
15~64세	54.8	62.2	71.7	72.8	71.1	63.1	49.7
65세 이상	2.9	3.8	7.2	11.0	15.7	24.23	40.1
남자 평균수명(년)	52.7 <sup>2)</sup>	62.3 <sup>3)</sup>	72.1	77.2	79.3	81.4	86.6
여자 평균수명(년)	57.7 <sup>2)</sup>	70.5 <sup>3)</sup>	79.5	84.1	85.7	87.0	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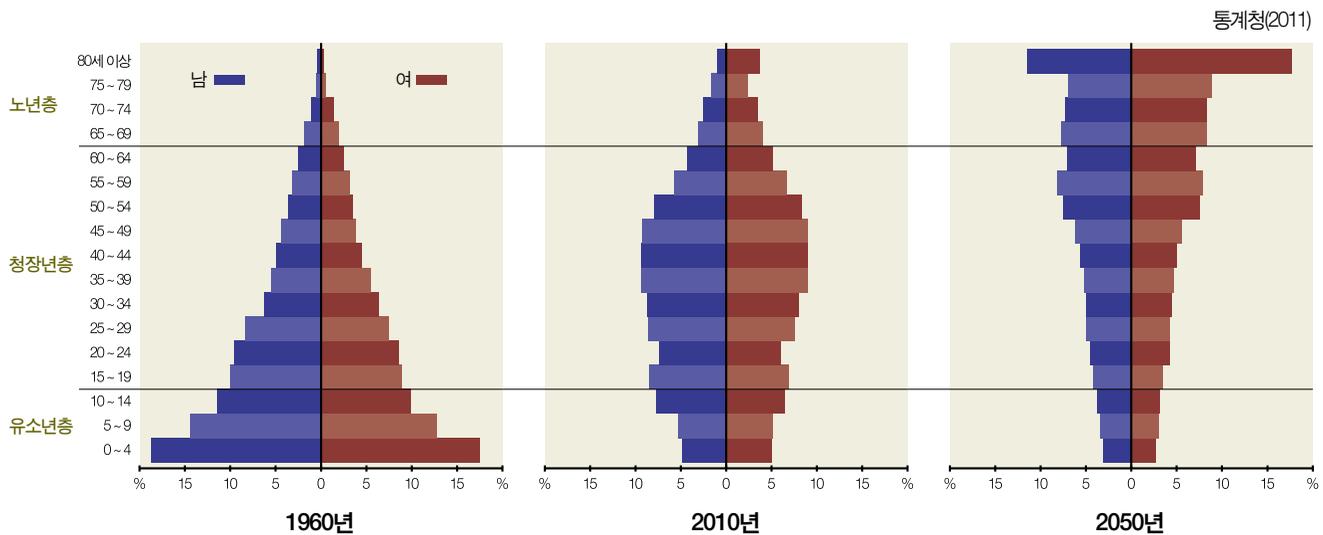
[주] 1)해당연도의 전 1년간 증가분임, 2)1960-65년 기준, 3)1981년 기준

【자료】 조사통계국(1981) 및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지금까지의 인구변동을 감안한 장래인구는 출산수준의 감소로 총인구의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어 2030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표 참조)된다. 총인구가 최대 규모에 도달하는 2030년 이후에도 유소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져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40.1%가 될 것이다.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통계청, 2014년 2월 2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 6천 6백

명으로 전년(48만 4천 6백 명)보다 4만 8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출생아 숫자가 가장 적었던 2005년의 43만 4천 명보다 불과 2,000여 명이 많은 것이며,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1.30명)보다 0.11명 감소한 것이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1.84세로 전년보다 0.22세 상승하였으며, 평균 기대 수명 81.1세로 늘어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자료] 공익광고협의회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대책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경기 불황, 실업,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저출산 현상을 모두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 변화는 경기변화와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하며, 물질적 조건이나 기회구조와 별개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에는 인구학적, 사

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저출산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작동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내적 변화 특히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인구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결혼 및 자녀가치관 포함)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과거 가족계획 방법이 교육을 많이 받은 층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점차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침투해 들어간 바가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학교교육을 통하여 관련 지식이나 태도를 함양시키는 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 교육을 통해 인구에 대한 지식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 학생 활동지.1

# 인구와 관련된 격언들

▶ 다음 내용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인구와 관련된 격언

자료 01

- 「인구가 국력이다」
- 「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 「인구는 크기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
- 「인구는 늘어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다」

### 고드윈과 맬서스

자료 02

고드윈(W. Godwin, 1756~1838)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망률이 줄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인류가 인구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득한 먼 미래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이다. 거주 가능한 이 세계의 3/4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도 무한한 개발이 가능하다. 앞으로 몇 세기에 걸쳐 인구가 증가해도 인구과잉의 문제는 아득한 먼 앞날의 일로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맬서스(T. R. Malthus, 1766~1834)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인간이 식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존하려면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거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거작용에는 가난과 악덕(전쟁, 범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난과 악덕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1. 자료 1에서 인구와 관련된 격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말이 생긴 이유를 적어 보자.
2. 자료 2의 두 사람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 말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변화

➡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정책과 관련된 표어 및 포스터이다. 이 자료를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거 지 떨 어 질 것 을 못 만 들 다	알 맞 게 하 게 기 르 자	적 게 낳 아 잘 키 우 자	적 게 낳 아 자 식 잘 키 르 면		
1960 ~ 1970년대					
1980 ~ 1990년대					
2000년대					

1. 인구와 관련된 표어와 포스터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발표해 보자.
2.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표어나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 학생 활동지.3

##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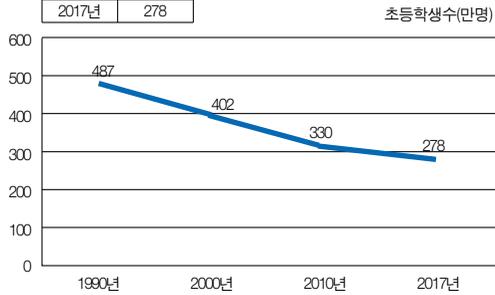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영향

자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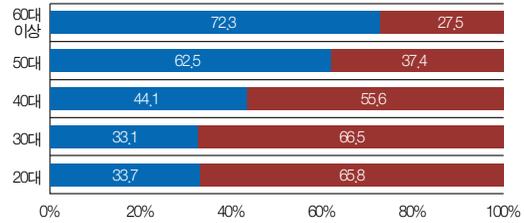
##### 가)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생 수 변화 양상

연도	학생수
1990년	487
2000년	402
2010년	330
2017년	278



##### 나) 18대 대통령선거 연령별 지지율(2012. 12)

연도	A당	B당
20대	33.7	66.8
30대	33.1	66.5
40대	44.1	55.6
50대	62.5	37.4
60대 이상	72.3	27.5



【출처】가)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현황, 나)방송3사 출구조사(2012. 12)

####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

자료 02

일본보다 빠르다는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10년 GDP 대비 6.9%에서 2020년에 10%로 급증하는 등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노인에게 지출되는 1인당 의료비가 일반국민의 3.2배에 이른다. 노인들은 발병률이 높은 데다 장기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처】연합뉴스, 2011. 05. 09

1. 자료 1의 가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말해 보자.
2. 자료 1의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사례를 발표해 보자.
3. 자료 2와 같은 현상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찾아보자.
4. 저출산 고령사회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소감을 발표해 보자.

(참고) <http://www.youtube.com/watch?v=cPyubAb483Q>



21

# 국군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국군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10월 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도덕,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li> <li>•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송고함을 알고, 병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닌다.</li> <li>• 직업으로서의 군인의 진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li> <li>•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한 찬반 근거를 알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의 날의 유래</li> <li>• 국군의 날의 의미</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li> <li>•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재구성</li> <li>• 병역전문가-다큐영상(<a href="http://www.mma.go.kr/www_mma3/template/2013mma/movie/index.html">http://www.mma.go.kr/www_mma3/template/2013mma/movie/index.html</a>)</li> <li>• 국방일보 2013. 8. 26</li> </ul>				

## ▶ 국군의 날의 유래

국군(國軍)의 위용을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10월 1일이다. 국군의 창설 과정은 1948년 8월 15일 국방부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어 경비대의 국군 편입, 육·해군 부대의 증편, 해병대 창설을 거쳐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미군정기에 조선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조선해안경비대는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 결단식 거행일을 각각 창설기념일로 정하여 자체적인 기념 행사를 가졌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전시를 제외하고 각 군별로 기념일 행사를 가져 왔다. 1955년까지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084호로 육·해·공군 기념일을 공포했는데, 해군 및 해병대와 공군은 기념일을 종전대로 정했으나 육군은 38선 돌파일(사단단위)을 기념하여 10월 2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각 군별로 정해진 기념일을 국군의 날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38선 돌파일을 10월 1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자,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으로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3군 기념일로 통합하여 국군의 날로 공포하였다.

### ▶ 국군의 날의 의미

국군의 날은 1973년 3월 30일에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을 폐지되고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었다가, 1976년 9월 3일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나, 1990년 11월 5일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국가기념일로 규정되고 있다.

이날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3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 행사를 한다.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큰 군인에게는 포상을 한다. 국군의 날은 군의 창설 기념일 차원을 넘어서 국군의 일체감과 민·군 화합을 상징하는 기념일이며,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날이다.



# 학생 활동지.1 직업 탐색 - 군인

- ▶ '국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토대로 하여 국군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예시>와 같이 창의적으로 그려보자.

<p>국군의 날 공식 캐릭터 공개 '건빵군'과 '별사탕양' 등장</p> <p>건군 제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단이 최근 공식 카오스토리를 통해 '건빵군'과 '별사탕양(사진)이라는 행사 캐릭터를 공개했다.</p> 	
<p>건빵군과 별사탕양</p>	<p>그림 그려보기</p>

【출처】 국방일보, 2013. 8. 26

- ▶ 국방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군인의 종류 및 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자.



1.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적어 보자.
2. 군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적어 보고,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 해 보자.



## 학생 활동지.2-1

# 병역이행의 숭고한 뜻(병역명문가 선정)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대한민국 나라지킴이 병역명문가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을 자랑스럽게 이행한 사람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찾아 포상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에게는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킨 자부심과 무한한 긍지를 심어주고 젊은이에게는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에는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다큐 영상 시청(영상 내용의 일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영형 가문은 1대 이학우 씨와 여섯 아들 네 명의 손자들까지 열한 명의 남자가족이 총 283개월 동안 병역을 이행하였고, 우수상 가문은 1대 유영필 씨와 다섯 아들 다섯 손자들까지 열한 명의 남자가족이 총 389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유경상 씨: 어려울 때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아버님도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수상 가문은 가족의 행복을 가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6·25 전쟁사상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백태고지!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했던 유영필 씨! 폭발의 충격으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그의 싸움은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유영필 씨: 아유 힘들었지요. 죽을 판인데 뭐, 힘 안들어…… 그때는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예요. 천명이어, 살아난거 보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김하권 가문은 1대 김하권 씨와 네 명의 아들, 여섯 손자들까지 열한 명의 남자가족이 총 659개월동안 병역을 이행하였고, 유용근 가문은 1대 유옥준 씨와 세 명의 아들, 여섯 손자들까지 열 명의 남자가족이 총 268개월 동안, 고승락 가문은 1대 고택선 씨와 네 명의 아들, 다섯 손자들까지 열 명의 남자가족이 총 303개월 동안, 남인식 가문은 1대 남상연 씨와 네 명의 아들, 네 명의 손자들까지 아홉 명의 남자가족이 총 252개월 동안, 심상호 가문은 1대 심은택 씨와 네 명의 아들, 여섯 손자들까지 열한 명의 남자가족이 총 488개월동안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였습니다. 대를 이은 나라사랑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이들, 병역명문가에게는 그 명예로운 전통만큼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심상기 씨: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직장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는건데…….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심상호가문의 소신은 1대 고(故) 심은택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맞서 크고 작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소대장 고(故) 심은택 씨! 처절한 싸움에 목숨을 내건 이유는 오로지 나라를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병역명문가([http://www.mma.go.kr/www\\_mma3/template/2013mma/movie/index.html](http://www.mma.go.kr/www_mma3/template/2013mma/movie/index.html))  
【출처】 병역명문가-다큐영상([http://www.mma.go.kr/www\\_mma3/template/2013mma/movie/index.html](http://www.mma.go.kr/www_mma3/template/2013mma/movie/index.html))



## 학생 활동지.2-2

# 병역이행의 숭고한 뜻(병역명문가 선정)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병역명문가'가 무엇이며, 이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병역명문가' 집안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적어 보자.
3. '병역명문가의 대상에 병역을 마친 남성만 포함되어야 한다.'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 ※참고 자료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시행 2013. 10. 04.] [병무청훈령 제1112호, 2013. 10. 04.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1>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10. 05. 04, 개정 '12. 11. 21, 단서신설 '12. 11. 21>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06. 10. 12, '08. 04. 16, '12. 11. 21>
3.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0. 05. 04, '12. 11. 21>
4.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학생 활동지.3-1

# 병역의무 위한 논란 여부 토론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반대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일정 연령의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이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11년에도 현재는 합헌이라고 하였지만, 당시에는 두 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남녀 사이엔 신체적 차이가 있고 신체적 능력에 따른 전투 적합성을 판단할 때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가 남녀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인간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격변의 시기를 거치고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에 규정돼 법률상의 의무처럼 돼 있지만, 실상은 헌법 제39조에 따른 헌법상 의무이다. 병역법은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신체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병역의 의무로 인한 희생이 크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는 아킬레스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기는 한창 공부에 열중해 인생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로 인해 3~4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경쟁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가 더욱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의 병역 의무 부과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의무복무를 마친다고 해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 실정에서 누구도 기꺼이 입대를 원하지 않는다.

현재의 결정은 너무 고정관념에 매몰된 결정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육탄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첨단 전자장비가 국방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보병의 수로 국방력을 평가하기 힘들다. 사관학교, 대학의 ROTC 등에서 이미 여성의 진출은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병력이 대치하는 전방과 달리 후방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무가 가능하다.

병역의 의무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라는 시대는 지났다.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 차별이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성별을 떠나 누구든지 적령기에 있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그들에게 상대적 상실감 내지 박탈감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도 안 된다. 현실

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전환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의무복무자들에게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따르는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지불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찬성

양성평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바뀌지 말아야 할 것도 적지 않다. 평등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같은 점은 같게, 다른 점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요청된다. 양성평등 역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취급돼야 할 점과 달리 취급돼야 할 점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실현돼야 한다. 어떤 점을 같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직업적 경력에 대한 평가 내지 그에 대한 대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병역의 문제는 적어도 아직은 남성과 여성을 획일적으로 같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활동의 대부분이 육체적 근력보다 정신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 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병역의 경우 획일적 규율에 따른 신체활동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담을 지고 있다. 헌법에서도 모성의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 부담이 군복무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물론 시기

의 조절과 병과의 배려 등으로 군복무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병역복무를 전제한 것이지 남성과 여성에게 병역복무 자체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셋째, 지원병제도를 채택한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무병제도다. 따라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남성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여성들까지 모두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관련 비용 증가 등 문제점들이 간단치 않다.

대부분의 반대 논거는 정확한 현실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여성의 병역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군사력 약화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다. 여성에 대해 군복무에 갈음하는 공익복무를 시키면 된다는 주장은 공익복무에 따른 기회비용을 경시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인정한 것은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노르웨이 군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와 적정 군인 수라는 측면에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 위반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런 점들에 근거한 것이다. 더욱이 군사력 약화 및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이를 주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현실이 또다시 달라지고, 무엇보다 군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군인의 역할 및 업무방식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이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적어도 현시점에선 아직 아니라고 본다.

【출처】 중앙일보, 2014.03.22



### 학생 활동지.3-2

## 병역의무 위한 논란 여부 토론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정리해 보자.

찬성	반대

2.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3.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와 비교해 보자.



# 22

## 체육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체육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10월 15일
관련 교육과정	• 고등학교 운동과 건강생활, 운동과 건강관리-건강 및 건강관리의 개념				
학습목표	• 체육의 날의 의미를 건강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지속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하여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훈화용 자료	• 체육의 날의 유래 • 체육의 날의 의의				
참고문헌 및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 국민생활체육회( <a href="http://www.sportal.or.kr">http://www.sportal.or.kr</a> )				

### ▶ 체육의 날의 유래

국민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의 범국민화, 나아가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15일이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는 체육주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1962년 9월 17일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법령1146호)되었고, 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마다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시행령을 통해 체육지도자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육계 학교 위탁 교육, 외국 체육계 시찰, 직장의 알선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장에 고용된 체육 지도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대표선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 지도자의 보호, 육성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상을 제정하여

매년 수여토록 했다.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제2장 제7조)라는 취지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등 각 단위별로 구체적인 체육 진흥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체육의 날의 의미

국민체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은 국민체육 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국민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의 범국민화, 나아가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학생 활동지.1 체육의 의미

➔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내가 생각하는 '체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적어보자.
2. 학교에서 배우는 체육 중에 가장 즐겁거나 재미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 이유를 친구들과 서로 말해 보자.

즐거웠던 체육 활동	선정 이유

3. 학교에서 활동했던 체육 이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고, 없다면 없는 이유를 적어 보자.

하고 싶은 체육 활동	없는 이유

4. 체육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보자.



## 학생 활동지.2 생활체육의 필요성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출처】 국민생활체육회(<http://www.sportal.or.kr>)

1.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료와 같은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왜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을 해야 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그 이유를 알아보자.
3.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p>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p>	<p>스포츠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외부의 자극(육체적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를 지속하는 시간은 약 2일(48 시간)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을 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논리가 아니다. 건강과 관련된 효과를 생각해 볼 때 3~4일의 운동이 투명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습관이 길러지면 운동 빈도수를 늘여도 좋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할 경우에는 페이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p>
<p>운동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동에 대한 의욕도 좋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운동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가벼운 운동 강도와 짧은 운동시간, 적당한 운동 빈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체력이 증가하면 점차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시간, 빈도를 늘려 가는 것이 좋다.</li> <li>2. 운동의 종류와 운동 형태는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성격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취향과 스케줄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를 조정하자. 무엇보다 자신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대여야 한다.</li> <li>3. 운동의 강도는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행해야 한다.</li> <li>4. 운동 상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운동에 적합한 신발과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여 불의의 상해에 대비해야 한다.</li> <li>5. 가능하다면, 자신이 즐기는 운동의 종류를 바꾸어가면서 한 가지 운동에서 오는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피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조깅, 테니스, 수영 등의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 운동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li> </ol>



23

# 문화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문화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10월 셋째 토요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화와 사회</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li> <li>• 문화 발전의 의미를 알고, 문화 발전을 위한 건전한 문화 소비자로서의 자세를 지닌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날의 유래</li> <li>• 문화의 날의 의미</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li> <li>•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화' 의 정의 재구성</li> <li>• 문화체육관광부(<a href="http://www.korea.kr/policyplus/">http://www.korea.kr/policyplus/</a>)</li> <li>• YTN뉴스 2014. 03. 02.(<a href="http://www.ytn.co.kr/">http://www.ytn.co.kr/</a>)</li> </ul>				

## ▶ 문화의 날의 유래

문화 창달의 기운 진작과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며, 국민의 문화향수권(文化享受權)을 신장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방송과 잡지와 영화 같은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벌이는 국가기념일이다. 매년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에 10월 셋째 토요일로 개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73년 '각종 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이 제정되어 여러 관련 기념일들을 통합해서 제정될 때 문화의 날도 제정되었다. 문화의 날은 그전까지 있었던 문화예술 관련 여러 기념일들을 흡수,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를테면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HL호출부호를 부여받은 1947년 10월 2일을 기념하

여 제정한 '방송의 날', 김도선의 '의리적 투구'가 처음 상영된 1919년 10월 27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영화의 날', 최남선의 『소년(少年)』이 창간된 1908년 11월 1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잡지의 날' 등이었다.

문화의 날을 10월 20일로 정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듯하다. 다만 문화의 날로 흡수, 통합되는 기념일들이 대부분 10월이며, 10월은 수확과 풍요의 계절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예부터 10월 상달에 제천 행사를 해온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린다는 정부의 짧은 설명만 있을 뿐이다. 이날은 기념식에 이어 정부에서 문화 발전 유공자를 포상하며 기념 공연과 강연회 같은 행사를 연다. 이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미술대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같은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를 문화의 달인 10월에 연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 1991

### ▶ 문화의 날의 의의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며,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이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 생활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학생 활동지.1-1 문화의 의미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1. 교양으로서 문화

19세기 매슈 아놀드(Mathew Arnold) 같은 사람들에 의해 대표되는 서구 문학비평에서 문화는 흔히 인간 사고와 표현의 뛰어난 정수라는 의미로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인'이라는 용어는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문화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런 문화 개념에 기초하여 오래 동안 비평가들은 최상의 작품을 찾는데 몰두해 왔고 문화란 뛰어난 것을 판별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 2. 진보로서 문화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문화는 문명(civilization)이란 개념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의 패러다임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적 관점과 관련된다. 서구 문화를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관이 그런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문화와 문명이 구분되기 시작하여 문화는 정신적 발전 상태를, 문명은 물질적 발전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된다. 문화와 문명을 사회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

### 3.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서 문화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신문의 문화면은 문학, 예술, 종교, 학문, 교육, 패션, 방

송, 영화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이는 신문의 다른 면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과 구분된다. 문화를 이렇게 인간의 정신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영역으로 정의하는 방식에는 문화를 물질적 생산이나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분리해 사고하는 관념이 깔려 있다.

### 4. 상징체계, 생활양식으로서 문화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흔히 문화를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지위,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러한 언어 규범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언어 규범에 따라 말을 할 때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담고 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따르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사회에서 의미질서, 혹은 상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 자체가 문화임을 알 수 있다. 문화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한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화'의 정의 재구성



## 학생 활동지.1-2 문화의 의미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자료 1을 읽기 전에, '문화'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

문화	문화				

2. 자료 1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의 의미를 정리하고, 자신이 1번 문항에서 응답한 문화의 개념이 주로 어떻게 분류되지는 생각해 보자.

3. 다음 헌법 제9조에서 '문화'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국가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자.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학생 활동지.2

# 나의 '문화가 있는 날' 구상하기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지역별로 개인이 소유한 일부 영상상영관은 미 참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korea.kr/policyplus/>)

1.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자.
2. 국가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을 활용하여, 나의 '문화의 날' 계획을 세워 보자.
  - 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문화를 누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 ② 누구와 어느 곳을 방문할 것인지 교통편, 비용,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 ③ 인터넷 검색 후, 학생인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평가해 보자. 실제로 문화생활을 하러 갈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④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학생 활동지.3

##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앵커] 일본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을 넘어섰는데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일본인들이 이제는 사투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동포가 선보인 부산 사투리 교재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자] 독특한 억양과 강세가 돋보이는 부산 사투리. 극의 중심 언어로 전개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속속 등장하면서 한류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한국 사투리에 관심 많은 일본인을 겨냥해 부산 사투리 교재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출간하자마자 아마존 등 온라인 서점의 한국어 학습 분야에서 10위 안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자] “정말 재미있어요. 드라마에서 들어봤고, 여행할 때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말이 ‘서울말과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시게노부 미와코)

[독자] “부산말은 일본말과 억양이 비슷해서 공부하기 쉬워요.”(요시무라 타케시)

[기자] 사투리 교재를 만든 사람은 부산 출신 동포 김세일 씨. 10년 전 일본으로 건너와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는 김 씨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사투리를 떠올렸습니다.

[저자] “주변에 오랫동안 한국어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이제 재미가 떨어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뭔가 어떤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김세일, 재일동포)

[기자] 무심코 사용하던 고향말을 정리하고 체계화 한 지 3년. 일본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사투리를 배울 수 있도록 고향 배우들까지 동원해 음성 드라마도 수록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출판사도 독자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후속 교재 출판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사투리로 만나는 또 다른 한국. 김 씨는 한류를 넘어 두 나라의 우정을 돕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관심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고 그런 관심들이 조금 더 마음으로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출처】 YTN뉴스 2014. 03. 02.(<http://www.ytn.co.kr/>)

1. 윗글에 어떠한 문화 요소가 나타나 있는지 적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2. 윗글에 나타난 사투리 교재가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3. 한류열풍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한 요소를 검색하여 보고, 이를 적어 보자.
4. ‘문화강국이 경제발전을 가져온다’ 라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24

# 경찰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경찰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10월 2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8) 일상생활과 법 (10) 헌법과 국가기관</li> <li>• 중학교 도덕 (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li> <li>• 고등학교 사회 (2) 공정성과 삶의 질</li> <li>• 고등학교 법과정치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5) 사회생활과 법</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날이 제정된 이유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민주사회에서의 경찰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li> <li>• 치안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는 경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날 유래와 의미</li> <li>• 경찰의 수의 변화와 계급별 인력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의미와 역할</li> <li>• 경찰의 심벌마크와 의미</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a href="http://theme.archives.go.kr">http://theme.archives.go.kr</a>)</li> <li>• 사이버 경찰청(<a href="http://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a>)</li> </ul>				

## ▶ 경찰의 날 유래와 의미

경찰의 날은 민주 경찰로서 사명감을 일깨우고 국민과 더욱 친근해지며,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 경찰의 임무를 재확인하고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로해 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경찰의 날은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 ‘국립 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 「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기념일에 포함되었다.

## ▶ 경찰의 의미와 역할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가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이라고 표현한다. 경찰에 속한 사람들을 경찰관 등으로 부른다.

경찰의 의미를 어원을 통해 찾아보면, 한문의 ‘警察’은 ‘警’(경계할 경)과 ‘察’(살필 창)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으로, 경계하고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어의 police는 그리스어의 polite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 활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 경찰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경찰은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 역할에 치우쳤으나 최근에는 범죄 검거는 물론이고 대민봉사, 교통안전, 범죄예방 캠페인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신 범죄수법 및 예방책, 그리고 생활 상식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학교와 청소년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학교폭력에 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홍수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피해복구를 돕고 아동지문등록을 실시하여 미아방지과 헤어진 가족상봉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을 통해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가·피해자학생 상담 및 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 경찰관 수의 변화와 계급별 인력구성(기준: 2013년 말)

### 1. 경찰관 및 1인당 담당인구 변화

구분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경찰관	90,819	95,336	101,108	101,239	102,386	105,357
1인당 담당인구	526	513	492	501	498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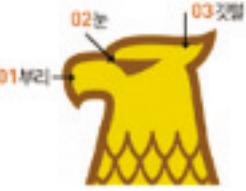
(단위: 명)

### 2. 경찰 계급별 인력구성

총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05,357	1	5	26	43	484	1,972	5,548	10,526	21,406	30,498	34,848

(단위: 명)

## ▶ 경찰의 심벌마크와 의미

심벌마크	의미
 <p>경찰심벌마크</p>	<p>경찰 60년을 맞아 새롭게 선정된 경찰심벌은 참수리(경찰)가 무궁화(국가와 국민)를 잡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동시에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한국으로서의 도약을 이끄는 기수가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p>
 <p>참수리</p>	<p>모습·형태에 위엄과 기품이 있는 참수리의 특성을 형상화하여, 부리모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강함, 용맹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눈은 크고 날카롭게 표현, 치안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경찰의 예리한 통찰력을 나타내었다. 머리위에는 깃털을 세워 언제나 날렵한 참수리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언제나 신속히 대응하는 경찰의 준비된 자세를 표현하였다.</p>
 <p>무궁화</p>	<p>무궁화 중심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는 무궁화의 꽃잎은 5장으로 각각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개념인 '충(忠)·신(信)·용(勇)·의(義)·인(仁)'을 의미한다.</p>

【출처】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



## 학생 활동지.1

# 경찰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경찰서 직원들의 선행미담 잇달아

자료 01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4분께 00면의 권 모 씨가 염소 2마리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파출소 박○○경사가 피해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권 씨에게 내용 및 현장 설명을 듣고 경찰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약 1시간 가량 주변을 수색한 결과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염소를 발견하고 권 씨에게 인계했다. 권 씨는 “경찰관의 관심과 지원으로 평소에 주민을 얼마나 따뜻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알 수 있었고 감동을 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경사는 경찰에서 농축산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강화는 하고 있지만 “도난을 예방하려면 먼저 농가 스스로 절도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오○○서장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치안 안정과 더불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찰 선행으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민생치안 서비스에 앞장서는 경찰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충북일보, 2014. 03. 20.

### 경찰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인가?

자료 02

내가 경찰에 들어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활동적인 면이 많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경찰의 업무도 여러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경찰 지망생 중에는 수사, 형사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막상 경찰업무 중에서도 수사, 형사 분야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충이 따르며 이외에 다른 경찰업무 또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도와줌으로써 느낄 수 있는 보람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출처】 <http://polinlove.tistory.com>

1. 자료 1, 2를 통해 경찰이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경찰이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경찰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자.



## 학생 활동지.2

# 경찰의 가슴 표장과 경찰 서비스 헌장

➡ 다음은 경찰의 가슴 표장과 경찰 서비스 헌장의 내용이다.

### 경찰의 가슴 표장

자료 01



가슴 표장은 전체 형태는 마패 모양으로 태양과 달을 뜻하는 두 개의 원을 겹치게 만들었으며, 태양을 뜻하는 앞쪽의 원에는 한가운데에 태극을 배치하고 주위를 태극 5개로 둘러싸 무궁화를 형상화하며, 달을 뜻하는 뒤쪽 원 윗부분에는 부채모양 '경찰'을 표기, 그 밑에는 'POLICE'를 표기하였다.

### 경찰 서비스 헌장

자료 02

1.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5.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1. 자료 1의 경찰 가슴 표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을 정리해 보자.
2. 자료 2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3. 자료 1, 2를 바탕으로 민주 사회에서 경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해 보자.

# 25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국가기념일



항목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11월 3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역사, 민족운동의 전개</li> <li>• 고등학교 한국사,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의미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li> <li>•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올바른 학생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유래</li> <li>•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a href="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a>)</li> <li>• 광주드림, 2014. 02. 12</li> <li>• 광주뉴시스, 2011,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li> </ul>				

### ▶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유래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3일이다. 1953년 국회는 1929년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일인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1972년 10월 유신 직후인 1973년 3월 30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폐지되었다. 이후 1984년 9월 22일 국가기념일로서 '학생의 날'이 다시 부활되었고, 2006년 2월 9일 '학생 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의미

1929년 10월 30일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사이에 집단 싸움이 벌어졌다. 광주중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광주보고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항의하다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양쪽 학생들이 일제히 가세하여 큰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일제의 수탈과 멸시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라났던 한국인 학생들과 일제 식민 권력의 우산아래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일본인 학생 사이에는 항시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있었으며 이것이 쌓여 결국 폭발한 것이 1929년 11월 3일이다. 11월 3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날 광주역 앞에서 한일 학생들 사이에 큰 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일제가 10일 간의 휴교령을 내렸던 것에 기인한다. 일제식민지정책에 항거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이 기념일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로 젊은이들이 불의에 대항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운 날이다.



## 학생 활동지.1

#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생 원인과 그 의의

▶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KTV]대한민국을 기념하다, '꺼지지 않는 불꽃, 광주학생항일운동' (2013.11.3.방영) - 약 40분

### 1. 발생 배경 및 경과 과정

광주학생항일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하오, 나주역 표 사는 곳을 벗어난 한국과 일본 기차 통학생들의 충돌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일단의 일본인 광주 중학생 후쿠다 등 여러 명이 같은 기차 통학생이던 광주여고보 3학년인 박기옥, 이금자, 이광훈 등의 덩기머리를 잡아 덩기면서 '센 징 우웅' 이라고 조롱하며 모욕적인 장난을 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인 광주고보 2학년 박준채와 후쿠다의 난투극이 벌어졌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난투극으로 확산되었다. 곧바로 일본인 경찰이 달려와 한국 학생들을 구타하고 편파적으로 이 싸움은 해산되었으나,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하였다. 명치절 기념일(일제의 4대 명절의 하나),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학생 수십 명과 일본인 학생들간 난투극이 발생하였고, 경찰은 4일 오후부터 11일까지 70여 명 학생이 구속되고 그 중 62명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일제는 즉각 보도통제를 실시하는 등 언론보도를 금지시켰고, 학생들의 시위는 목포, 나주 등 인근지역은 물론 서울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 2. 역사적 의의

일제 하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은 학생층이 식민지하 독립운동 중추세력의 하나였음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1920년대 신간회운동을 비롯하여 노동, 농민 운동 등이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 속에서 전체 민족해방운동을 다시 한번 고양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은 1929년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1930년대 춘천고보의 상록회운동, 대구사범, 부산제2상업학교의 독립운동, 대구상업학교의 태극단운동, 제2차 광주학생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주동자들은 이후 청년, 노동, 농민운동 등을 통하여 1930년대 식민지하 민족해방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출처]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

1. 영상을 시청한 후, 학생독립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찾아 적어보자.
2. 영상을 시청한 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발표해 보자.  
(영상 시청이 어렵다면 참고 자료를 읽고 답해보자.)
3.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이후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찾아 적어보자.



## 학생 활동지.2

# 명예 졸업장 만들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광주학생항일운동 참가 학생에 대한 명예 졸업장

일제강점기 식민지 노예교육 거부와 민족해방을 위해 동맹 휴교 투쟁을 주도하다 당시 광주고보(현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고(故) 허창두 씨가 84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12일 광주제일고는 허창두 씨의 아들 허경민 씨에게 대신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1928년 4월, 항일 불온(不穩)전단을 인쇄해 전파했다는 이유로 광주고보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경채 학생이 구속된 것이 기폭제가 돼 1928년 6월26일부터 10월까지 광주고보 2~5학년 전 학생은 동맹 휴학을 단행했었다. 이들은 학교 당국에 “한국인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며 한국어 시간을 증설하고, 도서관에 한국 서적과 한국 신문을 비치하라”고 주장하며 식민지 노예 교육을 거부하고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요구했다. 5개월에 걸쳐 학생, 학부모, 졸업생이 합세해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일제 당국의 폭압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 대맹휴 사건으로 광주고보 학생 15명이 실형(實刑)을 선고받았으며 39명이 주모자로 퇴학을 당했다. 휴학 투쟁을 주도했던 5학년 허창두 학생도 퇴학을 당했다. 그는 본래 제주도에서 광주고보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으며 퇴학을 당한 후에는 일본 오사카(大阪)로 이주해 연락이 두절됐다.

해방 이후 1949년부터 광주제일고는 학생독립운동 유공자에게 명예졸업장 수여했으나 허창두 씨에게는 연락을 취할 길이 없었다. 작년 3월, 허창두 씨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던 광주일고 및 동문들에게 현재 일본 오사카(大阪)에 거주하고 있는 허창두 씨의 아들 허경민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번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게 됐다.

【출처】 광주드림, 2014. 02. 12.

1. 위 글을 읽고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주도한 이유를 정리해 보자.
2. 학생들의 휴학 투쟁 행위에 대한 느낀 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3. 내가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내용으로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것인지 명예졸업장 문구(文句)를 만들어 보자.



### 학생 활동지.3

##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 계획하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일제강점기 전국 학생들의 항일운동 계기가 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하나로 뭉쳤다. ... (중략) ...

페스티벌을 주최한 청소년단체들은 1920년 11월 3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주체적인 독립을 꿈꾸고자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정신적인 독립을 꿈꾸고자 '2011 광주청소년독립선언문'을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직접 제작해 보고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세부행사로는 ▲광주YWCA 문화기획단 '우리말 골든벨 퀴즈', ▲동일전자정보고 '네일아트 시연', ▲광주YMCA 청소년 문화기획단 '테이블 마술 시연', ▲홍사단 청소년연구원 '나잘난 먹거리마차', ▲청소년의 요구사항을 말하다 '나는 바란다!', ▲청소년들의 희망 메시지 '희망 타일 만들기', ▲2011 빛고을청소년문화존 '동아리 축제' 등이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청소년단체와 동아리들의 첫 연합 행사인 만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년 행사를 열어 과거 독립을 꿈꾸던 선배들의 기상을 이어받고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 청소년들의 시대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광주뉴스, 2011,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

1.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발생했던 광주에서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2. 위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 '2014 청소년독립선언문'을 작성해 보자. (단, 청소년독립선언문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청소년의 독립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독립성과 주체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희망 사항을 반영한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 어느 학교 학생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다"  
  - 청소년들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라.
  -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 달라.
  - 청소년들을 학교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진학을 방해 말라.
  - 국가는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라.
  - 우리에게도 청소년 투표권을 달라 등 주로 청소년 권리의 보장과 확대를 촉구했다.



26

# 소비자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소비자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12월 3일
관련 교육과정	• 고등학교 법과 정치, V. 사회생활과 법, 소비자의 권리와 법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날의 의미를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li> <li>•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li> <li>• 소비자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날 유래</li> <li>• 소비자의 날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교육 - 교육자료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교사용 부교재) 재구성</li> <li>• 뉴시스, 2013. 12. 20</li> </ul>				

## ▶ 소비자의 날 유래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이다. 현재 소비자의 날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의 날 행사가 열린다. 소비자의 날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한데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이 날을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 보호법(현 소비자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1982년부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6년 5월 30일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소비자 보호의 날’이 지정되었고, 2000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17006호로 ‘소비자 보호의 날’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소비자의 날 의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날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소비자의 책무를 인식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의 향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비자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학생 활동지.1-1 소비자지수 퀴즈

➡ 소비자 관련 용어와 그 설명을 알맞게 이어보자.(학생 활동지 1-2 자료 참고)

①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	스마트 컨슈머
② 소비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제도입니다.	◎	리콜 제도
③ 공산품을 시험, 검사해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소비자의 권리       </div>
④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고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	안전 인증
⑤ 소비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의 책임
⑥ 제품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정답

① 소비자의 권리, ② 리콜 제도, ③ 안전 인증, ④ 스마트 컨슈머, ⑤ 소비자 책임, ⑥ 사용상 주의사항

【출처】 한국소비자원-소비자교육-교육자료-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교사용 부교재) 재구성



## 학생 활동지.1-2

# 소비자지수 퀴즈(자료)

### 1. KC마크(안전인증표시)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13개 의무인증마크가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 인증마크

- 2회 KC마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9098880>)

### 2. 소비자의 권리(소비자기본법 제4조)

- 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②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③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⑤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3. 소비자의 책무(소비자기본법 제5조)

-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4. 리콜제도와 사례

리콜제도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결함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 ①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계란', '땅콩' 이 봉지에 표시되지 않은 땅콩과자
- ② 사용 중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스팀청소기
- ③ 운행 중 엔진 멈춤 발생 가능성이 발견된 자동차



## 학생 활동지.1-3 소비자지수 퀴즈

- ➔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추론해 보고, 법 조문(소비자기본법 4조 및 5조)에서 확인해 보자.



①



②



③



④

※정답

- ①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②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③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④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학생 활동지.2

# 스마트 컨슈머 활동

- ▶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음 활동을 짝과 함께 혹은 모둠별로 진행해 보자.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진행할 수 있음.)



- ▶ 모둠별 활동

문제 1. 자신(혹은 모둠)이 사고 싶은 물건의 품목과 브랜드를 적어보자.	품목(종류)	브랜드
문제 2. 문제 1의 답에 대한 이유를 적어보자.	가격	
	기능	
	기타	
문제 3. 자신(혹은 모둠)이 사고 싶은 물건을 다른 물건과 비교해 보자.	가격	
	기능	
	추천 여부/기타	
문제 4. 자신(혹은 모둠)은 실제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겠는가? (의사결정 품목과 그 이유)		



## 학생 활동지.3-1 소비자로서의 미성년자

➔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자료 01

박00(남, 만 17세)는 무료로 영화 등을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으로 신청을 해두었는데 추후 소액 결제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입금되지 않고 있다.

- 내가 만약 박 군이라면 박 군의 경험 및 불만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 판매자 및 제조자에게 불만 처리 요구를 한다.
  - 소비자 상담센터에 불만 처리 의뢰를 한다.
  - 주변 사람에게 불평을 한다.
  - 혼자 참고 넘어간다.
- 박 군의 경우 해당 업체에 불만 처리 요구 및 소비자 상담센터에 불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아는 방법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 자료 2를 참고하여 박군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정리한 후 발표해 보자.

### 미성년자 소비자관련 제도 ①~②

자료 02

- 미성년자: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 미성년자의 계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함.
  -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 물건을 구입했다면, 현대 상태로 반품이 가능함.
  - 단,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용돈으로 물품 구입
  -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허락받아 물품 구입, 판매
  -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사법상/계약)
  - 대리행위: 부모님을 대리하여 한 심부름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



## 학생 활동지.3-2 소비자로서의 미성년자

### 미성년자 소비자관련 제도 ③~⑤

자료 03

#### ③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해결 방법

미성년자는 민법 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취소 가능 → 물품 사용 의사가 없음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알림 → 물품 반품(택배송장 보관)

#### ④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기간이내라면 해결이 더욱 용이함.

#### ⑤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

된다.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용지를 준비한다.
- 2) 받는 사람이라고 적고, 회사이름 · 주소 · 전화를 적는다.
- 3) 보내는 사람이라고 적고, 자기이름 · 집주소 · 전화번호를 적는다.
- 4) 육하원칙에 맞춰 물품을 구입했으나 부모의 동의가 없어 취소 및 반품할 것이라고 적는다.
- 5) 2부를 복사하고, 우체국으로 간다.
- 6)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고 하고, 3부를 모두 제출한다.
- 7)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사업자에게, 1부는 본인이 갖는다.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양식」
<p>수신 1 : ○○ 사 대표 귀하 서울시 ○○ 구 ○○ 동 ○○ 번지</p> <p>수신 2 : ○○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 구 ○○ 동 ○○ 번지</p> <p>수신 3 : ○○ 월세대행업체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 구 ○○ 동 ○○ 번지</p> <p>발송인 :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 번지 홍길동</p> <p>1. 상품명 : 2. 계약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금액 : 5. 진회번호 : 6. 내용 (아래의 내용을 포함 기록하되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홍보하는 사유 : 다. 기타 내용 :</p> <p style="text-align: right;">홍길동 (인)</p>	<p>한국소비자원</p> <p>↓</p> <p>피해구제</p> <p>↓</p> <p>피해구제정보</p> <p>↓</p> <p>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p>



## 학생 활동지.3-3 소비자로서의 미성년자

### 미성년자 소비자관련 제도 ⑥~⑨

자료 04

#### ⑥ 청약철회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등 특수한 거래 분야에만 적용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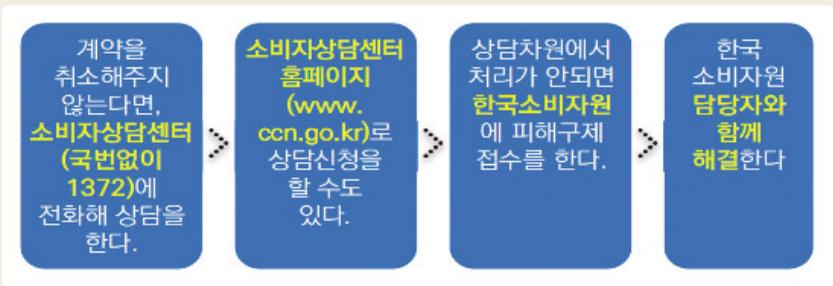
※철회가능기간

-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4일
- 2) 전자상거래: 7일(계약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⑦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 체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즉, 사업자가 해당 계약 건에 대해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⑧ 휴대폰 소액결제 경우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의 연락처를 파악(사이트운영 사업자 및 소액결제 사업자)

⑨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말 것, 물건 구매 의사를 밝힐 경우 취소 방법을 반드시 확인 할 것, 계약 조건 및 약관을 살필 것.



### 학생 활동지.3-4

## 소비자로서의 미성년자

4.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에 질의한 소비자의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보자.

문의 내용	<p>지난달 어느 일요일 집에 있던 중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영어팝송 CD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호기심에 몇 개를 열어 틀어 보다가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비록 미성년자 이기는 하나 CD를 이미 개봉해서 취소가 안 되며 취소하려는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p>
질문	<p>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때 취소 이유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2. CD를 개봉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p>
답변	<p> </p>

답변	<p>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철회권의 경우에는 날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하였을 때는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취소를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며 취소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p>
----	--



## 학생 활동지.4

# 올바른 소비자의 태도

▶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부산경찰, 악질 블랙컨슈머 구속

유명 전자제품 회사의 서비스센터 곳곳에서 구매 제품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봤다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돈을 받아 챙긴 30대 블랙컨슈머(악덕소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0일 전자제품을 고의로 고장을 낸 뒤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환불하거나 보상을 받은 블랙컨슈머 A(31)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4월 18일 부산 동래구의 모 전자회사 서비스센터에서 타인 명의의 중고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 중 열이 난다"며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직원을 협박해 97만 원 상당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 및 양산시 일대 유명 전자회사 서비스센터 8곳에서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봤다며 총 68회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수법으로 8,200만 원 상당을 환불받거나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빡빡이'로 통하며 수년 동안 악명을 떨쳤다. 경찰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을 양도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는 민원평가를 우려한 직원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2013. 12. 20.

1. 블랙컨슈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A씨가 구속된 이유를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발표해 보자.

# 27

## 무역의 날 / 국가기념일



항목	무역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12월 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글로벌 경제와 지역변화 /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li> <li>• 고등학교 경제,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무역의 원리 및 무역 정책</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의 날의 의미를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li> <li>• 무역 발생의 원리와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무역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의 날 유래</li> <li>• 무역의 날 의의</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협회(<a href="http://www.kita.net">www.kita.net</a>)</li> <li>• 산업통상자원부, 2013. 12. 05</li> <li>• 한국 무역 50년의 여정과 위상(<a href="http://tv.kita.net/main">http://tv.kita.net/main</a>), 2014. 01. 08.</li> <li>• 한국아이닷컴(<a href="http://www.hankooki.com">http://www.hankooki.com</a>), 2013. 12. 13.</li> <li>• 아시아경제(<a href="http://www.asiae.co.kr">www.asiae.co.kr</a>), 2012. 04. 05.</li> </ul>				

### ▶ 무역의 날의 유래

무역의 날은 12월 5일로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1964년 11월 30일,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하여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1973년 3월 30일 '중소기업의 날' (5월 1일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족한 기념일)과 '상공인의 날' (10월 31일 - 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일)을 흡수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수출의 날'로 지정되었다.(1973.3.30 대통령령 제 6615호) 1977년에는 수출 100억불 달성에 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1981년에는 200억불 달성 기념식을 수출의 날에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1989년 수출과 수입의 모두의 중요성 그리고 이 둘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칭이

‘무역의 날’로 변경되었다. (1989. 12. 30 대통령령 제 12876호) 또한 1995년에는 수출 1,000억불 달성 기념 행사를, 2005년에는 무역 5,000억불 달성 기념 행사를 각각 거행하였다.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무역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금탑·은탑·동탑 산업훈장과 각종 표창을 수여하고,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탑이 수여된다. 그리고 무역의 날 전후 한 주일을 무역주간으로 지정해 행사가 개최되기도 한다.

### ▶ 무역의 날의 의의

무역의 날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통해 초창기 수출입국의 길을 개척했던 무역업계와 관련 기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신시장 개척과 수출 실적으로 경제 발전에 공이 큰 기업과 대표자에게 포상을 하며 행사를 진행한다.



## 학생 활동지.1 무역의 의미

▶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1. '무역'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보자.
2. 여러분이 적은 단어를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3.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잘 듣고, 정리해 보자.
4.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무역'을 하고 있지 않은 가상 국가의 대통령에게 무역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써보자.

To. 대통령님께

- 
- ※무역(貿易):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
  - ※수출: 상품을 해외로 내다 파는 것
  - ※수입: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오는 것



## 학생 활동지.2-1

# 우리나라의 무역의 강점과 약점 파악

➔ [표 1]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무역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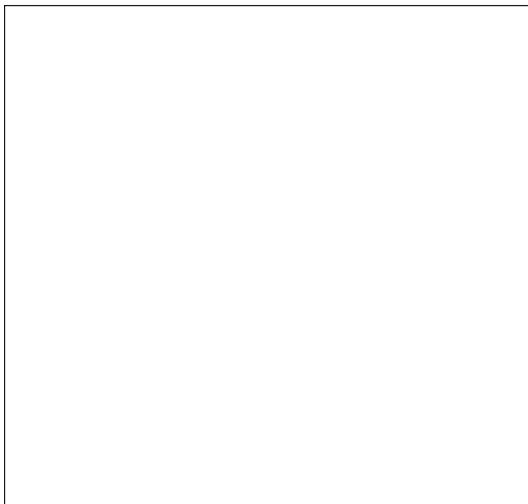
[표 1]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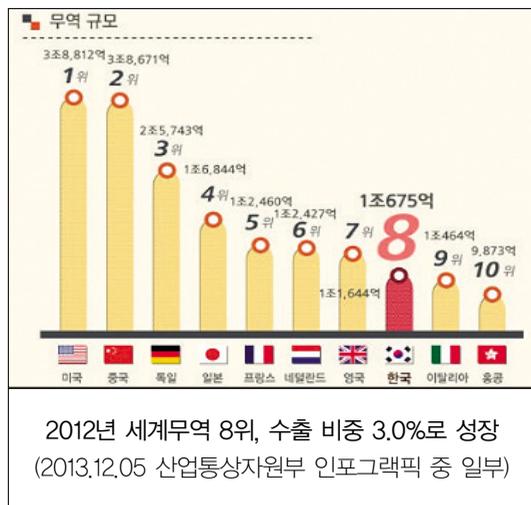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990	65,016	4.2	69,844	13.6
2000	172,268	19.9	160,481	34.0
2010	466,384	28.3	425,212	31.6
2011	555,214	19.0	524,413	23.3
2012	547,870	-1.3	519,584	-0.9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인포그래픽



[자료 1] 인포그래픽 예시



※인포그래픽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 또는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은 많은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 학생 활동지.2-2

# 우리나라의 무역의 강점과 약점 파악

- ▶ 자료를 보고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무역에 대하여 SWOT분석을 실시해 보자.

[자료 2] 관련 영상 : 한국무역협회 - 무역TV - 트레이드포커스

우리나라 내적요소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p>SWOT분석이란?</p> <p>'2013년 현재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을 통하여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적 요소로서 지닌 강점과 약점을 쓰고, 외적 요소로서 기회와 위협으로 현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다.</p>
	기회(Opportunity) →	위기(Threats) →	
우리나라 외적요소			

【출처】 2014.01.08 한국 무역 50년의 여정과 위상(<http://tv.kita.net/main/list.asp?mode=cate&cate=tradefocus>)



## 학생 활동지.2-3

# 우리나라의 무역의 강점과 약점 파악

[자료 3] 가발, 속눈썹에서 자동차, 스마트폰까지…… 무역 반세기, 한국 위상 달라졌다

달라진 위상의 한국무역
<p>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1964년이였다. 이후 무역규모 100억 달러를 올린 1974년까지 무려 40%가 넘는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평균적으로 19.2%에 달하는 성장을 거듭해왔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0.2%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성과다. 현재 수출규모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중 지난 50년간 가장 빠른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우리나라다. 빠른 성장세에 걸맞게 전 세계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늘어났다. 1964년 159개국 중 90위였던 한국 수출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7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0.07% 수준에 불과했던 전 세계 수출 비중도 현재 3%까지 상승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전 세계 149개국 중 26개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3%를 초과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베트남의 경우 2011년 기준 수입물품의 12.34%를 우리나라 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 또한 9.33%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한국의 점유율이 2% 이상 3% 미만인 국가도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미국 등 19개국이나 된다.</p>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활약
<p>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IT버블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도 무역을 통해 극복해왔다.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1,161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외채규모를 기록했음에도 외환보유액은 88억 7,000만 달러까지 하락,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후 수출 증대 및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IMF외환위기 당시 바닥을 보였던 외환보유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3,561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에 올라 있다. 2001년 찾아온 IT버블붕괴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적으로 거품처럼 부풀어졌던 IT관련 기업의 주가가 일시에 폭락,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파산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는 개도국에 대한 수입수요 공략 등 수출의 선방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p>
지속가능한 성장 고려해야
<p>그렇다면 우리나라 무역의 단점은 무엇일까. 국제무역학회에서는 ①제조업 중심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고 ②소수의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데다 ③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p> <p>실제로 대기업 수출액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출의 50% 이상이 상위 6대 품목(석유제품,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과 4대 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EU) 등에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p> <p>이에 한국무역협회 측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적 발전 또한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출처】 한국아이닷컴(<http://www.hankooki.com>), 2013. 12. 13.



### 학생 활동지.3-1

## 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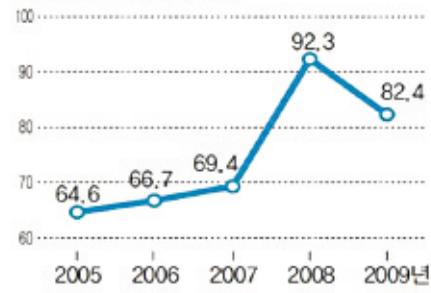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무역의존도 100% 육박’이 주는 경고

무역의존도가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1164억달러, 수입과 수출을 더한 무역액은 1조823억달러였다. 따라서 GDP 대비 무역액의 비율인 무역의존도가 97%에 이르러 종전 최고치인 2008년의 92%를 뛰어넘었다. 2009년 미국발(發)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화되면서 82%로 낮아졌다가 그 뒤로 다시 올라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 경제의 규모와 위상에 비추어 97%의 무역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큰 나라 중에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20% 전후, 중국은 40%대, 독일은 60%대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도 1980년대 초에는 30%대였는데 그 뒤로 빠르게 상승했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50%대, 노무현 정부 때는 60%대였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90%대로 경총 뛰었다.

무역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국가 경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세계 경제 상황이 순조롭고 우리의 무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때는 높은 무역의존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세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악화하는 경우에는 정반대다. 높은 무역의존도는 해외 불황이나 위기의 영향력을 증폭시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급등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는 경제활동의 축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내수 부문에서 수출 부문으로 더욱 쏠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해외 변수에 더 쉽게 흔들리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 100%에 바짝 다가선 무역의존도를 급박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발 충격 흡수 여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적절한 무역의존도는 60% 정도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내수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무역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학생 활동지.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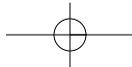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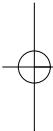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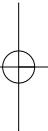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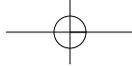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

1. 무역의존도의 개념을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아 정리해 보자.
2. '세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악화하는 경우에는 정반대다.'가 의미하는 바를 다음의 핵심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해 보자.

포함해야 할 개념: 국내 기업의 투자, 고용, 국민 총소득

과도한 무역 의존도 → 세계 경제 상황 불투명 →

3.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자.





각종 기념일 등 이해교육 지도서

# 01

## 입춘/절기



항목	입춘(立春)	영역	절기	시기	2월 4일 또는 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입춘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입춘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춘의 유래와 의미</li> <li>• 입춘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영미·전병길(2008). "우리나라 절기음식의 대중화 및 세계화 방안". 『한국외식산업학회지』, 4(1).</li> <li>• 김승찬(2004). "입춘".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매순(1819). 『열량세시기』. 이석호 역(1991). 『조선세시기』. 동문선.</li> <li>• 한국학중앙연구원(2014). "입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7702&amp;cid=1645&amp;categoryId=1645">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7702&amp;cid=1645&amp;categoryId=1645</a> (2014.1.17)</li> </ul>				

### ▶입춘의 유래와 의미

입춘은 봄의 절기 중 그 시작이다. 24절기를 4계절로 보자면, 봄의 절기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가 있다. 입춘은 양력으로 보자면, 2월 4일 혹은 2월 5일에 해당한다. 입춘은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려는 시기이다. 하늘의 상태와 바람에서 봄의 기운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의 경우, 추위가 아직은 매섭기도 하기에 입춘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는 경우도 있다.

### ▶입춘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입춘에는 한 해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대문이나 집 안 기둥에 '입춘

대길(立春大吉)이라는 글씨를 써 붙이기도 한다. 봄의 시작과 더불어 한 해의 새로움을 시작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입춘은 추운 겨울이 가고 만물의 약동이 시작하려는 계절을 암시한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 때 절기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탕평채, 승검초(당귀의 싹) 산적, 죽순 나물, 죽순찜, 달래 나물, 달래장, 냉이 나물, 산갓 김치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다섯 가지 햇나물(옻과, 산갓, 당귀싹, 미나리싹, 무싹)을 생채로 만든 음식인 오신반(五辛盤)을 만들었다. 오신반은 궁중에 진상하기도 하고, 민가에서 서로 주고받기도 하여 진산채라고도 한다(권영미·전병길, 2008).

입춘과 관련된 구비전승으로 “입춘 추위는 꺾다 해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김승찬, 2004: 284). 이 말은 입춘 무렵에는 꼭 추위가 있다는 뜻이다. 입춘이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은 겨울이고 마음을 놓지 말라는 암시라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입춘이라는 말에서 이미 계절의 변화를 확인한다.

한편, 입춘은 농사의 기준이 되는 24절기 중 그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농사점을 보았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보리뿌리를 뽑아 보고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예상하는 점보기인데,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이 점이 잘 나와 있다(이석호 역, 1991: 140).

“농가에서는 입춘날에 보리 뿌리를 캐어 그 해의 흉풍(凶豊)을 점친다. 그 보리 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이고,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이렇게 입춘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계절의 전환점으로 인식되면서 일상생활에 매우 밀착되어 있다.

# 02

## 우수 / 절기



항목	우수(雨水)	영역	절기	시기	2월 18일 또는 19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우수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우수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의 유래와 의미</li> <li>• 우수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 사상사.</li> <li>• 김명자(2004). "우수".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이창희(2004). "정월".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최래옥(2004).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우수의 유래와 의미

입춘날로부터 15일 정도 지나면 우수이다. 우수는 2월 18일 또는 19일 무렵으로 눈 대신에 비가 내려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는 때이다.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트려는 시절이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얼음이 녹아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김명자, 2004). 요컨대, 우수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이행 과정을 자연의 모습 변화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 우수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다. 대동강은 우리나라의 북쪽 평양에 있는 강

이고, 이 강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은 위도상의 위치로 보면, 한반도에서 봄이 늦게 온다. 그런데, 북부 지방의 얼음도 녹는 시기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전역에 봄기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최래옥, 2004).

그리하여, 우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눈에 자연 생태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는다. 이맘때의 상황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기도 했다. 우수 때를 삼후(三後)로 나누어 초후에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중후에는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말후에는 풀과 나무에 싹이 튼다고 했다(이창희, 2004, 김영조, 2012: 85). 요컨대, 우수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봄의 시작을 자연의 모습에서 확인하는 시기인 셈이다.

우수 무렵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지만, 추위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다. 꽃샘추위라고 해서 계절의 변화를 시샘하는 추위가 오기도 한다. 겨울 추위가 선뜻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며, “꽃샘, 잎샘 추위에 반늪은이(설늪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김영조, 2012: 86).

# 03

## 경칩/절기



항목	경칩(驚蟄)	영역	절기	시기	3월 5일 또는 6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경칩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경칩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칩의 유래와 의미</li> <li>• 경칩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효경(2005a). "경칩".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효경(2005b). "개구리알먹기".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서효숙(2005). "고로쇠물마시기".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유만공 저, 임기중 역(1997).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li> <li>• 이찬욱(2005). "보리싹집".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하효길(2005). "2월".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경칩의 유래와 의미

경칩은 양력으로 3월 5일 또는 6일이다.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그 밖의 동물들, 특히 파충류들이 봄이 온 것을 깨닫고 놀란 듯이 땅위로 튀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하효길, 2005). 이러한 표현은 만물이 긴긴 겨울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경칩이 되어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같은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경칩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유만공의 세시풍요를 보면 이 시기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임기중 역, 1993: 136).

“익익한 닭소리와 애애한 날빛에,

이미 경칩이 지났으니 벌레가 꿈틀거린다.  
 봄 추위는 응당 텅텅한 기운이 없으니,  
 어찌 굳은 얼음으로 향아리 터지는 추위가 있겠느냐.”

### ▶ 경칩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농사일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경칩이후에는 불을 놓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활동을 시작한 생명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이다(김효경, 2005a). 또한 우리 조상들은 경칩이 되면 봄기운이 완연하기 때문에 흙일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집안의 벽을 바르거나 담을 고치기도 하였다(하효길, 2005).

경칩 때의 생활 풍속으로 ‘개구리알먹기’와 ‘고로쇠물마시기’가 있다. ‘개구리알먹기’는 ‘경칩 무렵이면 동면한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여 건져 먹는 풍속’이다(김효경, 2005b). 이 풍속은 만물의 생기를 담고 있는 생명의 정기를 섭취하는 것이기에 경칩의 의미와 통한다. 한편, ‘개구리알먹기’와 유사한 풍속으로 ‘고로쇠물마시기’가 있다. 이 풍속 역시 경칩이 되어서 생명력이 약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이 시기에 채취하여 마신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효경, 2005a).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며 지리산 아래 해발 1,0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분포하며, 수액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알려져 있다(서해숙, 2005). 한편, 경칩 무렵이면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데, ‘보리싹집’ 보기도 행해진다. 이것은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싹의 성장 상태를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농점(農占)이다(이찬욱, 2005).

# 04

## 춘분/절기



항목	춘분(春分)	영역	절기	시기	3월 20일 또는 2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춘분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춘분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분의 유래와 의미</li> <li>• 춘분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민속원.</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김승찬(2005). "춘분". 『한국세시풍속사전 - 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임동권(1989).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li> <li>• 하효길(2005). "2월". 『한국세시풍속사전 - 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춘분의 유래와 의미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0일 또는 21일이며, 경칩과 청명 사이이다. 춘분은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며 봄의 중앙이 되는 날'이며, 이 시기가 되면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오고, 그 해 처음으로 번개가 친다고 하였다(하효길, 2005). 춘분은 태양이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교차하는 점, 춘분점에 도달할 때이다.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어, 양(陽)이 정동(正東)에 음(陰)이 정서(正西)에 있다(김승찬, 2005). 김상현의 시 '춘분일의 감회에 차운한다' 를 보면 이 시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309).

“절기가 유유히 지나 제비가 날아오니,

고향에 돌아가기를 남몰래 재촉하네.  
 청명과 한식도 강남길에 있으니,  
 수많은 복사꽃이 나를 기다려 피려고 하네.”

### ▶ 춘분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춘분은 본격적인 농사활동으로 씨뿌리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목화, 기장, 봄보리 등이 이 시기에 파종된다. 춘분 전에 관찰사나 군수가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백성의 노역을 빼앗지 않으려는 의도였다(임동권, 1989: 176). 이것으로 보아 춘분 때는 매우 중요한 농사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 춘분의 날씨는 그 해 농사의 풍흉(豐凶)과 수한(水旱)을 점치는 대상이었다(김승찬, 2005). 예컨대,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고, 이날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또한 해 뜰 무렵 정동(正東) 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 풍년의 조짐이며,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고 했다.

춘분은 농사일이 본격화되는 시절인 동시에 좋지 않은 일을 춘분 전에 마무리하려는 의식도 강했다. 즉, 조상들은 춘분을 새로운 1년의 출발로 보고 죄인의 사형처럼 좋지 않은 일을 춘분 전에 끝내려고 했다(김영조, 2012: 134).

# 05

## 청명 / 절기



항목	청명(淸明)	영역	절기	시기	4월 4일 또는 5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청명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청명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명의 유래와 의미</li> <li>• 청명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기형(2005).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 물관.</li> <li>• 김상보(2005). "청명주담그기".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지옥(2005). "청명".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인권한(2005). "3월".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최대림 역(1989). 『동국세시기』. 흥신문화사.</li> </ul>				

### ▶ 청명의 유래와 의미

청명은 양력으로 4월 4일 또는 5일이며, 춘분과 곡우 사이이다.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이다(김지옥, 2005). 청명 때의 삼라만상 모습은 아래의 세시풍요를 보면 잘 나타난다(임기중 역, 1993: 149).

“울타리 바깥 봄 미나리는 푸른 줄기가 연하고,  
 담 아래 뽕나무 잎은 작은 싹이 돌아난다.  
 시골 아가씨가 청명절을 알고서,  
 종이에 가득한 누에 새끼가 처음 생겨나는 것을 본다.”

## ▶ 청명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청명은 한식 때와 거의 일치하기에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란 속담이 있기도 하다(인권한, 2005). 청명 때에 와서 가래질과 같은 농사일이 시작되는데, 『동국세시기』를 보면, 청명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최대림 역, 1989: 68).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불을 일으켜 각 관청에 나누어 준다. 이것은 곧 <주례>에 의거하여 당(唐)과 송(宋)나라에서 각 관청에 불을 나누어 주던, 예부터 전해오는 제도를 본떠서 하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이날부터 봄갈이(春耕)가 시작된다.”

청명은 양력으로 4월 5일경이며, 요즈음 식목일에 해당한다. 청명에 나무 심는 풍속은 예전부터 있었다. 아이가 혼인을 할 때 농을 만들어 줄 재목감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을 ‘내나무’라고 한다(김지옥, 2005). 한편,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는 말이 있다. 즉, 생명력이 다한 나무를 꽃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며, 이 시기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란다는 함축이 있다(김기형, 2005). 또한 청명에는 ‘청명주담그기’ 풍속이 있으며, 일명 춘주(春酒)라고도 한다. 청명 때 구한 맑은 물로 술을 만들면 맛과 색이 좋다고 하였다(김상보, 2005).

# 06

## 곡우 / 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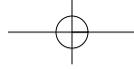
항목	곡우(穀雨)	영역	절기	시기	4월 20일 또는 2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곡우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곡우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우의 유래와 의미</li> <li>• 곡우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기형(2005a).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기형(2005b).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손인수(1991). 『한국인의 교육세시풍속』. 문음사.</li> <li>• 서해숙(2005). “곡우물마시기”.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인권한(2005). “3월”.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임동권(1989).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li> </ul>				

### ▶ 곡우의 유래와 의미

곡우는 양력으로 4월 20일 또는 21일이며, 청명과 입하 사이이다. 곡우는 봄의 마지막 절기로서 이 시기가 되면, 날씨가 고르고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는 절기이다(인권한, 2005).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라는 말이 있다(손인수, 1991: 309). 곡우가 되면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하기 위하여 범씨를 담그게 되는데, 본격적인 벼농사의 시작이다(임동권, 1989: 178-179).

### ▶ 곡우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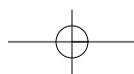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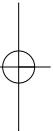
곡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 풍속이 있다. 먼저, ‘곡우물마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 나



무에 상처를 내어 받은 수액을 마시는 풍속이다(서해숙, 2005). 곡우 무렵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여서, 곡우물마시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라는 말이 있다. 조기는 곡우가 지나서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조기는 산란을 할 때 소리 내어 우는 습성이 있는데, 이 시기가 곡우 무렵이다(김기형, 2005a). 이때의 조기를 곡우살조기, 곡우철조기, 오사리조기라고 부른다.

또한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곡우에 비가 오면 못자리 물로 쓰기가 좋기에 풍년이 들게 된다는 의미이다(김기형, 2005b). 못자리를 해야 할 시기에 비가 오면 그만큼 적절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곡우는 다른 절기처럼 농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 07

## 입하 / 절기



항목	입하(立夏)	영역	절기	시기	5월 5일 또는 6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입하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입하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하의 유래와 의미</li> <li>• 입하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태효(2005). "입하물에 썬려 싹고 나온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나경수(2005). "4월".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천혜숙(2005).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최인혁(2005). "입하".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입하의 유래와 의미

입하는 양력으로 5월 5일 또는 6일이며, 여름의 시작을 의미한다. 절기상으로 볼 때, 입하와 입추 사이가 여름철이다. 입하는 곡우와 소만 사이에 있고, 음력 4월의 시기이다. 입하는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의미로 맥량(麥涼), 맥추(麥秋)라고도 한다. 또한 맹하(孟夏), 초하(初夏), 괴하(槐夏), 유하(維夏)라고도 하는데, 이는 초여름이라는 의미이다(최인혁, 2005: 66).

### ▶ 입하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입하 무렵이 되면 산과 들에 신록이 일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묘판에서 벌

씨가 싹이 터 모가 자란다(최인학, 2005: 66). 이 시기에 이팝나무의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양으로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 이팝나무의 꽃은 마치 쌀밥을 나무에 뿌려 놓은 듯한데, 한꺼번에 피면 풍년을 예상한다(나경수, 2005: 30). 한편, 입하 때에 햇차가 나오며, 차의 전문가 초의 선사는 곡우 전후보다는 입하 전후에 나오는 차를 더 높게 평가했다(김영조, 2012: 200).

입하와 관련된 속담 중에 ‘입하물에 씨레 신고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권태효, 2005). 이 무렵 모심기가 시작되기에 농가에서 씨레를 논으로 가져 나온다는 의미이고 이 시기의 특색을 가늠할 수 있다. 씨레질을 통해 모판을 고르고 범씨를 뿌려 못자리를 만들기에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됨을 말한다.

한편, ‘입하 바람에 씨나락 물린다’는 말도 있다(천혜숙, 2005). 이 시기에 바람이 불면 못자리의 범씨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의미로 농사에 좋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요컨대, 입하 바람은 반가운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농사의 제철이라는 함축도 있다. 계절의 변화가 여름으로 진행되면서 농경사회는 분주해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 08

## 소만 / 절기



항목	소만(小滿)	영역	절기	시기	5월 21일 또는 22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소만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소만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만의 유래와 의미</li> <li>• 소만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나경수(2005). "4월".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최인혁(2005). "소만".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소만의 유래와 의미

소만은 입하와 망종 사이이며, 양력으로 5월 21일 또는 22일이다. 이 시기는 햇볕이 풍부하여 만물이 성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이다(나경수, 2005: 30). 소만 무렵부터 여름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며 식물의 성장이 활발하고 농가에서는 모내기 준비가 바빠진다. 60여 년 전 신문 기사는 소만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김영조, 2012: 219).

“여름은 차츰 녹음이 우거지고 철 맞춰 내린 비로 보리와 밀 등 밭곡식은 기름지게 자라나고 못자리도 날마다 푸르러지고 있으나 남의 쌀을 꺾다 먹고 사는 우리 고향에 풍년이냐 들어주어야 할 것 아닌가? 농촌에서는 명

년 식량을 장만하고자 논갈이에 사람과 소가 더 한층 분주하고 더위도 이제부터 한고비로 치달을 것이다.”

### ▶ 소만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 가며 산에서는 부엉이가 운다. 이 무렵 보리는 익어 가지만 아직 수확을 할 단계는 아니고, 모내기를 준비하는 시절에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이 시기의 어려움을 말했다(최인학, 2005: 67).

이 시기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푸르게 번성하지만 대나무는 누렇게 변한다. 죽순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며, ‘죽추(竹秋), 대나무 가을’ 이라고도 한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부모님들을 연상하게 한다(김영조, 2012: 219).

소만 무렵 관련 속담으로 ‘소만 바람에 설늪은이 얼어 죽는다’ 라는 말이 있다(최인학, 2005: 67). 이 무렵의 바람이 몹시 차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아마도 기대하는 바에 비해 바람은 아직 서늘하다는 말인 듯하다.

# 09

## 망종 / 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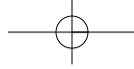
항목	망종(芒種)	영역	절기	시기	6월 5일 또는 6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망종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망종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종의 유래와 의미</li> <li>• 망종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선풍(2005). "5월".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서해숙(2005). "보리그스름".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좌혜경(2005). "망종 넘은 보리, 스물 넘은 비바리".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최인학(2005). "망종".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망종의 유래와 의미

망종은 양력으로 6월 5일 또는 6일이고, 소만과 하지 사이이다. 망종은 벼, 보리같은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의미이다(최인학, 2005: 216) 이 시기는 옛날에 모내기과 보리베기에 적당한 때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벳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라고 했다. 또한 '햇보리를 먹게 될 수 있다는 망종'이라는 말도 있다(김선풍, 2005: 120). 모두 이 무렵의 특색을 보여주는 말이다.

### ▶망종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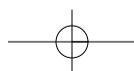
망종 무렵 생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말로,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다. 망종이



지나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으니 경계하라는 의미와 이제는 보리는 베고 모내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공존한다(김영조, 2012: 243-244).

또한 '망종이 4월에 들면 보리의 서를 먹게 되고 5월에 들면 서를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보리의 서는 풋보리를 말하며, 여기서 4월과 5월은 음력으로 따진다. 식량이 부족한 시절 풋보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고된 현실을 말해 준다(최인학, 2005). 한편, 풋보리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보리그스름'이라고 했고(서해숙, 2005), 전남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음 해에 보리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했다(최인학, 2005).

이 무렵 제주도에서는 풋보리 이삭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 보리알을 모은 뒤 솥에 볶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죽을 끓여 먹었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최인학, 2005). 아울러, '망종 넘은 보리'라는 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좌혜경, 2005). 이렇게 망종 때는 보리와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으며, 그만큼 이 시기의 특색을 잘 보여 준다.



# 10

## 하지 / 절기



항목	하지(夏至)	영역	절기	시기	6월 21일 또는 22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하지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하지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의 유래와 의미</li> <li>• 하지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류종목(2005). "하지".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천혜숙(2005). "하지가 지나면 밭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하지의 유래와 의미

하지는 망종과 소서 사이 절기이며, 양력으로는 6월 21일 또는 22일이다. 절기가 태양의 고도 변화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때, 하지의 정오의 태양 높이가 가장 높은 날이다. 그리하여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일사량이 가장 많다. 하지 이후에는 그 동안 축적된 열에 기초하여 매우 무더운 날들이 이어진다.

### ▶ 하지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하지 때의 생활 모습으로 '하지가 지나면 밭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다(천혜숙, 2005: 219). 하지 이후에는 눈에 물이 마르지 않게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분주함을 말

해 주는 것이다. 논농사에서 물의 확보는 매우 결정적이며, 시기적으로 하지 이후에 그러하다는 말이다.

또한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다(류종목, 2005: 218). 이것은 모심기가 하지 무렵에는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 이후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심기를 끝내라는 함축이다.

농촌에서는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옛날부터 3-4년에 한 번씩 한재(旱災)가 있었기에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기우제가 성행했다(류종목, 2005: 218).

한편, ‘하짓날은 감자 캐먹는 날로 감자환갑이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가 지나면 감자알이 잘 배지 않으며 감자씨가 죽기에 감자환갑이라고 한다(김영조, 2012: 265). 또한 하지에 ‘감자 천신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감자를 캐어다가 전을 부쳐 먹고 감자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1

## 소서 / 절기



항목	소서(小暑)	영역	절기	시기	7월 7일 또는 8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소서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소서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서의 유래와 의미</li> <li>• 소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재환(2005). “늦모내기에 죽은 중도 꿈적거린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류종목(2005). “소서”.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박환영(2005).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소서의 유래와 의미

소서는 양력으로 7월 7일 혹은 8일이고 하지와 대서 사이이다. 소서는 음력으로 6월의 절기이고 한반도에서는 장마철이다.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미이다. 그래서 1932년 신문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김영조, 2012: 306-307).

“더위가 머리를 드는 소서부터 16일째인 대서는 들어갈 처서까지 앞으로 31일이나 남았는데 하늘은 납덩이같은 구름으로 덮여 있고 삶는 듯 찌대는 수은주는 오르고 올라 정오에는 섭씨 39.9도를 가리켰다.”

### ▶ 소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소서 무렵은 하지 때 심은 모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고,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한다(류종목, 2005). 이 시기 생활의 모습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는 말이 있다(박환영, 2005: 320). 새 각시도 모를 심어야 할 정도로 다급함이 있다는 말이다. 즉, 소서 전에 보통 모내기가 끝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손을 충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늦모내기에 죽은 중도 꿈적거린다’는 말이 있으며, 모내기의 바쁜 경황을 뜻한다(고재환, 2005).

한편, 같은 의미로 <고려사절요>4권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한다(김영조, 2012: 286). ‘소서가 가까워오니, 죄가 무거운 죄수에게는 관대히 하고 가벼운 죄수는 놓아주라.’ 이 무렵이 그야말로 농번기로서 일손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절임을 유추할 수 있다.

# 12

## 대서 / 절기



항목	대서(大暑)	영역	절기	시기	7월 22일 또는 23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대서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대서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서의 유래와 의미</li> <li>• 대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편(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편』. 민속원.</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류종목(2005). “대서”.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유만공, 임기중 역(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li> </ul>				

### ▶대서의 유래와 의미

대서는 소서와 입추 사이의 절기이며, 양력으로 7월 22일 혹은 23일이다. 이 시기는 장마철이 끝나고 중복(中伏) 때이므로 매우 무덥다. 그래서 옛 속담에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 라는 말이 있다(류종목, 2005: 321). 요컨대, 대서는 큰 더위가 있는 절기이며, 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도 있다.

### ▶대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대서 무렵 무더위는 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 이 무렵의 이야기는 경계의 대상으로 절기를 언급하기 일췌이다. 서애 유성룡 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444).

“절은 천 길의 절벽에 기대었고, 창은 만리의 바람을 맞이하네. 나와 들은  
불수록 아득하고, 푸른 숲은 굽어볼수록 영롱하네. 대서(大暑)가 어찌 가  
까이 오겠는가? 신선의 경지와도 통할 듯 하네. 쉽게 화택(火宅)을 피할 듯  
하니, 근심 걱정 잡시는 잊을 수 있네.”

이 시기가 일 년 중 가장 더울 때라서, 더위를 피하는 풍속이 생겼다. 더위에 지친 몸을 보양  
하기 위하여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추어탕이다. 무더위가 한창 무렵  
발생한 소나기가 내린 뒤 발견한 미꾸라지를 탕으로 해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했다(김영조,  
2012: 307).

한편, 대서 때가 중복 무렵인데, 유만공은 복날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임기중  
역, 1993: 213).

“참외 쟁반에다가 맑은 얼음을 수정같이 쪼개 놓으니,  
냉연한 한 기운이 삼복을 제어한다.  
푸릇간에는 염소와 양 잡는 것을 보지 못하겠고,  
집집마다 죄 없는, 뛰노는 개만 삶아 먹는다.”

예나 지금이나 무더위가 오면 건강에 유의해야 했고, 그에 연관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즉,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여름철을 잘 보내려고 하였다.

# 13

## 입추 / 절기



항목	입추(立秋)	영역	절기	시기	8월 7일 또는 8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입추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입추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추의 유래와 의미</li> <li>• 입추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편(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편』. 민속원.</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나경수(2006). "세시풍속".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나경수(2006). "7월".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조현설(2006).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최운식(2006). "입추".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입추의 유래와 의미

입추는 양력으로 8월 7일 혹은 8일이며, 대서와 처서 사이의 절기이다.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의미한다. 입추 때는 음력 7월이며, 맹추(孟秋), 만염(晩炎)이라고 하여, 이때부터 가을 채비를 시작하지만 늦더위가 있기도 하다(장정룡, 2006: 30).

### ▶입추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입추 시절은 가을의 시작임을 자각하는데, 다음의 퇴계 선생 시에도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497).

“입추일에 계당에서 시를 쓰다. … (중략) …  
마른 벼 비에 깨어나 이랑 가득 푸르른 데,  
돌 시내 맑은 물은 옥구슬을 깨뜨린 듯하네.  
불 구름 더운 날은 진실로 어제인 듯한 데,  
짙은 숲 가을 매미는 가을을 알리네.”

이 무렵의 상황을 말해주는 속담으로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시기 벼가 한창 자랄 때라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의미이다(조현설, 2006: 144). 그래서, 벼가 한창 익어가는 계절이기에 이때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는 말도 있다(나경수, 2006: 22). 대신에 이날 하늘이 청명하면 만곡(萬穀)이라고 하여 풍년을 점친다(최운식, 2006: 144). 한편, 입추부터는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기도 하지만 농촌도 이제는 한가해지기 시작하여 ‘어정 칠 월 건들 팔 월’이라는 말이 있다(김영조, 2012: 332). 이 모든 속담들이 입추 무렵의 풍경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14

## 처서 / 절기



항목	처서(處暑)	영역	절기	시기	8월 23일 또는 24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처서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처서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서의 유래와 의미</li> <li>• 처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 민속원.</li> <li>• 장정룡(2006). "7월".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장장식(2006). "처서".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조현설(2006). "처서에 장벼 패듯".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처서의 유래와 의미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이며, 양력으로는 8월 23일 혹은 24일이다. 처서의 처(處)는 지(止)의 뜻이며, 더운 기운이 그치는 때라는 의미이다(장정룡, 2006: 30).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뺨뚫어진다.’는 말이 있다(장장식, 2006: 145). 권벽은 ‘처서 후에 시를 짓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는데, 이 무렵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499).

“푸른 나무에 가을바람 소리가 밤새 들리더니,  
광풍이 후려치며 종일토록 요란하네.

시원한 목침을 베고 단잠이 들었는데,  
 얇은 옷에 더위가 가니 병이 나올 듯 하네.  
 남쪽 개울을 향해 시를 지으려다가,  
 동쪽 다리에 약이 오는 것을 생각하네.  
 외로운 감회에 세월 가는 것이 절실하니,  
 지겨운 매미 소리가 적막을 깨우네.”

### ▶ 처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이 무렵의 날씨를 풍년과 흉년을 짐치는 기준이 된다. 처서 때의 비는 부정적인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날씨가 맑고 햇살이 왕성해야 벼가 익기에 좋다. 그런데, 처서에 비가 오면 벼의 성숙에 장애가 된다. 흉년을 시사하는 말로 처서 때의 비에 ‘십리에 천석 감한다’라는 말이 있다(장장식, 2006: 145). 유사한 말로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의 든 쌀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비가 가을날 잘 익어 가는 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시기의 특색은 ‘처서에 장벼 패듯’이라는 말에도 잘 나타난다. 우후죽순처럼, 처서 무렵 사방에서 벼 이삭이 길게 올라 와서 벼가 패기 시작한다는 말이다(조현설, 2006: 147). ‘장벼’라는 표현에서 ‘장’은 길다(長)라는 뜻으로 공간적으로 이곳 저곳 사방을 시사한다.

# 15

## 백로 / 절기



항목	백로(白露)	영역	절기	시기	9월 7일 또는 8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백로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백로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로의 유래와 의미</li> <li>• 백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편(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편』, 민속원.</li> <li>• 나경수(2006). “세시풍속”.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신경숙(2006). “칠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못 먹어도 팔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먹는다”.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황루시(2006). “백로”.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백로의 유래와 의미

백로는 양력으로는 9월 7일 혹은 8일이고, 처서와 추분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백로는 이슬을 말하며, 이때가 되면 밤의 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고 이름이 붙여졌다(나경수, 2006: 23). 백로가 되면 가을의 기온이 완연하며, 장마가 걷힌 후라서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

### ▶ 백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백로는 조상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절기였다. 백로 무렵을 이야기하는 이정암의 시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534).

“서울의 운산을 잠깐 다녀오니  
계절의 순환이 멈추지 않아 세월을 재촉하네.  
오늘밤에는 작은 집도 매우 시원하니,  
흰 이슬에 매미 소리도 매우 슬프네.”

백로는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진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백로보기’라는 것이 있다(황루시, 2006: 23). 전남지역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벼는 백로 이전에 여물어야 하며,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는 패어야 한다. 서리는 찬 기운을 가져와 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며,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은 결실이 어렵다고 한다. 백로의 이삭 상태는 가을 농사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며, 이를 반영하는 속담이 있다. 예컨대, ‘백로가 지나서는 논에 가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백로에는 이삭이 거의 결정되었다는 뜻이다(신경숙, 2006: 275).

# 16

## 추분 / 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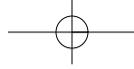
항목	추분(秋分)	영역	절기	시기	9월 23일 또는 24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추분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추분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분의 유래와 의미</li> <li>• 추분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신경숙(2006). "추분이 지나면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이육(2006). "노인성제".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좌혜경(2006).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황루시(2006). "추분".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추분의 유래와 의미

추분은 양력으로는 9월 23일 혹은 24일이고, 백로와 한로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시기이고, 추분 이후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추분이 지나서 점점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는 선명하여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 시기와 관련된 속담으로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 라는 말이 있다(좌혜경, 2006: 277). 추분이 지나면서 계절의 변화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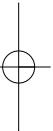
### ▶ 추분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추분에 부는 바람을 보고 이듬해 농사를 잡치는 풍속이 있는데,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에



대풍이 든다고 하였다(황루시, 2006: 276). 그리고 이 무렵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묵화와 고추를 따고 말리는 등 가을걷이가 시작된다(황루시, 2006: 275).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노인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냈다고 한다(이육, 2006). 이 시기 회자되는 속담으로 '추분이 지나면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라는 말이 있다. 추분이 지나면 천둥소리도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하기 위하여 숨어 버린다는 뜻이다(신경숙, 2006).

한편, 추분은 중용과 향기와 겸손을 생각하게 해 준다고 한다(김영조, 2012: 399).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점에서 중용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여름 태양 아래 자란 벼처럼 치열한 내공을 쌓아 내면의 깊이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다. 또한 가을 곡식들이 지난 세월을 뒤로 하고 저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역시 생각할 점을 준다는 것이다.



# 17

## 한로 / 절기



항목	한로(寒露)	영역	절기	시기	10월 8일 또는 9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한로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한로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로의 유래와 의미</li> <li>• 한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경섭(2006).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을 간다".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유만공, 임기중 역(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li> <li>• 천진기(2006). "한로".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한로의 유래와 의미

한로는 양력으로는 10월 8일 혹은 9일이고, 추분과 상강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한로는 24절기 중 열일곱째로 찾아오며,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의미이다(천진기, 2006: 356). 음력으로는 9월이며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이다.

### ▶ 한로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한로 즈음은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기에 농번기이며, 타작으로 분주한 때이다(천진기, 2006). 이 무렵의 생활 모습을 유만공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임기중

역, 1993: 246).

가을일이 바야흐로 벼 떠는 농막에 펼쳐져 있으니,  
풍림(楓林)에 앉아 있는 손님이 바쁜가 한가한가를 묻는다.  
누런 닭 흰 술로 타작관(打作官) 대접이 풍부하니,  
9월 9일 날의 타향은 고향보다도 더 낫다.

이 시기 속담으로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을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제비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추워지는 기점으로 한로를 생각한다는 의미이다(김경섭, 2006). 비슷한 속담으로 ‘한로가 지나면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여름새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한로 무렵의 특징을 말해 준다. 모두 한로 때의 자연의 변화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한로의 시절 음식으로는 국화전과 국화주가 있으며, 추어탕을 즐겼다. 추어(鮪魚)의 뜻은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가을고기’로 미꾸라지를 칭한다고 한다(김영조, 2012).

# 18

## 상강 / 절기



항목	상강(霜降)	영역	절기	시기	10월 23일 또는 24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상강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상강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강의 유래와 의미</li> <li>• 상강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편(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편』. 민속원.</li> <li>• 김종대(2006). “상강”.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ul>				

### ▶ 상강의 유래와 의미

상강은 한로와 입동 사이의 절기이고, 양력으로는 10월 23일 혹은 24일이다. 상강은 글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때를 말하는데, 이 시기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면서 밤의 기온은 매우 낮아진다. 이에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기온이 더 낮아지면 첫얼음이 얼기도 한다(김종대, 2006).

### ▶ 상강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권문해의 『초간선생문집』을 보면, 상강 때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시가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592).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속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산 모양이 파리해 보이고,  
구름 끝에 처음 놀란 기러기가 나란히 가로질러 가네.  
시냇가의 쇠잔한 버들은 앞에 병이 들어 시드는데,  
울타리 아래에 이슬이 내려 찬 꽃부리가 빛나네.  
도리어 근심되는 것은 노포(老圃)가 가을이 다 가면,  
때로 서풍을 향해 깨진 술잔을 씻는 것이라네.”

상강 무렵 농사일은 가을걷이로 매우 분주해진다. 속담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텃빈다’라는 말이 있다. 가을 농사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부지깽이라는 사물도 동참한다는 의미이다 (김영조, 2012: 444-445). 유사한 말로 ‘가을판에는 대부인마님이 나막신짝 들고 나선다’라는 속담이 있다. 모두 상강 때 가을 추수로 바쁜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 19

## 입동 / 절기



항목	입동(立冬)	영역	절기	시기	11월 7일 또는 8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입동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입동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동의 유래와 의미</li> <li>• 입동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김재호(2006). “생업”.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나경수(2006a). “세시풍속”.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나경수(2006b). “입동”.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신경숙(2006).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입동의 유래와 의미

입동은 양력으로 11월 7일 혹은 8일이며, 상강과 소설 사이의 절기이다. 입동은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후 소설, 대설, 동지, 소한 그리고 대한이 겨울의 절기이다. 입동은 겨울의 시작인 동시에 가을의 막바지이다. 그래서 상강 이후부터 입동까지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는 기간이다(김재호, 2006: 18). 입동은 소설과 함께 음력 10월의 절기이고, 이 시기에 무와 배추를 수확하여 김장을 담그고 겨울을 준비한다(김영조, 2012: 466).

### ▶ 입동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입동 무렵 예전에 농가에서는 고사를 많이 지냈다.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하고, 곳간과 마루

그리고 외양간에 고사를 지냈으며, 고사 음식을 소에게 가져다주고 이웃들 간에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나경수, 2006b: 52). 한편, 입동에는 치계미(雉鷄米)라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이것은 이 시기 마을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양로 잔치를 벌인 것을 말한다(나경수, 2006b: 52).

이 시기의 특색을 보여 주는 말로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라는 말이 있다(신경숙, 2006: 54). 보리 파종의 한계 시기를 말하는 것이며, 늦어도 입동 전까지는 보리 파종을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입동이 지나면 겨울이고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와서 김장은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월동 음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김장이고 그 시기는 입동 직후라는 의미이다(신경숙, 2006).

# 20

## 소설 / 절기



항목	소설(小雪)	영역	절기	시기	11월 22일 또는 23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소설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소설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의 유래와 의미</li> <li>• 소설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덕원(2006a). “초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김덕원(2006b). “소춘”.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나경수(2006). “소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이영수(2006). “뱃사공 얼어 죽은 날”.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소설의 유래와 의미

소설은 입동과 대설 사이의 절기이며, 양력으로 11월 22일 혹은 23일이다. 소설은 첫눈이 내리는 때라는 의미이며, 큰 눈이 내리는 대설 15일 전이다. 소설 때 내리는 눈을 초설(初雪)이라고 하는데, 이는 두보의 시에서 기원한다. 두보의 ‘갱제(更題)’ 시 “다만 첫눈 내릴 때를 즈음하여 말을 타고 형주로 떠나리라.” 중에서 첫눈 내릴 때를 말한다(김덕원, 2006a: 39). 소설 절기가 있는 음력 10월은 초겨울에 해당하지만 봄날처럼 따뜻하다 하여 ‘소춘(小春)’이라고도 한다(김덕원, 2006b: 37).

### ▶ 소설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이 무렵은 농사철은 지났지만 겨울 준비로 분주하다.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나 호박을 썰어 말리기도 하며 목화를 따서 손을 보기도 하는 시절이다(나경수, 2006: 55). 또한 소설 전에는 김장담그기를 끝내려고 한다.

음력 10월 20일경은 절기상 소설과 대설 전후한 시기이고, 추위가 오는 시절이다. 추위가 오는 날을 뜻하는 바로 ‘뱃사공 얼어 죽은 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날은 첫추위가 찾아오는 날이고, 이날 추위의 정도를 보고 그해 겨울 날씨를 예상하였다(이영수, 2006: 48).

한편, ‘소설 추위는 빔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설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말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이 무렵의 속담으로 ‘초순의 흠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말도 있다. 날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워져서 의생활의 변화도 이를 따라 간다는 의미이다(나경수, 2006).

# 21

## 대설 / 절기



항목	대설(大雪)	영역	절기	시기	12월 7일 또는 8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대설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대설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설의 유래와 의미</li> <li>• 대설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민속박물관 편(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편』, 민속원.</li>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이관호(2006). "대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대설의 유래와 의미

대설은 양력으로 12월 7일 혹은 8일이며, 소설과 동지 사이의 절기이다. 대설은 글자 그대로 큰 눈이 내리는 때라는 의미이며, 음력으로 11월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때 큰 눈이 내린다는 것은 중국 화북지방의 계절 특성을 반영하기에 우리나라와의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관호, 2006: 178). 그래서 다음과 같은 김종직의 시가 때에 따라서는 실감날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609).

“때는 십일월이라, 대설의 절후인데도,  
눈은 한 점도 내리지 않고, 비만 주룩주룩 내리네.

비가 내리는 건 그래도 괜찮으나, 천둥 귀신이 분주히 나돌아,  
 요란스럽게 광광 쳐 대어, 마치 욱하는 소리 같은데,  
 바람까지 남쪽에서 불어와, 성세가 서로 혼잡할 때는 동지가 되어가는데,  
 광대한 천지사방은 양기가 오는 칠일에도,  
 그 반복은 오히려 더디겠네.” … (후략) …

### ▶대설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대설 무렵은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고 동해(凍害)를 막아 준다는 것이다(이관호, 2006: 178).

이맘때 민가에서는 농사일을 끝내고 한가해지면 콩을 삶아 메주를 쑤다. 메주는 기근으로 고생할 때 구황식품이기도 했는데, 집집마다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메주를 띄울 때는 며칠 동안 방에 두어 말린 뒤, 짚을 깔고 서로 붙지 않게 해서 곰팡이가 나도록 띄운다. 알맞게 뜨면 짚으로 열십자 모양으로 묶어 매달아 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푸른곰팡이의 번식이 잘 된다고 한다(김영조, 2012: 510).

# 22

## 동지 / 절기



항목	동지(冬至)	영역	절기	시기	12월 21일 또는 22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동지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동지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지의 유래와 의미</li> <li>• 동지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조(2012).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인물과사상사.</li> <li>• 임동권(2006).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li> <li>• 조현설(2006).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홍석모, 최대림 역(1989). 『동국세시기』. 흥신문화사.</li> </ul>				

### ▶ 동지의 유래와 의미

동지는 대설과 소한 사이의 절기이며, 양력으로 12월 21일 혹은 22일이다.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시기이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겨울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할 만큼 동지는 의미 있는 절기이다.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는데, 동지 팔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임동권, 1989: 207).

### ▶ 동지와 일상생활 사이 관계

「농가월령가」에서 동짓날을 노래하는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김영조, 2012: 531-532).

동지는 명절이라 기운이 일어난다.  
시절식으로 팔죽을 쑤어 이웃과 즐기리라  
새달력으로 펴내니 내년 절후(節候) 어떠한고  
해 짧아 덧없고 밤 길어 지루하다.

동짓날의 대표적인 생활풍속은 팔죽을 먹는 것이다. 그 유래는 중국의 <형초세시기>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공공씨(共工氏)'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 죽어서 전염병 귀신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평소 팔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병 귀신을 쫓으려고 동짓날 팔죽을 만들어 귀신을 막았다는 것이다(최대림 역, 1989: 119-120).

동지 무렵의 생활모습을 보여 주는 속담으로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라는 말이 있다(조현설, 2006: 197-198). 동지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 준비가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지가 지나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양(陽)의 기운이 싹트기에 이러한 속담이 나왔다. 작은 설 즉, 아세(亞歲)라고 동짓날을 칭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23

## 소한 / 절기



항목	소한(小寒)	영역	절기	시기	1월 5일 또는 6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소한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소한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한의 유래와 의미</li> <li>• 소한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재복(2006). "소대함에 객사한 사람은 제사도 지내지 말랬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유재복(2006).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천진기(2006). "소한"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최호석(2006). "엄월"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소한의 유래와 의미

소한은 양력으로 1월 5일 혹은 6일이며, 동지와 대한 사이의 절기이다. 소한은 음력으로 12월의 절기이고,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 그래서 '대한이 소한의 집에서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최호석, 2006). 비슷한 말로 '소한이 대한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 ▶ 소한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소한 무렵의 속담으로 '소대함에 객사한 사람은 제사도 지내지 말랬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이맘때 추위가 상당하며, 추울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대비하라는 의미라고 한다(유재복,

2006: 286). 혹은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을 대우할 필요가 없다라는 함축도 있다고 한다. 비슷한 속담으로 ‘소대한에 집나간 사람은 기다리지도 말랬다’ 라는 말이 있다.

소한 추위는 매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소한의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추위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천진기, 2006). 혹은 이 말은 소한 때는 반드시 춥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어떤 연유가 있다라는 함의가 있다(유재복, 2006). 또한 필연적인 결과 혹은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 일과 부합하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소한 절기에 관련된 속담은 대개가 추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정도로 날씨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시기인 것이다. 추위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24

## 대한 / 절기



항목	대한(大寒)	영역	절기	시기	1월 20일 또는 21일
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중학교 국어 문학 영역</li> <li>• 고등학교 &lt;한국의 사회와 문화&gt;, &lt;한국지리&gt;, &lt;한국문화사&gt; 영역</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절기 중 대한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li> <li>• 대한의 의미를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li> </ul>				
훈화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의 유래와 의미</li> <li>• 대한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경섭(2006). "겨울이 돼서야 솜옷을 장만한다". 국립민속박물관.</li> <li>• 류종목(2006). "12월".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유재복(2006).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li>• 천진기(2006). "대한".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li> </ul>				

### ▶ 대한의 유래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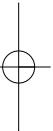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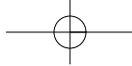
대한은 소한과 입춘 사이의 절기이고 양력으로는 1월 20일 혹은 21일이며,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이다. 이 무렵은 1월 하순이기 때문에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라는 말이 있다(천진기, 2006). 비슷한 속담으로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말도 있다(류종목, 2006: 232). 이런 말들은 대한 즉, '큰 추위'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은 가장 추운 소한을 지나고 입춘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의 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인 셈이다.

### ▶ 대한과 일상생활 사이 관계

이 무렵의 속담으로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라는 말도 있다. 대한이라는 고비만 넘기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유재복, 2006: 289). 비슷한 말로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낙관주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

한편, ‘대한이 닥쳐서야 털옷을 찾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급박하게 상황에 대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경섭, 2006: 330-331). 이것은 겨울과 솜옷의 관계 설정을 통해 유비무환이라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한 무렵의 속담들도 소한의 경우처럼 추위와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것은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난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만큼 겨울을 지내기가 고단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각종 기념일 등 이해교육 지도서 「중등용 개발자료」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서울시교육청

펴낸곳 도서출판 북산

등록번호 206-92-49907호 2010년 3월 10일  
135-84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67길 20, 201호  
전화 02-2267-7695 팩스 02-558-7695  
홈페이지 [www.glmachum.com](http://www.glmachum.com)

© 2014 서울시교육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교육청의 서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